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아세안시장에서 한·중·일 수출상품의
국제 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고 광 수

2022년 2월



아세안시장에서 한·중·일 수출상품의 국제 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라 공 우

고 광 수

이 논문을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고광수의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許 允 碩	
위 원	洪 在 成	
위 원	박 진 우	
위 원	이 재 우	
위 원	라 공 우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1년 12월

목 차

I. 서 론	7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7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8
II. 선행연구의 분석 및 아세안 국가의 일반 현황	10
1. 선행연구의 분석	10
1) 국내 선행 연구	10
2) 외국 선행 연구	15
2. 아세안 국가의 일반 현황	18
1) 인도네시아의 일반 현황	18
2) 말레이시아의 일반 현황	22
3) 베트남의 일반 현황	24
4) 태국의 일반 현황	29
3. 아세안 국가의 무역 환경	31
1) 인도네시아의 무역 환경	31
2) 말레이시아의 무역 환경	33
3) 베트남의 무역 환경	35
4) 태국의 무역 환경	38
III. 아세안 국가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구조와 한·중·일 무역 현황	40
1. 아세안 국가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구조	40
1) 인도네시아	40
2) 말레이시아	43

3) 베트남	46
4) 태국	49
2. 한·중·일 무역 현황	52
1) 한국의 수출입 현황	52
2) 중국의 수출입 현황	56
3) 일본의 수출입 현황	60
IV. 아세안 국가에 대한 한·중·일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64
1. 연구의 모형	64
2. 수출경합도와 불변시장 점유율 분석	64
1) 시장 점유율 분석	64
2) 수출경합도 지수	71
3) 불변시장 점유율	78
3. 현시비교우위(RCA) 분석과 무역특화 지수(TSI) 분석	93
1) 현시비교우위(RCA) 분석	93
2) 대칭적 현시비교우위(SRCA) 분석	100
3) 무역특화 지수(TSI) 분석	106
4. 대 아세안 국제경쟁력 추이의 동태적 분석	114
1) 한국의 시장 점유율 및 수출경합도 종합 분석	114
2) 한국의 SRCA 지수와 TSI지수 종합 분석	117
V. 결론 및 시사점	119
참고문헌	122
Abstract	128

[표 차 례]

<표Ⅱ-1> 2016~2020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19
<표Ⅱ-2>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지표	20
<표Ⅱ-3> 2017~2019년 인도네시아 10대 주력 육성 산업	21
<표Ⅱ-4> 말레이시아 주요 경제지표	23
<표Ⅱ-5> 말레이시아 소매업 분류별 판매액	24
<표Ⅱ-6> 베트남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26
<표Ⅱ-7> 베트남 연도별 자동차 판매추이	28
<표Ⅱ-8> 2020년 상반기 베트남 유통시장규모 및 성장률	28
<표Ⅱ-9> 태국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29
<표Ⅱ-10> 말레이시아 수입금지·규제 품목	33
<표Ⅱ-11> 베트남 국가기술 규정(QCVN) 주요 내용 요약	36
<표Ⅱ-12> 베트남 정부 부처별 국가기술 규정(QCVN) 관할 내용	36
<표Ⅱ-13> 베트남의 조치별 대(對) 세계 수입규제 현황	37
<표Ⅱ-14> 베트남의 국가별 대(對) 세계 수입규제 현황	37
<표Ⅱ-15> 태국 비관세 장벽 사례	38
<표Ⅲ-1> 인도네시아 최근 수출입 및 무역수지 규모와 동향	40
<표Ⅲ-2> 인도네시아 10대 주요국별 수출	41
<표Ⅲ-3> 인도네시아 10대 주요국별 수입	41
<표Ⅲ-4> 인도네시아 상위 10대 주요 수출 품목	42
<표Ⅲ-5> 인도네시아 상위 10대 주요 수입 품목	43
<표Ⅲ-6> 말레이시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43
<표Ⅲ-7>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대상국	44
<표Ⅲ-8> 말레이시아 주요 수입대상국	44
<표Ⅲ-9> 말레이시아 10대 교역 품목	45
<표Ⅲ-10> 말레이시아 상위 10대 주요 수출 품목	46
<표Ⅲ-11> 말레이시아 상위 10대 주요 수입 품목	46

<표Ⅲ-12> 베트남 최근 수출입 및 무역수지 규모와 동향	47
<표Ⅲ-13>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	47
<표Ⅲ-14>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	48
<표Ⅲ-15> 베트남 상위 10대 주요 수출 품목	48
<표Ⅲ-16> 베트남 상위 10대 주요 수입 품목	49
<표Ⅲ-17> 태국 최근 수출입 및 무역수지 규모와 동향	49
<표Ⅲ-18> 태국 주요국별 수출	50
<표Ⅲ-19> 태국 주요국별 수입	50
<표Ⅲ-20> 태국 상위 10대 주요 수출 품목	51
<표Ⅲ-21> 태국 상위 10대 주요 수입 품목	52
<표Ⅲ-22>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53
<표Ⅲ-23> 한국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2020년)	53
<표Ⅲ-24>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현황	54
<표Ⅲ-25> 한국의 대 태국 품목별 수출입 현황	54
<표Ⅲ-26>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출입 현황	55
<표Ⅲ-27> 한국의 대 베트남 품목별 수출입 현황	55
<표Ⅲ-28> 중국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56
<표Ⅲ-29> 중국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2020년)	57
<표Ⅲ-30> 중국 대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현황	58
<표Ⅲ-31> 중국 태국 품목별 수출입 현황	58
<표Ⅲ-32> 중국 대 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출입 현황	59
<표Ⅲ-33> 중국 대 베트남 품목별 수출입 현황	59
<표Ⅲ-34> 일본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60
<표Ⅲ-35> 일본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2020년)	61
<표Ⅲ-36> 일본 대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현황	62
<표Ⅲ-37> 일본 대 태국 품목별 수출입 현황	62
<표Ⅲ-38> 일본 대 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출입 현황	63
<표Ⅲ-39> 일본 대 베트남 품목별 수출입 현황	63
<표Ⅳ-1> 한·중·일 대 베트남 시장 점유율 분석	67

<표 IV-2> 한·중·일 대 태국 시장 점유율 분석	68
<표 IV-3> 한·중·일 대 말레이시아 점유율 분석	69
<표 IV-4> 한·중·일 대 인도네시아 점유율 분석	70
<표 IV-5> 한·중간 대 태국 품목별 수출경합도 지수 추이	72
<표 IV-6> 한·일간 대 태국 품목별 수출경합도 지수 추이	73
<표 IV-7> 한·중간 대 베트남 품목별 수출경합도 지수 추이	74
<표 IV-8> 한·일간 대 베트남 품목별 수출경합도 지수 추이	74
<표 IV-9> 한·중간 대 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출경합도 지수 추이	75
<표 IV-10> 한·일간 대 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출경합도 지수 추이	76
<표 IV-11> 한·중간 대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경합도 지수 추이	77
<표 IV-12> 한·일간 대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경합도 지수 추이	78
<표 IV-13> 불변시장 점유율(CMS) 모델의 해석	78
<표 IV-14> 한국의 베트남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81
<표 IV-15> 한국의 태국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82
<표 IV-16> 한국의 말레이시아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83
<표 IV-17> 한국의 인도네시아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84
<표 IV-18> 중국의 베트남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85
<표 IV-19> 중국의 태국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86
<표 IV-20> 중국의 말레이시아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87
<표 IV-21> 중국의 인도네시아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88
<표 IV-22> 일본의 베트남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89
<표 IV-23> 일본의 태국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90
<표 IV-24> 일본의 말레이시아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91
<표 IV-25> 일본의 인도네시아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92
<표 IV-26> 한중일 대 세계의 품목별 RCA지수 분석표	94
<표 IV-27> 한국 대 아시아(5개국)의 품목별 RCA지수 분석표	95
<표 IV-28> 중국 대 아시아(5개국)의 품목별 RCA지수 분석표	97
<표 IV-29> 일본 대 아시아(5개국)의 품목별 RCA지수 분석표	98
<표 IV-30> 한중일 대 세계의 품목별 SRCA지수 분석표	102

<표 IV-31> 한국 대 아시아(5개국)의 품목별 SRCA지수 분석표	102
<표 IV-32> 중국 대 아시아(5개국)의 품목별 SRCA지수 분석표	104
<표 IV-33> 일본 대 아시아(5개국)의 품목별 SRCA지수 분석표	105
<표 IV-34>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비교우위 분류기준	107
<표 IV-35> 한중일 대 전세계의 품목별 TSI 분석표	108
<표 IV-36> 한중일 대 태국의 품목별 TSI 분석표	109
<표 IV-37> 한중일 대 베트남의 품목별 TSI 분석표	110
<표 IV-38> 한중일 대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TSI 분석표	111
<표 IV-39> 한중일 대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TSI 분석표	113
<표 IV-40> 한국의 시장 점유율 증가 추이 평가	114
<표 IV-41> 품목별 한·중 및 한·일간 경합 상황 평가	116
<표 IV-42> 한국의 SRCA 비교우위 종합 평가	118
<표 IV-43> 한국의 TSI 무역 특화 종합 평가	118

[그림 차례]

<그림 II-1> 베트남의 GDP 및 GDP 성장률 추이	25
<그림 II-2> 2010~2020년 베트남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 추이	26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를 통해 긴밀하고 포괄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오늘날 여러면에서 주요 핵심 파트너로 발전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2009년 FTA가 완결되고, 양자관계는 2010년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인적 교류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교역대상국이고 건설수주 시장이며, 해외투자 대상지역, 한국은 아세안의 제5의 교역대상으로서 서로에게 필수적인 경제 협력파트너로 급부상되고 있다¹⁾. 한편, 현 정부에서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국민방문을 계기로 ‘신(新)남방정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이른바 ‘3P’를 중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인도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일본·중국·러시아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개념이다²⁾.

아세안은 지난 10년간 가파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교역과 생산의 주된 역할을 하며 세계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 특히 중국을 대신할 주요생산 거점임과 동시에 높은 구매력을 지닌 신흥 소비시장으로서 아세안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이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의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교역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 아세안과의 무역을 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다.

아세안은 10개국(캄보디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아세안 10개국은 한국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데, 아세안의 전체 인구는 약 6억 5,431만 명이며, GDP는 3조 1,120억불(전 세계 대비 3.6%), 총교역량은 2조 5,748억불(수출: 1조

1) 대외정책연구원·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시대」 개막: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과제, 제18-1호, 2018.1.23. p.12.

2) _____, 「전계서」, p.2.

4,010억불 / 수입: 1조 5,010억불)이다. 한국과 아세안의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무역액은 1,530억불(수출 950억불, 수입 580억불, 흑자 370억불)로 나타나고 있으며, 투자는 95억불(제3의 해외투자 대상지역, 신고기준)로 나타나고 있다.³⁾

한편, 2000년대 들어 아세안 국가들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투입구조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 국내 부가가치와 국내 중간재의 비중은 높아진 반면 수입 중간재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국 수출은 중국 및 일본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이후 아세안 10개국의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일찍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인적교류 등 폭넓은 경제영역에서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 및 중국보다 한발 앞선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경제의 지속 성장세가 전망되고, 미·중 위주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아세안시장 진출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 시장에서의 한국 수출 상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수출 상품, 일본 수출 상품과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정책 대안으로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와 방법과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 수출상품의 대 아세안 시장에서의 한국, 중국, 일본 수출상품과의 국제 경쟁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아세안 국가로 정해 진행하고자 했으나 경제규모가 미약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과 경제규모는 크나 생산경제가 미진한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4개국으로 한정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하고자 하는 품목 대상은 선행연구⁴⁾에서 제시하였던 11대 품목인 광물성연료(HS27), 유기화합물(HS29),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제품(HS73), 동과 그 제품(HS74),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

3) 한-아세안센터, 「2018 ASEAN & KOREA IN FIGURES」, FAST FACTS ON ASEAN-KOREA RELATIONS, 2018.5.

4) 심혜정·조의윤, 「아세안 무역환경 진단과 우리 수출전략」,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9. 6. p.15.

를 대상으로 HS 코드 2단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제시된 11대 품목의 대 세계와 대 아세안 국가별(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RCA지수와 SRCA지수 및 TSI지수를 분석하여 그 변화 추이를 비교하여 국제 경쟁력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수출상품이 아세안 시장에서 수출경합도와 불변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모든 통계량은 통일시키기 위해 UN Comtrade DB를 이용하고, 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을 격년 단위로 분석하여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과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포함해 연구의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2장은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국가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구조를 국가별과 대 한·중·일 국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한국, 중국, 일본의 무역 현황을 아세안 국가와 품목별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장으로서 아세안 국가에 대한 한·중·일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고, 시장 점유율을 분석하여 수출경합도와 불변시장 점유율 분석하고, 그리고 현시비교우위(RCA)분석, 대칭적 현시비교우위(SRCA) 분석 및 무역특화 지수(TSI) 분석을 한 후 이러한 분석의 동태적 메카니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 부분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Ⅱ. 선행연구의 분석 및 아세안 국가의 일반 현황

1. 선행연구의 분석

최근 5년간 국제경쟁력 관련 학술지 연구논문은 약 165편으로 나타났다⁵⁾. 이처럼 국제 경쟁력 관련 연구 논문은 국내 학술지에 많이 발표되었는데, 주로 전기 전자 산업, 자동차 관련 산업, 화장품 산업, ICT 산업 등 산업별 분석이거나, 지역별 연구로서 중국과 미주지역, 동남아시아 등의 연구, 그리고 연구의 모형은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시장점유율(EMS) 등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산업내무역지수(IIT), 국별비교우위지수(CAC), 수출유사성지수(ESI) 등도 사용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선행 연구 분석

주요 국내 선행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호건⁶⁾은 서비스 무역에 관련된 통계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 수지 흑자 부문의 안정적 발전과 서비스 부문에서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서비스 무역 정책대안과 한국의 서비스무역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서비스 무역의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흑자 분야에서는 건설서비스는 해외의 지역 다변화, ODA를 연계한 신시장 개척의 필요, 개인·문화·오락서비스는 한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운항항만경비는 항만 배후단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인택⁷⁾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생산요소 강도에 따라 노동집약형, 자본집약형, 지식집약형으로 분류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 전체 6개 산업군으로 분류한 방법을 통해 국제경쟁력지수(TSI, F&H RCA, RCA, RSCA)를 통해 산업 부문별 수출·수입 변동추이와 국제경쟁력을 분석하고 한국의 산업 발전 모델을 제시하였다.

김영환⁸⁾은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포지션을 분석하고자 경쟁력 IMS

5) 논문검색 사이트에서 최근 5년으로 설정하고, 주제를 '수출 국제경쟁력'으로 하여 경제학, 무역학, 경영학으로만 주제 분류한 결과임.

6) 이호건,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15(4), 2013, pp.97 - 122.

7) 조인택, "한국의 산업구조 분석과 발전 유형에 관한 연구 : 신산업분류 적용, 제조업과 서비스업국제경쟁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1(4), 2015, pp.485 - 503.

(국제시장점유율), TSI(무역특화지수), RCA(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서비스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사업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여행 부문 등은 경쟁력이 낮고 적자수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계경제에 대응하고 FTA 등의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장려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대부분 노동을 통해 구현되므로 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손승표⁹⁾는 세계 무역질서 하에서의 FTA를 활용하여 서비스 산업 무역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3자 물류의 기능, 컨설팅과 ICT 기능이 결합된 형태의 4자 물류기능을 적극 도입하고, 국내 물류업체의 내적인 물류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제고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책당국의 국내 물류업체의 해외진출을 도울수 있는 인력 양성 지원 방안,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 서비스 산업의 데이터베이스화, 각종지원 제도 강화 등을 통해 FTA 활용 국내외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김지용¹⁰⁾은 HS(Harmonized System)상품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서 자동차 관련 품목에 대해 1998년에서 2004사이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수출편향지수(Index of Export Bias)와 상품 경쟁력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지수인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arket Comparative Advantage)를 이용하여 국산 자동차 관련 부품의 미국시장에 대한 국제 경쟁력 정도를 분석하였다.

신미화 ·이현훈¹¹⁾은 UN Comtrade 무역통 데이터를 기본으로 HS분류 코드에 따라 산업분류를 하여 의료기기산업을 36개로 분류 하였다. 이것을 국제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해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분석하여 국제 비교우위 및 무역 특화정도를 산출하였고, 중력모형(gravity model)의 이론에 의거하여 의료

8) 김영환,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분석”,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 춘계학술대회, 2013, pp.281 - 298.
 9) 손승표, “FTA를 활용한 서비스무역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18(2), 2016, pp.151 - 167.
 10) 김지용, “국산 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미국시장 수출 집중도 및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7(4), 2005, pp.351 - 365.
 11) 신미화 ·이현훈, “한·중·일 의료기기산업의 비교우위 및 무역패턴 분석”,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36(2), 2011, pp.25 - 56.

기기제품의 수출 규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심재희¹²⁾는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를 활용하여 한국·중국·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6개국 자동차산업의 인도도 수출성과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완성차와 승용차 부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버스와 화물차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산업에 대한 국가별 분석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고 한국은 6개 나라 중 중위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발전방안으로는 한국이 인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소형차종은 수익성이 높지 않아 수익성 증가를 위한 중형차 이상의 여러 차종에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또한 부품산업은 완성차업계와의 인도진출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이점을 활용하고 로컬부품산업의 경쟁력 상승에 따른 국내 부품산업의 위축 가능성 등의 약점을 잘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태현¹³⁾은 CAC(Comparative Advantage by Countries), 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ESI(Export Similarity Index) 지수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7년동안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중국시장에서의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RCA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자동차의 국제경쟁력은 일본, 독일 다음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중국의 자동차 시장에서는 6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신속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중국 자동차 시장의 경쟁체제 변화에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권기수¹⁴⁾는 수출경합도, 비교우위지수,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의 수출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첫째, 한국 제품의 비교우위가 유지 또는 낮아지고 있으며, 둘째, 브라질 시장에서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점도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고 셋째, 한국의 수출이 브라질시장에서 품목별 수입구조의 변화에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도 성과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여택동¹⁵⁾은 한국이 베트남에 수출시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중국

12) 심재희, “주요국 자동차산업의 인도시장 수출성과 분석을 통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방안 모색”,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25(1), 2012, pp.777-800.

13) 김태현, “한국 자동차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구- RCA, CAC, ESI 지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2009. 12., pp.583-611.

14) 권기수, “브라질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 분석”, 포르투갈 브라질 연구, 제16권 1호,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2019.2., pp.111-146.

간 수출 경쟁력을 비교하였다.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중국 간 수출경합도가 증가하여 한국과 중국사이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 진다고 보았다. 한국이 베트남 수출시장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수출품목으로 ,액정디바이스, 반도체디바이스, 광섬유,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등 총 11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이어 베트남 시장에서 식품, 패션의류, 화장품 등 가성비 높은 소비재와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용 재료, 의료기기, 의료기기 시스템 등도 베트남 시장 진출 시 유망 품목으로 보았다.

백은영·이은화¹⁶⁾는 김 주산국인 일본과 중국의 김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여 한국의 김 수출 위치를 살펴보았다.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한·중·일 중 김 수출국이며, 중국과 수출상대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 경합도 분석에서는 한국·중국 경합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김 수출에서 한국·중국이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국 중 한국은 수출특화지수가 가장 높았고, 수출 경합도에서도 중국과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김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적정 생산 시스템 구축하여 질 좋은 김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높은 가치 창출을 위해 국내 상황에 알맞은 마른 김 등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지현·김부용¹⁷⁾은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의 구조 변화, 시장비교우위(MCA), 시장점유율, 수출경합도 분석 등을 통해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내 한국과 일본·대만·독일·미국 간의 경쟁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대 중국 수출 둔화는 한국의 수출이 집중된 분야(중간재, 가공 무역, 전자·화학)를 중심으로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되고, 중국의 자체 생산능력 부족으로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는 일본·대만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데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한국은 내수용 부품의 수출경쟁력 강화, 중국의 수입수요가 급증하는 전기장비·화장품·가정용 식음료품 등 소비재 시장으로 진출 확대,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차별화, 전자·화학 분야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업종의 다변화, 일본(화학제품 관련 반제품 시장) 및 대만(컴퓨터·전자부품·통신장 비 제품 관련 부품·부분품 시장)과의 경쟁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승권·최장우¹⁸⁾는 중국시장에서의 화장품 수출 경쟁력을 분석한 연구에서 사용

15) 여택동, “한국의 對베트남 시장진출전략과 유망수출품목 선정”, 통상정보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9.6. pp.95-121.

16) 백은영·이은화, “ 한·일 김 수출경쟁력 분석에 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제30권 3호, 한국도서학회, 2018.10. pp.139-159.

17) 정지현, 김부용,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대외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5-01, 2015.12.

18) 한승권·최장우,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對중국 수출경쟁력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통상

한 연구방법은 3가지를 사용하였는데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무역특화지수(TSI), 시장비교우위지수(MCA)를 활용하였다. 무역 통계 데이터는 2007~2016년 사이의 UN Comtrade 데이터와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기초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화장품산업은 중국시장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고광수·장유식·김태환¹⁹⁾(2020)은 한국의 수출 상품 중 인도네시아에 유망한 10개 품목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시비교우위(RCA)지수와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하여 중국과 일본의 수출 상품과 국제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중·일의 경쟁력있는 10개 품목의 수출 경쟁력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은 ICT산업 육성정책, 한류 열풍, 인도네시아의 의료시장 확대 정책 등을 고려하여 진출한다면 중국과 일본과의 수출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라공우·송진구²⁰⁾(2020)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수출경합도를 분석하고 SRCA와 TSI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 분석에서는 2012년 대비 2018년,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경합도가 상승하였으나,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합도는 같은 기간 몇몇 품목에서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 SRCA분석과 TSI지수가 1에 근접하고 있어 대부분의 품목이 경쟁력이 강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한국 화장품과 의료용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일본·중국 상품보다 경쟁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고광수·송진구²¹⁾는 중국이 한국에 조치한 반덤핑 상품의 대 세계와 대 중국 및 중국의 대 세계와 대 한국에 대한 RCA지수·SRCA지수 및 TSI지수의 변화 추이를 비교 하여 반덤핑 조치 이후에 한국과 중국 관련 상품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과 중국의 2002년부터 2016년의 HS(6단위)로 하여 9개 품목에 대한 무역특화지수(TSI)와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된 자료를 통해 반덤핑 조치 전·후를 비교해 경쟁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

정보학회, 2018, pp.111-130.

19) 한승권·최장우,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對중국 수출경쟁력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8, pp.111-130.

20) 고광수·장유식·김태환, “인도네시아시장에서 한국 수출상품의 국제 경쟁력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20, pp.267-286.

21) 고광수·송진구,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조치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제14권 제6호, 2018, pp.549-568.

석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외국의 선행 연구 분석

주요 외국의 선행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Inka Havrila & Pemasiri Gunawardana,²²⁾은 호주의 섬유 및 의류(TAC) 산업에서의 비교우위와 경쟁력은 Balassa의 현시 비교우위 지수(RCA)와 Vollrath의 경쟁력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Balassa 지수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호주는 섬유 및 의류 부문에서 비교우위가 높으나 '특수섬유제품', '바닥재, 테피스트리 등', '모피' 하위 카테고리에서는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Vollrath 지수를 기반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호주는 섬유 및 의류의 총 상품 그룹과 관련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내 무역의 결과는 증가 추세를 보여주며, 이는 호주가 점점 더 차별화된 TAC 제품을 수출 및 수입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Ferto, I. and Hubbard, L.J.²³⁾는 농산물 가공을 통한 수출 다각화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과일을 포함한 원예 제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 연구에서 4개의 현시 비교우위 지수를 사용하여 가나가 비교우위가 있는 9개의 농가공 제품 그룹을 밝혀냈으나,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가나가 비교우위가 있는 농가공품의 점유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9개의 확인된 제품 그룹의 수출 확대를 장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J. David Richardson,²⁴⁾은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을 통해 한 국가의 수출구조 또는 경쟁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수출 성장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은 상당히 복잡한 작용으로 요소 가용성, 기술, 시장 구조 검토, 수요 패턴 및 초점 국가의 정부 정책, 고객과 그 경쟁자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Balassa, B.²⁵⁾는 Balassa(1965)는 현시비교우위 (RCA) 지수를 고안하여 국가간의

22) Inka Havrila & Pemasiri Gunawardana, "Analysing Comparative Advantage and Competitiveness: An Application to Australia's Textile and Clothing Industries", Australian Economic Papers, 42(1):103-117, 2003.

23) Ferto, I. and Hubbard, L.J.,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Competitiveness in Hungarian Agri-Food Sectors." World Economy, 26, 247-259. 2003.

24) J. David Richardson, "Constant-market-shares analysis of export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 issue 2, 227-239., 1971.

25) Balassa, B., "Trade Liber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33, 99-123., 1965.

수출 경쟁력의 측정지표로 사용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 또한 RCA의 값은 0에서 1을 넘어 무한대의 값을 가질수 있는데 통상 1보다 크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Keld Laursen²⁶⁾은 Balassa의 '현시비교우위'(RCA)모형을 토대로 하여 비대칭적인 RCA값을 중립 값(0)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하고, 이를 '대칭적 현시비교우위'(RSCA)라고 하였다. 이론적 논의는 RCA와 RSCA 지수를 모두 사용하여 회귀 오류 항의 정규성에 대한 Jarque-Bera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RSCA의 속성과 실증적 증거에 중점을 두고, RSCA를 Michaely 지수, 무역수지 기여도, Chi Square 및 Bowen의 순 무역 지수를 포함한 다른 국제 무역 전문화 측정과 비교하였다.

Nur Chasanah, Jangkung Handoyo Mulyo, Dwidjono Hadi Darwanto²⁷⁾는 아세안 +3 역내 인도네시아 원예산업 수출구조의 경쟁력과 유사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RCA(Revealed Compare Advantage) 분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원예는 ASEAN+3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도네시아 RCA의 평균은 1999-2014년 ASEAN 수준의 1.64에서 ASEAN+3 수준의 0.45로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수출 유사성 지수(ESI) 분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ASEAN 및 ASEAN+3 수준 모두에서 싱가포르와 가장 높고 원예 수출 구조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태국은 ESI 지수가 93.77로 아세안 국가 중 수출구조 유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ASEAN+3의 통합은 일반적으로 각 회원국과의 ESI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ASEAN+3 통합의 틀에서 원예 상품 무역은 ASEAN+3 회원국 간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출 구조 유사성에 의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Abdoulkarim Esmaili²⁸⁾는 이란 및 기타 주요 수출국의 대추 수출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현시비교우위(RCA)를 활용하여 비교우위를 측정하였다. 수출 점유율은 비교우위 지수를 나타내었고 Spearman의 상관계수를 분석하여 날짜별 비교우위의 동적인 변화를 파악했다. 지난 40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비교우위가 변동되었는데,

26) Keld Laursen,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the alternatives as measures of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Eurasian Business Review volume 5, pp.99 - 115, 2015.

27) Nur Chasanah, Jangkung Handoyo Mulyo, Dwidjono Hadi Darwanto, "Competitiveness and Export Similarity of Indonesian Horticulture in The Asean-Asean+3", <https://doi.org/10.22146/jae.25583>.

28) Abdoulkarim Esmaili,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Dates", 209-217, Jul 2014, <https://doi.org/10.1080/08974438.2014.909280>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의 비교우위가 아랍에미리트(UAE), 튀니지, 파키스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Spearman의 상관계수는 이란과 UAE의 RCA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Javeria Maryam, Umer Jeelanie Bandy, Ashok Mittal²⁹⁾은 BRICS 및 BRICS-EU 무역 흐름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 강도 지수를 2001-2015년 기간 동안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Balassa의 현시비교우위(RCA)지수를 이용하여 2015년 세계 시장에서 BRICS 국가의 수출 비교우위를 위해 계산하고 수출 유사성에 대한 비교 분석은 인도와 EU의 다른 BRICS 국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무역집약도는 BRICS 회원국 간 양자간 무역흐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BRICS에서 EU와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그리고 2015년의 경우, HS-2자리 및 HS-4자리 분류에서 RCA의 비교 연구는 이들 국가의 수출 구성에서 구조적 변화를 보였으며, 분석 결과 브라질과 러시아는 천연자원 기반 제품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반면 인도와 중국은 제조·가공품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유사성 지수는 EU에서 인도와 중국 간의 경쟁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A. H. Q. M. Merkies & T. van der Meer³⁰⁾는 CMS(Constant Market Share) 분석을 한 국가의 수출 변화를 분석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이론적 토대(및 정책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CMS 분석을 2단계 동질적 수요 모델과 연관시켜 CMS 분석을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ESCAP)의 1972-1976 데이터에 적용된 2단계 대체 상수 탄력성 수요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경험적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Jorge Chami Batista³¹⁾는 불변시장점유율 모델의 새로운 확장을 개발하여 특정 시장에서 수출업체의 시장점유율의 이득 또는 손실을 경쟁업체에 귀속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런 다음 이 방법을 미국 시장에 대한 브라질의 공산품 수출에 적용하여

29) Javeria Maryam, Umer Jeelanie Bandy, Ashok Mittal, "Trade intensity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 analysis of Intra-BRICS trade", 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ing Markets, Vol. 13 No. 5, pp. 1182-1195, 29 November 2018.

30) A. H. Q. M. Merkies & T. van der Meer,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 Empirical Economics, volume 13, 65 - 80, 1988.

31) Jorge Chami Batista, "Competition between Brazil and other exporting countries in the US import market: a new extension of constant-market-shares analysis", Applied Economics, 2477-2487, 11 Apr 2011.

1992년, 1999년 및 2004년 사이에 어느 국가에서 브라질이 시장점유율을 얼마나 얻었는지, 브라질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한 국가는 어디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OECD 국가에 대한 브라질의 손실은 두 기간의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의 상대적 단위 노동 비용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논문들은 대부분 특정 국가의 품목과 품목을 비교분석하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지역별, 품목별, 산업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도구로 활용한 모델은 현시비교우위지수((RCA :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등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수출유사성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국별비교우위지수(CAC: Comparative Advantage by Countries), 산업내무역지수(IIT: Intra-industry trade) 등도 사용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경쟁력 분석에서 HS 코드를 2단위로 분류하여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대아세안 국가에 대한 10대 주요 수출 상품을 분석하고 국제경쟁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것은 기존 논문들의 분석 방법과 주된 분석 품목은 비슷하지만, 경쟁 우위 산업과 품목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11대 주요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대 세계, 대 아세안 국가별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무역특화지수(TSI:Trade Specification Index)를 분석하고 한국, 중국, 일본의 수출경합도(Export Similarity Index)와 불변시장점유율CMS(Constant Market Share) 분석을 통해 경쟁 관계까지 분석하여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2. 아세안 국가의 일반 현황

1) 인도네시아의 일반 현황

(1) 경제 환경

인도네시아 경제는 2010부터 2012년 사이에는 중산층 증가에 따른 내수 시장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최근 5년간 국내총생산(GDP) 중 약 70%를 차지하는 내수와 정부의 공공지출 부문이 모두 둔화하였다.

<표 II-1> 2016~2020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단위: %)

경제지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경제성장률 (%)	5.03	5.07	5.17	5.02	-2.07

자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 IMF(World Economic Outlook)

그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중국 경기 침체 등 경제 불안정 요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6%대에서 4%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6년에 5.03%로 회복하였다. 2017년의 교역량은 3,24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9% 증가하였고, FDI 규모는 32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또한 107.2억 달러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달성하고 경제성장률은 5.07%를 기록했다.

그리고 2018년 인도네시아의 수출규모는 2017년 대비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규모가 수출규모 보다 더 많이 상승해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고 2018년은 5.17%으로 연속 3년 성장했으나, 2019년은 전년 대비 0.15%p 하락한 5.02% 기록하였다. 특히 2018년 루피아화 가치가 미달러에 비해 절하되어서 수출보다 수입증가 폭이 크다는 이유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투자자들의 달러화 자금회수 현상이 예년보다 증가했는데, 2018년 상반기 FDI 금액은 총 152억 7,236만 달러로 작년년 상반기 대비 2% 감소했지만, FDI 프로젝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였다.

2019년부터 미달러 대 루피아화 환율이 14,000대를 유지했으며, 2020년 초반에는 경기 여건 개선으로 13,000대 후반까지 하락했으나, 코로나 19로 16,000대까지 폭등하여 2020년 7월 하순에는 정부의 통화정책으로 14,000대 중반 유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감소했으며, 무역수지 또한 적자인 상황이나, 2019년 인도네시아 무역 적자 규모는 31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무역적자 규모의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제품의 무역적자 감소와 비석유·가스 제품의 무역 흑자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2) 주요 거시 경제지표

인도네시아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안정화 추세이며, 외환보유고의 경우 2016년에 1,164억 달러에 2020년에는 1,359억 달러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소비자 물가상승률 또한 2013년에 전년 대비 2%p로 급등해 2015년까지 6.4%를 유지하다가 2016년에 3.5%로 급락한 이후 2020년에도 1.68% 최저치로 나타났다.

그리고 투자와 가계 소비는 2020년 인도네시아 GDP의 89.4%를 차지했다. 설비 투자는 5.0%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조업 활동 둔화,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교역 감소,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 등으로 부진했다. 자본재의 수입은 16.7% 감소, 자동차 판매를 위한 자본재 투자가 41.8%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표 II-2>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5.03	5.07	5.17	5.02	-2.07
명목GDP(십억\$)	932.07	1,015.5	1,104.7	1,120	1,059.6
1인당 GDP(PPP,\$)	10,620	11,070	11,800	12,480	12,220
1인당 명목 GDP(\$)	3,605.72	3,885	3,947	4,196	3,922
정부부채 (%of GDP)	30	29.4	30	30.5	38.5
물가상승률(%)	3.53	3.81	3.2	3.02	1.68
실업률(%)	5.61	5.5	5.34	5.3	7.07
수출액(백만\$)	144,489.77	167,640.45	180,215.04	167,002.88	163,306.49
수입액(백만\$)	135,652.58	156,925.37	187,916.68	170,388.23	141,622.13
무역수지(백만\$)	8,837.19	10,715.08	-7,701.64	-3,385.35	21,684.36
외환보유고(백만\$)	116,361.53	130,196.38	120,654.27	129,183.28	135,896.66
이자율(%)	4.75	4.25	6	5	3.75
환율(자국통화)	13,308.33	13,380.83	14,236.94	14,146.33	14,576.81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 IMF(World Economic Outlook)

한편, 가계 소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활동 제약과 고용 상황 악화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2019년 대비 2.6% 하락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 감소가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2020년 빈곤층이 약 300만 명 이상 증가했고 지니 계수가 2020년 8월 기준, 0.385포인트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00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기준, 인도네시아 통계청을 통해 집계된 실업자 수는 980만

명(실업률은 7.1%)으로, 2020년 2월 집계보다 280만 명이 증가했다. 특히 수도인 자카르타의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 2020년 8월 기준, 자카르타의 실업률은 11.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관광, 제조업, 도소매 분야의 지속적인 부진에 따라 올해 실업자를 1,070만 명에서 1,27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무역 분야에서 2020년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는 21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이는 2011년 이후 최대 흑자폭이지만 전체 교역량은 감소했고 수출보다 수입 감소가 큰 관계로 불황형 흑자로 보인다. 2020년 인도네시아의 총 수출은 1,633억 달러 규모로 2019년 대비 2.2% 소폭 하락한데 비해, 총 수입은 1,416억 달러 규모로 상대적으로 16.9% 큰 폭으로 하락했다.

(3) 인도네시아 산업 개황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시장에서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제조업으로 국가 성장을 견인한 규모면에서도 독보적으로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표 II-3> 2017~2019년 인도네시아 10대 주력 육성 산업

연번	10대 주력 육성 산업	개발 대상 세부 영역
1	식품	어류 가공, 육류가공, 냉매 자재, 식물성 유지 가공, 과채류 가공, 밀가루, 당류
2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허브, 천연재료 성분의 제약 전통의약품 화장품, 백신, 바이오제품, 의료진자장비, 의료소모품 등
3	섬유/피혁/신발	직물, 의류, 인조가죽, 신발, 원목 가구, 등나무 소재 가구, 플라스틱 고무 가공 및 고무 제품
4	수송기계	오토바이, 자동차부품, 디젤 및 전자기차, 선박 및 부품, 프로펠러 항공기, 항공기 부품 등
5	정보통신기술	스마트 가전 제품,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통신기기
6	전력 생산 산업	1차 및 2차 전지, 태양광 발전기 등의 전자 장비
7	자본재/원부자재/산업 서비스	컴퓨터 수치 제어, 염료, 첨가물, 촉매제, 용해제, 유지보수, 산업 공정 서비스
8	농업 상위 산업	올레인, 글리세롤, 지방알코올, 바이오 윤활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에탄올, 휴대용 사료, 가축사료, 적층물 등 목재, 장식유, 용해 퍼프 등 제지 펄프 제품
9	비금속/비금속 광물 산업	철 비철금속 가공 및 제련, 귀금속, 핵연료, 비철광물
10	석탄/석유/가스 기반 기초화학산업	상위 석유화학제품, 유기화합물, 인조레진 및 플라스틱 자재, 천연 및 인조 고무, 기타 화학제품

자료 : 대통령령 2018년 제 2호

2014년부터 전자상거래시장, 라이드헤일링(Ride-hailing)시장, 전자지갑(E-Wallet) 시장 등 ICT 기술에 기반한 온디맨드(On-demand)형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테크 기반의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4차 산업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ICT), IoT 등 스마트산업을 적극적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0대 주력 육성 산업³²⁾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원부자재 및 인력 확보, 산업 시설 및 인프라 개선, 산업 강화, 중소기업 산업 육성, 산업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및 산업단지 구축등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2) 말레이시아의 일반 현황

(1) 경제 환경

말레이시아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인구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1인당 명목 GDP는 2014년의 11,009달러에 2017년 9,623달러로 3년간 지속하여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³³⁾.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브루나이 다음으로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이며, 원유 및 천연가스, 고무, 주식, 목재 등 풍부한 자원 산업의 기반으로 국가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특히, 팜유 중에는 야자유 등에 대한 생산량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0년대부터 제조업 기반 확충에 주력하여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화학제품 등 제조업 분야에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리고 동남아 유일의 자체 자동차 브랜드³⁴⁾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생산 기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2014년까지 경상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로 유지해왔으나 그 후에는 달러 대비 약세를 시현하기 시작하고 2015년부터 국제유가 하락과 링깃화 가치 급락으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코로나19 및 세계적인 불황과 국제유가 하락 등 소극적 요소로 인한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³⁵⁾.

32)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8년 제2호.

33)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Central Bank of Malaysia(BNM), Ministry of Finance

34) 프로톤, 페르두아

35) KOTRA, 「2021 국별 진출전략 - 말레이시아」, KOTRA자료 21-066, 2021. pp.10-11.

(2) 주요 거시 경제지표

말레이시아의 주요 거시 경제 지표는 다음과 같다³⁶⁾.

<표 II-4> 말레이시아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상)
인구	백만 명	31.2	31.6	32.4	32.5	32.7
명목GDP	십억 달러	296.5	302.7	228	343.4	149.1
1인당 명목 GDP	달러	9,360	9,623	10,432.1	343.4	4,560
실질성장률	%	4.2	4.8	4.7	4.3	-8.2
실업률	%	3.4	6.3	3.3	3.3	4.3
소비자물가상승률	%	1.8	4.1	1.0	0.7	-0.8
재정수지(GDP대비)	%	0.9	6.3	-3.7	-3.4	-3.2
총 수출	백만 달러	165,324	188,239	248,830	238,255	105,644
(대한(對韓) 수출)	백만 달러	7,507	5,443	8,474	8,155	4,101
총수입	백만 달러	140,948	163,364	281,110	205,089	6,597
(대한(對韓) 수입)	백만 달러	7,533	5,663	9,739.2	9,373	6,597
무역수지	백만 달러	24,377	24,875	30,719.9	33,167	15,203
경상수지	백만 달러	6,921	6,698	7,568	12,300	4,014
환율(연평균)	US\$	4.49	4.3	4.03	4.14	4.25
해외 직접투자	억 달러	8.0	5.6	5.3	6.3	1.5
외국인 직접투자	억 달러	11.3	9.4	8.1	7.7	2.0

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Central Bank of Malaysia(BNM), Ministry of Finance

(3) 산업 개황

말레이시아는 ASEAN 10개국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1인당 GDP 약 1만 달러) 고급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중산층 이상의 인구 비중도 높은 편이다. 소비재 유통·판매 채널도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플랫폼, 직접판매(Direct Selling) 등 다양하며 특히 인터넷, 할부거래,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첨단 소비가 동남아 타 지역에 비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소매업은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액이 전체 소매 판매액의 약 85%로 매장 방문 구매가 일반적이거나, 최근 온라인/모바일/방문판매 등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36) KOTRA, 「전개서」, p.3.

<표 II-5> 말레이시아 소매업 분류별 판매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Store-based 소매 판매액	53,024	45,972	44,714	43,868	48,609	48,609	49,307
Non-Store-based 소매 판매액	5,644	5,878	5,570	6,497	6,497	7,358	8,135
계	58,668	51,850	50,283	50,364	50,364	55,966	57,441

주: Store-based 소매점은 대형마트, 아웃렛, 럭셔리몰, 중소형 소매점 등 Non-Store-based 소매점은 직접판매(Direct Selling), 홈쇼핑, 온라인쇼핑, 모바일 쇼핑 등
 자료: 유로모니터(리서치/인터뷰/보도자료 등 종합)

다음으로 전력 플랜트 및 공공 인프라 분야를 보면, 향후 대체 에너지원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말레이시아는 추가 발전소 건설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선도적 개발을 위해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스마트 미터기 프로젝트,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등의 발주 추진 중이다. 광역 수도권 개발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MRT/LRT 건설 추진하고 있다³⁷⁾.

그리고 오프쇼어 및 석유화학 플랜트 분야를 보면, 2008년 이후 석유·가스 생산량 감소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성숙 유정(Mature Field), 한계 유정(Marginal Field), 심해(Deep Sea) 유정 개발을 통해 생산량 확대에 노력해왔으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추가 개발보다는 현재 생산 유정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신규 프로젝트 발주 계획이 지연되는 대신 노후 유전이나 폐유전의 개보수 및 철거 수요도 생겨나고 있다.

3) 베트남의 일반 현황

(1) 경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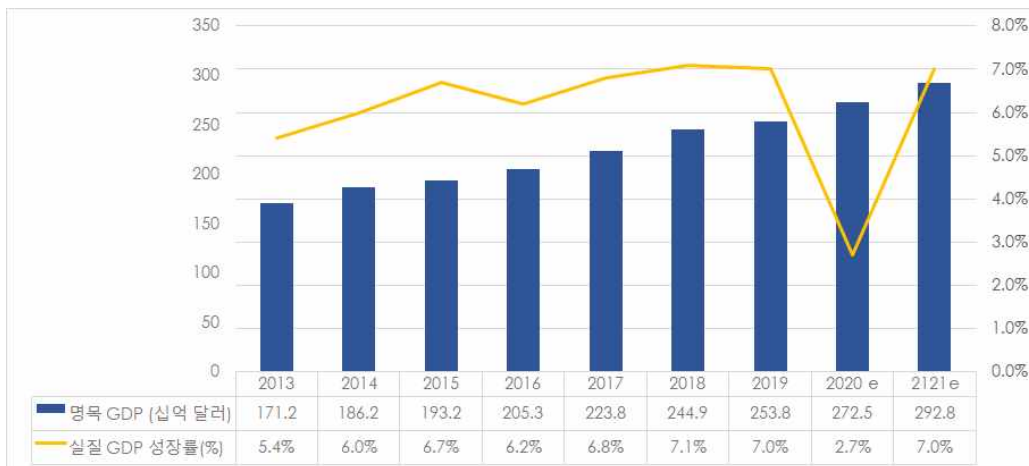
2020년 베트남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 2.7%를 기록하며 세계 경제가 팬데믹으로 침체한 가운데 플러스 성장을 이룩한 소수 국가 중 하나로 남았

37) MRT2 프로젝트는 Kwasa Damansara와 Putrajaya를 잇는 노선으로 현재 7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1단계 노선은 2021년 7월, 2단계 노선은 2023년에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 LRT3 프로젝트는 Klang Valley와 Kuala Lumpur를 잇는 37.8km 길이의 노선으로, 현재 33%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2월에 완공될 예정, 640km 길이의 동부 해안선(ECRL) 프로젝트는 Kelantan에서 시작하여 Putrajaya, Klang Vally를 잇는 노선으로 총 440억 링깃 규모로 2026년에 완공되어 2027년 초에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

다. 또, 2011~2015년 평균 성장률은 7.3%, 2016~2020년 평균 성장률은 8.1%로 증가세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GDP 규모 3,430억 달러를 기록하며 아세안 경제 4위 국가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베트남의 GDP 및 GDP 성장률 추이는 다음 <그림 I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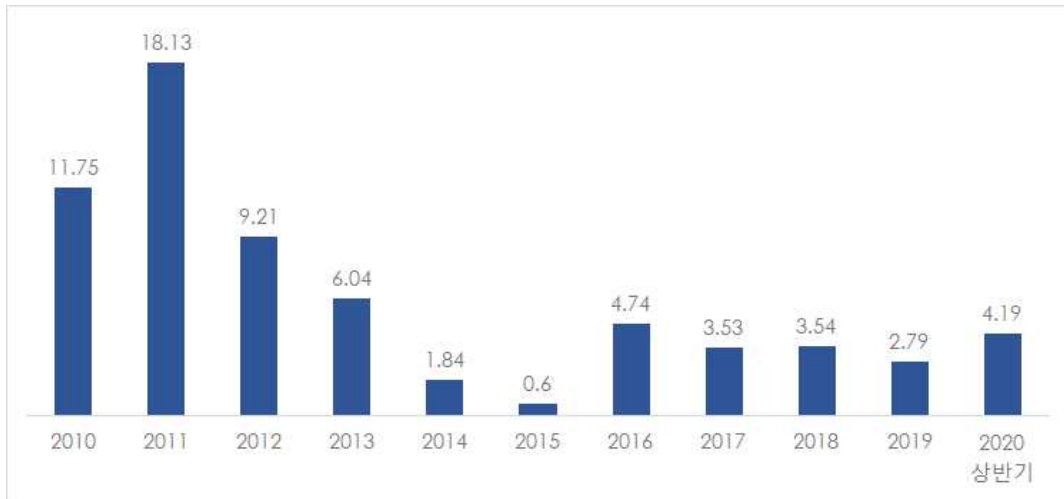
<그림 II-1> 베트남의 GDP 및 GDP 성장률 추이



자료: World Bank,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2019년도 경제성장률은 7.02%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2020년 베트남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약 3% 상승했으며 정부의 목표치인 4% 이내 물가 상승을 유지하였다.

<그림 II-2> 2010~2020년 베트남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 추이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2020년 상반기 항목별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른 식품이나 국제원자재가격 등의 변동분을 제거한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2.81% 상승하였다. 곡물, 식품, 외식 물가가 각각 전년 대비 11.17%, 3.38%, 14.28% 상승하는 등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였으며 음료 및 담배 가격이 7.54% 증가하여 물가 상승을 견인하였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1차산업이 발달했으나 제조·서비스 산업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2020년도 베트남 GDP에서 1차산업(농업, 임업, 수산업)의 비중이 14.85%, 2차산업(제조건설업)이 33.72%, 3차산업(서비스업)이 41.63%를 차지했으며 세금 및 기타 수입은 9.80%였다³⁸⁾.

(2) 주요 경제지표

베트남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³⁹⁾.

<표 II-6> 베트남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추정
인구	백만 명	92.64	93.64	94.58	96.48	97.50
명목GDP	십억 달러	200.49	200.40	244.9	261.9	284.8
1인당 명목 GDP	달러	2,164	2,353	2,538	2,715	2,929

38) KOTRA, 「2021 국별 진출전략 - 베트남」, KOTRA자료 21-069, 2021. pp.18-20.

39) KOTRA, 「전개서」, p.4.

실질성장률	%	6.2	6.8	7.1	7.02	2.7
실업률	%	2.40	2.20	2.10	1.98	2.20
소비자물가상승률	%	2.05	3.5	3.5	2.79	3.2
재정수지 (GDP대비)	%	-6.5	-4.7	-3.7	-3.4	-3.4
총 수출	백만 달러	176,581	215,118	243,697	264,789	285,500
(대한(對韓) 수출)	백만 달러	11,406	14,818	18,240	21,071	-
총수입	백만 달러	174,804	213,006	236,869	253,071	292,200
(대한(對韓) 수입)	백만 달러	32,163	46,961	47,582	48,178	-
무역수지	백만 달러	1,777	2,111	6,828	11,118	-6,700
경상수지	백만 달러	5.9	6.1	5.0	3.6(a)	3.7
환율(연평균)	현지국/U S\$	21,935	22,698	22,825	23,155	23,584
해외 직접투자	백만 달러	970.7	350.1	477.6	380.8	-
외국인 직접투자	억 달러	12.6	14.1	14.2	14.4	14.7

자료원: KOTRA

(3) 산업 환경

우선, 전자 분야에서는 삼성전자는 베트남 내 최대 전자 제조사이다. 2019년 매출액은 약 658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25%를 차지하고 베트남의 전기·전자 산업분야를 견인하고 있다. 베트남 교역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 LG, 애플, 등의 기업들이 베트남으로의 추가 투자 및 신규 공장 건설을 진행 중에 있다. 전기·전자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수는 베트남 전기 전자 기업의 1/3에 불과하나 수출 점유율은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 수요의 80%를 차지할 만큼 외국 투자기업의 영향력이 큰 상황이다.

두번째, 베트남 섬유, 의류 산업 분야는 업스트림(섬유생산), 미드스트림(직물생산 및 염색), 다운스트림(의류제조) 분야로 구성되며, 베트남 자국기업의 섬유, 직물 생산능력이 낮아 생산 제품 대부분은 국내에서 소비된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섬유·의류 수출액 중 외국직접투자(FDI)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에 달하고 있다.

셋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을 보면, 자동차생산자협회(Vietnam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VAMA)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 자동차 판매 대수는 총 32만 2,458대를 기록, 전년 대비 약 11.7% 성장하였다.

<표 II-7> 베트남 연도별 자동차 판매추이

(단위: 대, %)

연도	주요 내용	증감률(%)
2014	157,810	43
2015	244,914	55
2016	304,427	24
2017	272,750	-10
2018	288,683	5.8
2019	322,458	11.7
2020년 7월	131,248	-27.5%(전년 동기 대비)

자료: 베트남 자동차생산자협회(VAMA)

판매 현황을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주요 자동차 판매기업으로는 Thaco, 현대-Thanh Cong 합작사, 도요타, 혼다 등이 있으며, Thaco는 베트남 최대 자동차 조립 회사로서 약 9만 대 이상을 판매하였다. 현대-Thanh Cong 합작사는 2019년 처음으로 판매 대수에서 일본의 도요타를 앞섰으며, 자동차 브랜드로서는 베트남 내 1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산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는 자국 내 주요 자동차 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28일부로 국내 생산 자동차 등록세 50% 인하 및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 납부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2020년 7월 10일부로 국내 자동차 조립업체가 현지 생산이 어려운 원료, 부품을 수입할 경우 이에 대해 수입관세 0%를 적용한다.

네 번째, 2019년 베트남 유통산업의 전체 시장규모가 약 1,611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장 직접구매 감소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쇼핑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⁴⁰⁾.

<표 II-8> 2020년 상반기 베트남 유통시장규모 및 성장률

(단위: US\$, %)

	2020년 1~6월	2019년 1~6월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1,019억	1,030억	-1%
도소매	814억	785억	4%
여행, 관광	4.4억	9.6억	-54%
요식업	99억	123억	-20%
기타	101억	117억	-9%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Q&Me Vietnam Market Research

4) 태국의 일반 현황

(1) 경제 환경

태국은 제조업, 관광, 농업이 3대 주요 산업으로 발달했으며, 2021년 태국 경제는 2020년 최악의 경기침체에도 공공부채, 실업률 등 거시 경제의 펀더멘털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2위의 경제대국이기도 하지만, 태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 지속 및 대형 공공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진전으로 국내 관광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서서히 회복, 수출 증가 등 기대하고 있으며, 공공부채의 건전성을 감안하여 확대 재정정책 추진 예상이다.

한편, 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6년부터 감소하다 2018년부터 증가세로 반전 2020년 1분기 83.8%, 13.6조 바트(4,341억 달러)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여 경제성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환율부분도 바트의 대미(對美) 환율은 2017년부터 평가절상 추세 지속하여 대미 환율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하다⁴¹⁾.

(2) 주요 거시 경제지표

태국의 주요 거시 경제 지표는 다음 <표 II-9>과 같다⁴²⁾.

<표 II-9> 태국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백만 달러)

주요 지표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추정
인구	백만 명	67,650	67,793	67,793	69,626	69.8
명목GDP	십억 달러	412.4	455.3	504.9	543.6	509.2
1인당 명목 GDP	달러	6,113	6,731	7,448	7,807	7,295
실질성장률	%	3.4	4.0	4.1	2.4	-7.1
실업률	%	1.0	1.2	1.1	1.0	-0.4
소비자물가상승률	%	0.2	0.7	1.1	0.7	-1.1
재정수지 (GDP대비)	%	-2.7	-2.5	-2.5	-1.9	-6.3
총 수출	십억 달러	213.5	233.7	251.1	242.7	218.7
(대한(對韓) 수출)	십억 달러	4.1	4.6	4.9	4.8	3.9
총수입	십억 달러	177.1	201.1	228.7	216.0	180.3

40) KOTRA, 「2021 국별 진출전략 - 베트남」, KOTRA자료 21-069, 2021. pp.24-30.

41) KOTRA, 「2021 국별 진출전략 - 태국」, KOTRA자료 21-065, 2021. pp.9-10.

42) KOTRA, 「전개서」, p.3.

(대한(對韓) 수입)	십억 달러	7.3	8.0	8.9	8.7	6.6
무역수지	십억 달러	35.8	32.6	22.4	26.7	35.7
경상수지	십억 달러	43.4	44.0	28.5	38.4	12.6
환율(연평균)	현지국/US \$	35.30	33.94	32.31	31.05	31.6
해외 직접투자	억 달러	123.7	169.6	184.4	118.5	N.A
외국인 직접투자	억 달러	18.2	66.6	104.0	41.5	N.A

자료원: KOTRA

(3) 산업 환경

태국의 3대 산업은 제조업, 관광, 농업으로 아세안 최대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자본재 및 부품 소재의 폭넓은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태국은 가공무역을 통해 외자기업의 자동차 및 전기·전자 생산 및 수출기지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태국의 수출 상품 구성은 전자(14.4%), 농수산물(13.4%), 자동차(11.9%), 기계·장비(7.6%), 전기기기(5.6%) 순으로 제조업 제품 비중이 83.6%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자동차 산업을 보면, 자동차 부문은 GDP의 약 11%를 차지하는 최대 산업으로 완성차 18개사를 가지고 있으며, 1차, 2차, 3차 벤더까지 포함하면 약 1,700여개 사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89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로 전기 전자 산업분야를 보면, 관련 제조업체는 2,500여 개사로 고용인원은 약 75만 명 수준이며, 전기·전자 시장은 약 700억 달러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식품산업을 보면, 태국은 풍부한 식품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세계 11위 식품 수출국으로 세계 식품 수출의 약 2.5%를 차지, 아시아에서 중국(5위)에 이은 2위 식품 수출국가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홈쿠킹 확대, 한류 열풍 지속(인기 드라마) 영향으로 한국 식품(K-food) 인기 증가등으로 한국의 대 태국 식품 관련 수출 성장 및 수출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네 번째, 관광업 분야를 보면, 외국 관광객은 2018년 3,755만 명, 2019년 3,980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산업에 해당된다. 태국 관광산업의 GDP 비중은 약 18%(2019년 기준, 내외국인 관광객 포함)로 2014년 이후 외국관광객 수는 매년 신기록을 갱신하는 등 태국 경제에 있어

주요 외환 수익원에 해당되 왔으나,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서비스 수지는 많은 부분 감소가 예상된다⁴³⁾.

3. 아세안 국가의 무역 환경

1) 인도네시아의 무역 환경

(1)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 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세계적 경기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⁴⁴⁾.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기업 견제, 사업 허가 정부 규제, 제조업 종사자 인건비 상승률 연평균 8%대로 제조업 진입장벽 존재하고 있으며, 자국산 제품 의무 사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고용, 생산 등 자국 발전에 기여도가 낮은 외국기업에 대한 진출을 제한하거나 각종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 및 기업을 보호하려는 추세이다.

(2) 인도네시아의 3대 인증제도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언급되는 분야는 유통허가와 관련한 인증이며, 대표적으로 식약청(BPOM) 인증, 기술표준(SNI) 인증, 할랄(Halal) 인증이 있으며, 상기 인증 중 BPOM과 SNI 인증은 법으로 지정한 해당 제품에 한해 필수 유통 인증으로 공통적으로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요구 서류가 많아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에 비관세장벽이 되고 있다.

할랄 인증은 의무 인증은 아니나, 할랄 인증 유무는 무슬림 인구가 87%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 제품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치며 2019년 10월에는 할랄 인증 표기 유무 제도가 시행된다. 인도네시아 민간 할랄 인증인 MUI 할랄 인증은 의무 인증이 아니었으나 정부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부로 정부 차원의 할랄 인증 표기 유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품들은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 담당 기관인 할랄청

43) KOTRA, 「전개서」, pp.11-14.

44)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9 외국의 통상환경」, 2019. 12. p.385.

(BPJPH)으로부터 할랄 인증 유무 여부를 제품에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한다⁴⁵⁾.

국산 부품 사용 요건(TKDN)은 인도네시아의 수입 의존도 감소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 현지 제조 파트너링을 통한 투자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향후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중점 5대 산업에도 적용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산업의 평균 국산 사용 비중을 40%대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다.

(3) 수입승인제도

수입승인제도(Persetujuan Impor)는 내수 증진을 목표로 생겨났으며, 사전수입승인대상 품목군은 2019년 말 기준 총 75개가 지정되어 있다⁴⁶⁾. 철강, 합금강 제품, 가정용 또는 사무실용 스텐제품, 육가공품, 시멘트, 임산물, 쌀, 중고기계설비, 농기구, 재활용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수입승인면허의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품목 별로 상이하다. 해당 품목은 수입 전 PI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쿼터할당제가 존재하고, 수입 실적에 대해서는 매월 15일 수입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수입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⁴⁷⁾. 그리고 선적전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 및 통관 지연을 유발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 Listed/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 허용⁴⁸⁾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선적전 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기 5개 제품군의 모든 수입은 아래의 5개 지정 항구나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⁴⁹⁾.

45)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품목별로 계도기간이 설정돼있고 신 할랄 인증 제도에 대한 엄격한 시행 자체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이후가 될 것이다. 2024년 10월 17일(식품, 음료 인증 의무화), 2026년 10월 17일(의약품, 화장품 등 의무화)

46) 2016년 12월 수입승인제도 법령(No.82/M-DAG/PER/12/2016, 2017년 3월 발효)

47)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9 외국의 통상환경」, 2019. 12. p.387.

48) 20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49)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전게서」, p.387.

2) 말레이시아의 무역 환경

(1) 수입규제

말레이시아는 수출입 의존형 경제 구조상 정부의 수입 규제가 심한 편은 아니며 수입금지 제도 및 수입허가 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허가(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 허가 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⁵⁰⁾.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관세법(Customs Act, 1967) 및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Customs Order, 2008)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수입이 불허되는 품목이 있으며, 관련부처로부터 수입면허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자국민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이 불가능(수입허가를 취득하면 수입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품목, 수입허가, 인증 취득 등 정해진 방식을 따르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⁵¹⁾.

<표 II-10> 말레이시아 수입금지·규제 품목

수입 금지 (정치, 경제, 사회, 도덕 환경, 건강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구분	모조화폐 / 공서약속, 사회 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 품 / 단검 /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등 /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 /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 물/ 납이나 납화합물 함유 혹은 구리나 구 리화합물을 3.46mg/1L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 아비산 나트륨 /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 거북이 알 / 피라냐 어족류 /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코코아 등 /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 독성 화학물 /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 피뢰기
조건부 수입 허가 (국제협약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몬트리올 의정서 해당 품목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관련 품목 ○ 화학무기금지협약 해당 품목
조건부 수입 허가 (자국산업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제품 ○ 말레이시아 전통의상(사롱, 바틱, 카인) ○ 양배추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제품(스위치, 다리미, 주전자, 토스터, 워터히터, 면 도기, 헤어드라이어)

50)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전게서」, p.223.

51) KOTRA, 「2021 국별 진출전략 - 말레이시아」, KOTRA자료 21-066, 2021. pp.25-26.

수입 허가 (소비자 안전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벨트 ○ 건축재료(시멘트, 세라믹 제품, 철 및 철강제품 등) ○ 독극물(살충제, 방사능 물질 등) ○ 특이 동식물
---------------------	---

자료: KOTRA, 「전게서」, p.25.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수입량 할당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데,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수입허가(AP: Approved permit)가 있어야 하며, AP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되고 있다. AP 제도는 전년도의 전체 자동차 시장규모와 A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전년도 판매량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일종의 수량 할당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할랄 인증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할랄 관련 정책과 법규, 할랄인증기관(JAKIM) 및 진흥기관(HDC), 할랄 표준 개발 및 각종 인프라 등 할랄 환경이 매우 양호한 편이며, 2,000만 명에 육박하는 자국 내 무슬림 소비자와 수많은 할랄 기업을 기반으로 할랄 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할랄 산업 개발 마스터플랜(2008~2020)’에 기반하여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할랄 허브’로 만들기 위해 할랄과 연계된 혁신, 무역, 투자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마스터플랜 2030을 발표할 계획하고 HDC는 자국의 할랄인증을 활용하여 현지 할랄 산업을 전 세계 할랄 비즈니스와 연계할 수 있는 Halal Integrated Platform을 2021년 1분기에 론칭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할랄인증을 전 세계적인 인증체계로 육성하기 위해 2002년에 민간 할랄인증들을 모두 폐지하고 정부 할랄인증인 JAKIM⁵²⁾ 인증으로 통합하고 전 세계적인 여타의 할랄인증과 교차 인증을 확대해 가고 있다⁵³⁾.

(3) 표준 및 인증 관련 장벽

말레이시아에서는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산하에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라는 정부

52) JAKIM은 ‘이슬람개발부’라는 정부부처 명칭이며, ‘할랄’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53) KOTRA, 「2021 국별 진출전략 - 말레이시아」, KOTRA자료 21-066, 2021. p.15.

소유 회사에서 제품 표준 및 품질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IRIM CERTIFICATION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 인증으로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 하에 설립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행 받을 수 있는 바, 인증 발급은 자발적이나 오토바이 안전 헬멧, 안전벨트, 전기제품, 가스 기구, 화재 안전 물품, 시멘트, 세라믹 타일, 통신 장비, 차세대 디젤 엔진 등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SIRIM 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⁵⁴⁾.

3) 베트남의 무역 환경

(1) 비관세 장벽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조치는 자국의 산업 보호와 외환 수지 방어를 위해 수입금지 제도, 쿼터제도, SPS, TBT, 환경보호 등 다양한 종류의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나, WTO 등 국제규범이 정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종 검역 및 검사·확인 절차 역시 현대화 되어 있지 않아 통관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관계 당국이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각종 증명 발급, 검사, 확인, 감사 등에 많은 뒷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나, 현지에서는 관계자들의 급여가 매우 낮아, 아직 이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시 하는 문화가 뿌리 깊다⁵⁵⁾.

(2) 베트남 강제인증제도(QCVN)

베트남은 품질, 안전,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강제인증 제도인 CR Mark를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국가기술 규정(QCVN: Vietnamese technical regulations)으로 정해져 있다.

54)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9 외국의 통상환경」, 2019. 12. pp.226-227.

55)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전계서」, pp.273-274.

<표 II-11> 베트남 국가기술 규정(QCVN) 주요 내용 요약

구분	품목명
대상품목	석유류, 안전장치, 장난감, 전기전자제품, 시멘트, 건축자재, 음식, 비료
유효기간	최대 3년
인증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적합성 평가기관이 수입업자·제조자·무역업자의 자기적합성 선언 점검 - 시료 채취 및 시험 후, 적합할 경우 기술 규정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 - 품질관리기관은 인증서 및 기타 관련 문서, 상호인정협정서, 라벨, 표시사항 등을 점검하고 규정에 따라 적합성 확인을 한 후, 등록 및 선언 - 모든 적합성 확인이 완료 후 시장판매 가능

자료: KOTRA, 「전계서」, p.66.

그리고 베트남 정부 부처별 국가기술 규정(QCVN) 관할 내용을 보면 다음 <표 II-13>와 같다.

<표 II-12> 베트남 정부 부처별 국가기술 규정(QCVN) 관할 내용

구분	품목명
보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설비 및 기기(일반 X-ray 진단기, 주사류, 멸균설비, 수술용 기구, 인공호흡기 등의 의료기기로 규정됨) - 의약품류: 백신, 약품 등 - 수입유통 라이선스 필요 (ISO 인증서, 자율판매증명서, 기타 인증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수입통관은 제조사의 의약품 품질기준서, 유통허가서 등 필
농업농촌 개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양식용 사료 - 해양양식 및 양식제품(끓이거나 열을 가한 제품) - 가공 수산물제품(즉시 먹을 수 있는 제품) - 식물보호제, 비료, 동물용 약품, 사료 등
산업무역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소암모니아 연료, 폭발물, 부품 등 - 폭발물의 경우 제품별 표준규격 인증과 품질기준적합 공표가 이뤄져야 하며, 수입 이전에 관할기관에 검사신청 필수
운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중기, 크레인, 특수차량, 건설기계용 차량, 자동차, 오토바이, 트레일러, 탱크운반차, 철도 교통수단 등 - 품질검사기관: The Viet Nam Registry Department - 수입 이전에 기술안전과 환경오염검사 신청 필수
건설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류, 콘크리트제품, 블록, 건축자재 등 베트남 품질규격(TCVN) 획득 및 품질시스템 (ISO 9001, 14001 등) 요구
노동보훈 사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 방진마스크, 절연장갑, 분진마스크, 안전보호대, 압력용기, 리프트 설비, 엘리베이

	터, 에스컬레이터 등
과학기술 부	- 오토바이 헬멧, 철근, 강연선, 전기케이블, 전기전자제품, 연료유, 석유제품 등 - 철근 제외한 제품은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 및 임시 통관 후 품질검사 합격 시 통관

자료: KOTRA, 「전계서」, p.67.

(3) 무역구제 조치

베트남의 무역구제조치 현황을 2020년 6월 기준으로 보면 7개국 4개 품목에 대해 18건 무역구제 조치 시행 중이며, 5건의 조사 진행 중으로 총 23건으로 나타났다. 규제 형태별로는 세이프가드 3건, 반덤핑 20건이며,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13건, 화학 3건, 플라스틱 및 고무 3건, 섬유 및 의류 4건으로 나타났다.

<표 II-13> 베트남의 조치별 대(對) 세계 수입규제 현황

산업/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계	
	전체	조사중	전체	조사중	전체	조사중	전체	조사중
철강/금속	11	1	-	-	2	-	13	1
화학	2	-	-	-	1	-	3	-
플라스틱/고무	3	-	-	-	-	-	3	-
섬유/의류	4	4	-	-	-	-	4	4
전기전자	-	-	-	-	-	-	-	-
기계	-	-	-	-	-	-	-	-
기타	-	-	-	-	-	-	-	-
총계	20	5	0	0	3	0	23	5

자료: WTO 통계 및 현지 관보 등을 종합, KOTRA 하노이무역관

<표 II-14> 베트남의 국가별 대(對) 세계 수입규제 현황

대상국가/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계	
	전체	조사중	전체	조사중	전체	조사중
한국	2	-	-	-	2	-
중국	9	2	-	-	9	2
인도	2	1	-	-	2	1
말레이시아	3	1	-	-	3	1
태국	1	-	-	-	1	-
인도네시아	2	1	-	-	2	1
대만	1	-	-	-	1	-
총계	20	5	0	0	20	5

자료: WTO 통계 및 현지 관보 등을 종합, KOTRA 하노이무역관

4) 태국의 무역 환경

(1) 비관세조치

태국의 비관세조치로는 통관, 인증 등에 따라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표 II-15> 태국 비관세 장벽 사례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의 경우 태국식약청(FDA) 인증을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3개월~3년) - 무선 통신장비의 태국 수입 시 태국방송통신위원회(NBT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태국 공무원이 한국공장으로 실사를 나가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수출하기가 어려움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세관의 까다로운 서류 심사로 인한 수입물품 통관 지연 * 원산지 증명서(AK Form)의 경우 세관원 담당자별 상이한 심사 기준 적용 및 까다로운 심사 기준 적용으로 통관 지연 발생 사례가 빈번히 발생(통관에 필요한 중요 요소가 아닌 띄어쓰기, 마침표(.)와 같은 부호 누락 등으로 반려시키는 경우가 대다수) ** 연결 원산지 증명서 수기 표시분 비인정 사례 또한 발생

자료: KOTRA, 「전계서」, p.28.

(2) 통관절차상의 장벽

태국의 관세청은 2000년 1월 1일부터 관세부과기준인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으로 WTO/GATT 신 평가기준을 전면 도입하였다. 이 평가기준에서는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가격(Actual transaction value)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국제공통 적용의 평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태국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론 특수관계자 간 거래, 운임·보험료·커미션 등 수출입관련 제 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위험 업체에 대해 세관 절차에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및 환급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세관별, 직원별 해석 및 판단의 상이 등으로 일관성이 낮아 통관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태국에서는 투자청에서 지정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수출업체들이 가공 후 수출할 목적으로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수입건별로 투자청에서 발행하는 해

당물품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한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 기증하는 물품, 외교물품 등에 대해서도 용도 등의 확인을 위해 태국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면세승인(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관세환급관련 절차를 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세환급 신청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환급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많은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⁵⁶⁾.

(3) 무역구제 조치

태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수출입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1991년 상무부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실제 제소는 1996년부터 있었다. 1999년에는 반덤핑 및 보조금법을 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료화하였으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제소 및 조사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담당하며 이의 결정은 상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사무차관으로 구성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으로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부과 종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이프가드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상무부 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조치 검토 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한편, 태국 정부는 21개국에 대하여 53건의 수입규제(반덤핑 규제 53건, 세이프가드 규제 없음) 조치를 시행중이며, 10건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 진행 중(2019년 6월 기준)에 있다. 국가별 반덤핑 조치는 중국(15건), 한국(8건), 대만(6건), 베트남(5건), 일본(2건) 등이며,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 조치는 2020년 6월 기준 총 8건으로 반덤핑 관세 규제 8건 중 3건은 조사 중이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열연강판, 강관 및 튜브 등 철강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56)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9 외국의 통상환경」, 2019. 12. pp.504-505.

Ⅲ. 아세안 국가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구조와 한·중·일 무역 현황

1. 아세안 국가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구조

1) 인도네시아

(1) 연도별 수출입 현황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전반적인 교역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석유가스, 광물 등 에너지, 원자재 수출입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7년 들어 환율이 안정되고 인도네시아 경기가 전반적인 호조상태로 유지되며,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2018년에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되어 2019년까지 적자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는 다시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표Ⅲ-1> 인도네시아 최근 수출입 및 무역수지 규모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182,552	176,292	150,393	144,490	168,810	180,215	167,683	163,306
수입	186,629	178,179	142,695	135,653	156,925	188,711	171,276	141,569
무역수지	-4,077	-1,887	7,698	8,836	11,885	-8,4961	-3,593	21,738

자료원: Global Trade Atlas(2018. 10), 인도네시아 통계청(2018. 10)

(2) 주요국별 수출입 현황

인도네시아의 주요국별 수출 동향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중국 317억 달러, 미국 187억 달러, 일본 137억 달러, 그 뒤를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상위 3대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이며 연간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 비중의 37% 내외 나타났다. 또는 한국은 7위 수출국이며 한국으로의 연간 수출 비중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2> 인도네시아 10대 주요국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중국	21,659	22,601	17,605	15,046	16,785	23,049	27,126	27,961	31,775
미국	14,910	15,741	16,560	16,268	16,171	17,810	18,471	17,873	18,666
일본	30,135	27,086	23,127	18,020	16,101	17,790	19,479	16,003	13,662
싱가포르	17,135	16,686	16,752	12,632	11,246	12,767	12,991	12,916	10,712
인도	12,496	13,031	12,248	11,731	10,093	14,083	13,725	11,823	10,413
말레이시아	11,280	10,666	9,731	7,630	7,112	8,467	9,436	8,801	8,130
한국	15,049	11,422	10,606	7,664	7,007	8,186	9,532	7,234	6,506
필리핀	3,707	3,816	3,887	3,921	5,270	6,627	6,825	6,770	5,898
태국	6,635	6,061	5,784	5,507	5,392	6,462	6,818	6,218	5,112
베트남	2,273	2,400	2,451	2,740	3,045	3,587	4,583	5,153	4,941

자료: UN Comtrade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국별 수입을 보면, 상위 3대 수입국은 중국, 싱가포르, 일본이며, 그 뒤로 미국,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 호주, 인도, 대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68억 달러 정도로 나타났다.

<표 III-3> 인도네시아 10대 주요국별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중국	26,857	29,849	30,624	29,411	30,800	35,767	45,538	44,908	39,634
싱가포르	26,087	25,581	25,185	18,022	14,548	16,888	21,439	17,305	12,340
일본	22,767	19,284	17,007	13,263	12,984	15,241	17,976	15,623	10,671
미국	11,612	9,080	16,560	7,615	7,318	8,149	10,212	9,312	8,640
말레이시아	12,243	13,322	10,855	8,531	7,201	8,796	8,602	7,737	6,932
한국	11,970	11,592	11,847	8,427	6,674	8,122	9,088	8,417	6,849
태국	11,437	10,703	9,781	8,083	8,667	9,279	10,952	9,463	6,483
호주	5,297	5,038	5,647	4,816	5,257	6,010	5,825	5,514	4,646
인도	4,306	3,964	3,952	2,741	2,872	4,048	5,017	4,295	3,764
대만	4,309	4,480	3,758	3,172	2,890	3,256	3,556	3,678	3,625

자료: UN Comtrade

(3) 품목별 수출입 현황

인도네시아 상위 10대 주요 수출 품목은 <표 III-4>와 같다.

<표Ⅲ-4> 인도네시아 상위 10대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수출액	190,040	182,548	176,288	150,277	144,489	168,804	180,209	167,490	163,300
1511	17,602	15,839	17,465	15,385	14,365	18,513	16,528	14,704	17,365
2701	24,293	22,773	18,698	14,662	12,899	17,868	20,634	18,866	14,548
7108	2,007	1,817	1,505	1,377	1,373	1,895	2,032	3,552	5,542
2711	20,520	18,129	17,180	10,341	7,037	8,861	10,649	8,849	5,452
7202		250	332	349	589	1,339	1,368	2,604	4,745
4001	7,865	6,911	4,745	3,701	3,372	5,105	3,951	3,527	3,012
7219	-	-	-	-	-	575	2,298	3,259	2,993
3823	1,881	1,721	2,367	1,835	2,328	2,991	2,980	2,580	2,917
8703	2,267	2,085	2,642	2,429	2,566	3,096	3,277	3,943	2,689
2603	2,595	3,007	1,684	3,277	3,482	3,440	4,187	1,280	2,412

자료: UN Comtrade, HS 코드 4자리 기준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주요 수출 품목은 석탄·석유·가스, 동식물성 유지, 귀석·귀금속류, 광·슬랙·회, 고무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주력 산업은 세계 4위의 인구나 저렴한 인건비로 노동집약산업이며, 현지 기업 및 투자 진출한 외국기업이 주로 전자기기(TV 등), 일반차량, 신발류, 기계류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10대 수출 품목을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팜유(1511), 석탄(2701), 금(7108), 석유가스(2711), 합금철(7202), 천연고무(4001), 스텐레스강(7219), 에시드유(3823), 승용차(8703), 구리광(260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수입 품목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연료 공급 부족으로 석유·가스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며, 전자기기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 수입 비중이 높다.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 원자재로 사용되는 유기화합물과 에너지산업 및 산업 공정과 관련된 보일러 기계류, 농업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곡물 종자, 의료산업 성장에 따른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CKD)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10대 수입 품목을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석유와 역청류(원유제외)(2710), 전화기(8517), 석유와 역청류(원유)(2709), 밀과 머슬린(1001), 석유가스(2711), 광학식판독기(8471), 오일케일(2304), 사탕수수(1701), 금(7108), 자동차 부품품(8708)순으로 나타났다.

<표Ⅲ-5> 인도네시아 상위 10대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수입액	188,722	186,442	177,995	142,572	135,519	156,895	188,673	170,713	141,605
2710	27,985	27,851	26,717	14,009	9,941	14,12	17,144	13,085	7,968
8517	4,876	5,291	4,855	4,316	4,185	4,802	5,806	5,638	5,963
2709	10,803	13,586	13,072	8,063	6,731	7,064	9,161	5,705	3,392
1001	2,254	2,440	2,387	2,083	2,408	2,648	2,571	2,799	2,616
2711	3,079	3,113	3,025	2,013	1,669	2,724	3,064	2,507	2,581
8471	2,192	2,444	2,107	1,911	1,642	2,007	2,353	2,292	2,023
2304	1,828	1,927	2,195	1,814	1,574	1,642	2,045	1,659	1,938
1701	1,662	1,731	1,329	1,256	2,090	2,072	1,800	1,366	1,936
7108				704	831	1,028	2,130	1,768	1,902
8708	2,964	3,218	2,897	2,452	2,593	3,165	3,775	3,381	1,841

자료: UN Comtrade, HS 코드 4자리 기준

2) 말레이시아

(1) 연도별 수출입 현황

말레이시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다음 <표Ⅲ-6>과 같다.

<표Ⅲ-6> 말레이시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228,316	234,134	200,210	189,414	217,722	247,323	238,088	233,930
수입	205,813	208,823	176,174	168,375	194,720	217,358	204,905	189,702
무역수지	22,502	25,311	24,036	21,038	23,002	29,965	33,182	44,228

자료: UN Comtrade

말레이시아의 교역은 2014년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그 후 세계적으로 이어진 저유가 상황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하여 2016년까지 연속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수출입액은 다시 증가하였다.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 의해 수요 감소, 유가 폭락, 조업 중지로 말레이시아의 수출입액은 감소되었다.

(2) 주요국별 수출입 현황

2020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10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 태국, 한국 대만 등이며, 한국은 말레이시아 수출의 7대 수출 대상국이다.

<표Ⅲ-7>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중국	28,742	30,775	28,222	26,062	23,753	29,332	34,413	33,690	37,774
싱가포르	30,931	31,778	33,262	27,842	27,581	31,195	34,471	33,035	33,911
미국	19,718	18,440	19,702	18,928	19,353	20,706	22,525	23,149	26,002
홍콩	9,732	9,910	11,314	9,459	9,071	11,111	18,482	16,063	16,235
일본	26,997	25,115	25,276	18,947	15,250	17,580	17,109	15,755	14,717
태국	12,182	12,660	12,307	11,403	10,628	11,762	14,062	13,479	10,792
한국	8,211	8,308	8,571	6,476	5,491	6,657	8,344	8,147	8,237
대만	12,674				6,683	8,118	8,939	3,811	
베트남	3,821	4,227	4,383	4,465	5,730	6,426	8,475	8,382	7,361
인도	9,492	8,161	9,748	8,128	7,713	8,041	8,991	9,063	7,286

자료원: UN Comtrade

2020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10대 수입대상국은 중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 한국은 말레이시아 5대 수입대상국이다. 말레이시아는 중국, 미국 등 대규모 경제권,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인접국, 베트남 등 ASEAN 역내국 등과 교류가 많으며 한국은 수출·수입 모두 매년 10대 교역대상국 내에 들고 있다.

<표 Ⅲ-8> 말레이시아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수출액	196,419	206,820	208,730	176,025	168,503	195,163	217,420	204,989	189,778
중국	29,723	33,878	35,330	33,168	34,320	38,323	43,331	42,370	40,824
싱가포르	25,979	25,610	26,224	21,060	17,475	21,628	25,489	21,610	17,573
미국	15,886	16,252	16,015	14,199	13,439	16,113	16,085	16,578	16,539
일본	20,186	17,971	16,749	13,776	13,758	14,807	15,744	15,348	14,555
대만	8,161	10,030	10,516	9,377	10,098	12,762	15,732	13,767	13,738
한국	7,965	9,802	9,705	7,972	8,877	8,481	9,642	9,345	10,692
인도네시아	10,066	8,915	8,482	7,972	7,091	8,797	9,972	9,364	8,732

태국	11,748	12,331	12,123	10,705	10,219	11,214	12,042	10,664	8,156
인도	3,823	5,233	4,075	3,903	4,007	6,265	6,550	5,857	5,937
독일	7,511	7,308	7,090	6,012	5,744	6,120	6,539	6,456	5,526

자료: UN Comtrade

(3) 품목별 수출입 현황

2019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3대 수출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석유제품, 석유가스이며, 이들 3대 품목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말레이시아의 3대 수입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석유제품, 원유이다. 그리고 주요 교역 품목은 전기·전자 제품 내지는 석유화학제품, 천연자원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수출은 유가 하락으로 인해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부진하나, 전기전자, 철강 제품, 팜오일 등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표 III-9> 말레이시아 10대 교역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HS)	2017	2018	2019	품목명 (HS)	2017	2018	2019
1	8542	33,054	45,789	44,793	8542	31,076	34,829	31,925
2	2710	13,216	16,297	14,926	2710	16,676	20,231	17,505
3	2711	10,309	10,816	14,926	2709	3,963	5,717	6,513
4	8541	8,504	8,783	10,722	8517	4,057	4,355	4,043
5	1511	9,713	8,694	8,724	8541	3,723	3,767	3,035
6	2709	7,023	9,469	8,324	2701	2,495	3,192	2,918
7	8471	8,469	9,370	6,609	8471	2,854	3,210	2,768
8	8523	3,784	4,489	4,250	8708	2,332	2,513	2,648
9	4203	3,820	4,403	4,192	7108	3,125	2,989	2,408
10	8517	3,995	3,673	4,055	3901	1,774	2,426	2,380

자료: 무역협회 수출입통계

말레이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 국내 중산층 소비시장이 탄탄하며, 개방적인 경제 구조로 글로벌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편이며, 2020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집적회로, 석유제품, 팜오일, 간연성 고무의 의류 및 의류 부속품, 다이오드반도체 장치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이들 중에 전자집적회로, 석유제품, 팜오일 3대 품목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30.6%를 차지하였다.

<표 III-10> 말레이시아 상위 10대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수출액	227,226	229,323	234,204	200,035	189,574	205,188	247,299	238,046	234,002
8542	26,095	27,878	31,025	27,256	26,600	30,378	45,759	44,793	49,385
2710	15,419	19,477	18,495	10,642	11,117	11,840	16,241	14,926	12,787
1511	15,403	12,353	12,002	9,480	9,083	9,444	8,688	8,324	9,811
4015	3,435	3,412	3,312	3,381	3,213	3,613	4,403	4,192	8,447
8541	6,698	7,473	7,870	8,028	8,286	8,084	8,776	8,724	7,618
2711	19,577	20,448	20,860	12,818	8,257	9,932	10,831	10,722	7,403
8523		1,327	1,859	2,011	2,261	3,784	4,489	4,250	5,832
8517	3,083	3,544	4,188	3,721	3,866	3,820	3,671	4,055	5,327
8471	9,748	8,943	8,260	7,645	7,259	7,924	9,377	6,609	4,982
2709	10,440	10,243	10,541	6,861	5,644	6,177	9,434	6,993	4,717

자료: UN Comtrade, HS 코드 4자리 기준

말레이시아의 10대 수입품목은 전자집적회로, 석유제품, 원유, 유선전신기기, 다이오드반도체 장치 등이며, 2020년 기준 이들 3대 품목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27.0%를 차지하였다.

<표 III-11> 말레이시아 상위 10대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수출액	196,419	206,820	208,730	176,025	168,503	195,163	217,420	204,989	189,778
8542	25,898	26,630	29,309	24,766	24,890	31,068	34,805	31,925	33,412
2710	15,596	22,168	22,831	14,698	11,871	16,706	20,209	17,505	13,405
2709	8,963	7,200	7,653	3,354	2,814	3,953	5,712	6,513	4,608
8517	3,334	3,906	3,825	3,791	3,486	4,055	4,351	4,043	3,918
8541	3,069	3,899	4,176	3,839	3,568	3,723	3,764	3,035	3,278
7601	900	582	764	976	841	1,020	1,543	1,788	3,006
8534	1,961	1,930	1,750	1,586	1,780	1,944	2,216	2,158	2,562
8471	3,336	2,978	2,628	2,568	2,568	2,854	3,208	2,768	2,538
8905								99	2,320
2701	2,156	1,862	1,569	1,308	1,428	2,495	3,192	2,918	2,297

자료: UN Comtrade, HS 코드 4자리 기준

3) 베트남

(1) 연도별 수출입 현황

2012년~2017년 5년 동안 베트남의 대외 교역액은 연평균 약 15% 정도의 속도로 증가했으며, 2020년 베트남의 수출액은 2,814억 달러, 수입액은 2,613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2015년 이후 연속 5년간 무역수지가 흑자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역대 최대 연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표 III-12> 베트남 최근 수출입 및 무역수지 규모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132,033	150,217	162,016	176,580	215,118	243,698	264,610	281,441
수입	132,032	147,839	165,775	174,978	213,215	236,868	253,442	261,309
무역수지	1	2.4	-3.8	1.6	1.9	6.8	11.2	20.1

자료: UN Comtrade

(2) 주요국별 수출입 현황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은 2020년 기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순으로 나타났고 주요국별 수출금액은 각각 미국 771억 달러, 중국 489억 달러, 일본 193억 달러, 한국 91억 달러(비중 7.47%)이다.

미국, 중국은 2020년 상반기 전년 대비 감소세로 나타났다가 그 이후 전년 대비 플러스 전환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전년 대비 수출액이 -1.6%로 소폭 감소하였다.

<표 III-13>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국	23,869	28,649	33,475	38,473	41,549	47,580	61,403	77,072
중국	13,177	14,928	16,567	21,950	35,394	41,366	41,434	48,879
일본	13,544	14,674	14,100	14,671	16,792	18,833	20,426	19,269
한국	6,682	7,167	8,915	11,406	14,807	18,240	19,729	19,125
홍콩	4,113	5,264	6,959	6,088	7,574	7,957	7,161	10,435
독일	4,736	5,174	5,707	5,960	6,353	6,873	6,560	6,638
네덜란드	2,936	3,762	4,759	6,011	7,098	7,085	6,882	6,995
멕시코	891	1,035	1,545	1,888	2,338	2,239	2,829	3,157
프랑스	2,202	2,477	2,977	3,024	3,372	3,701	3,705	3,262
캐나다	1,557	2,077	2,407	2,652	2,709	3,013	3,967	4,358

자료: UN Comtrade

2020년 기준 베트남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한국, 일본 등순으로 기록하였다. 3대 수입국은 모두 전년 대비 10% 이상 수입량 회복하였으며, 그 외 10위권 국가 중 태국,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표 III-14>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수출액	132,032	147,839	165,776	174,978	213,215	236,870	229,950	280,314
중국	36,886	43,648	49,441	50,038	58,533	65,516	89,670	113,814
한국	20,678	21,728	27,579	32,193	46,943	47,582	41,068	48,543
일본	11,558	12,857	14,182	15,098	16,917	19,041	15,154	17,110
싱가포르	5,685	6,835	6,031	4,769	5,319	4,527	11,053	12,437
태국	6,283	7,053	8,270	8,855	10,702	12,043	11,532	11,059
홍콩	1,049	1,037	1,320	1,500	1,665	1,540	9,556	10,968
대만	9,402	11,064	10,943	11,242	12,710	13,231	10,266	10,558
미국	5,242	6,286	7,792	8,712	9,343	12,756	9,458	9,989
말레이시아	4,096	4,204	4,185	5,174	5,945	7,450	6,954	7,354
인도네시아	2,367	2,489	2,739	2,992	3,656	4,937	0	4,941

자료: UN Comtrade

(3) 품목별 수출입 현황

2020년 베트남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휴대폰 및 부품이 1위를 차지했다. 전자제품과 관련된 품목은 코로나19 불만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의류와 신발 등의 소비재는 수요 감소 추세로 보인다.

<표 III-15> 베트남 상위 10대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수출액	132,033	150,217	162,017	176,581	215,118	243,700	239,891	348,020
8517	21,853	24,393	31,314	36,101	47,704	53,858	25,312	69,617
8542	2,176	2,219	4,078	5,187	6,772	7,891	5,626	37,092
8529	130	301	369	404	663	2,565	8,325	11,714
6404	2,865	3,667	4,853	6,138	7,516	8,252	11,054	11,119
9403	2,962	3,431	3,747	3,901	4,279	4,607	7,367	8,978
6403	3,639	4,291	4,661	4,295	4,554	5,089	7,413	7,323
9999	528	551			287	3,885	9,035	6,442
8471	3,413	3,812	4,758	3,713	3,551	3,500	3,917	6,268
8544	2,516	2,719	2,841	3,050	3,672	4,236	3,217	5,760
8518	1,025	1,089	1,326	2,099	2,855	2,807	3,709	5,368

자료: UN Comtrade, HS 코드 4자리 기준

수입 품목 중 주요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품, 휴대폰 및 부품 등 증가세로 보이고,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품 수입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표Ⅲ-16> 베트남 상위 10대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수출액	132,032	147,839	165,776	174,978	213,215	236,870	229,950	280,310
8542	10,153	10,295	12,942	16,263	21,050	24,160	16,578	37,053
8517	8,559	9,376	11,721	11,990	18,273	17,334	10,423	21,114
8541	746	833	1,257	1,731	2,040	2,963	4,550	6,379
8529	705	1,263	1,794	2,299	3,182	2,758	3,856	4,422
2710	7,393	8,029	5,972	5,646	7,640	8,060	5,767	4,004
8534	1,454	1,455	1,889	2,312	3,357	3,314	2,988	3,340
8536	1,266	1,344	1,426	2,029	2,630	2,592	2,733	3,313
6006	1,675	1,924	2,181	2,354	2,645	3,206	3,759	3,269
7208	2,608	2,163	1,553	1,773	2,814	3,091	3,053	3,175
9999	657	742			290	3,259	2,593	3,030

자료: UN Comtrade, HS 코드 4자리 기준

4) 태국

(1) 연도별 수출입 현황

2020년 태국 교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교역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 모두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15년부터 무역수지는 연속 흑자로 기록하였다.

<표 Ⅲ-17> 태국 최근 수출입 및 무역수지 규모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228,527	227,572	214,309	215,387	236,634	252,485	233,674	231,387
수입	250,708	227,931	202,642	194,190	221,514	249,173	216,804	207,695
무역수지	-22,210	-358	11,667	21,197	15,119	3,311	16,869	23,692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2) 주요국별 수출입 현황

2020년 기준 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등 순으로 기록하였다. 태국 대 미국 수출은 2018년부터 1위로 나타나며, 2019년 태국 대 중국 수출은 악화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부터 대 미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호조를 띄면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태국 대 한국 수출은 2020년 기준 15위로 기록하였다. 태국의 20대 수출국가 중 아세안 국가는 8개국이다.

<표 III-18> 태국 주요국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국	22,816	23,017	23,967	24,092	24,561	26,634	28,122	29,719	34,401
중국	26,899	27,238	25,084	23,732	23,799	29,505	30,175	28,068	29,756
일본	23,495	22,235	21,820	20,054	20,481	22,066	24,941	23,135	22,877
홍콩	13,100	13,188	12,609	11,830	11,471	12,298	12,522	10,962	11,291
베트남	6,687	7,182	7,888	8,906	9,427	11,585	12,958	11,607	11,167
호주	9,762	10,348	9,298	9,768	10,309	10,504	10,777 5	9,495	9,798
싱가포르	10,835	11,236	10,454	8,756	8,226	8,288	9,416	8,231	9,532
말레이시아	12,427	13,014	12,764	10,189	9,627	10,343	11,626	10,015	8,739
인도네시아	11,209	10,872	9,510	7,827	8,176	8,843	10,068	8,524	7,632
스위스	5,246	1,612	1,991	2,556	4,998	4,236	2,577	5,143	7,611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2020년 기준 태국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중국이 2014년부터 일본에 앞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및 2018년 6위, 2019년 5위, 2020년 다시 6위 수입대상국으로 기록하였다.

<표 III-19> 태국 주요국별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수출액	243,817	243,817	226,235	199,436	192,806	221,795	247,528	239,902	208,762
중국	37,692	37,692	38,596	40,919	42,252	44,707	50,202	50,967	50,211
일본	41,088	41,088	35,817	31,134	30,857	32,376	35,424	33,633	27,851
미국	13,553	13,553	14,719	13,922	12,210	15,126	15,297	17,694	15,155
말레이시아	13,160	13,160	12,779	11,875	10,953	11,879	13,471	13,078	10,339
대만	7,592	7,592	7,558	7,503	7,170	8,216	8,656	8,126	8,253
한국	9,061	9,061	8,574	7,014	7,315	8,142	8,909	8,738	7,697
싱가포르	8,203	8,203	7,907	7,188	6,548	8,013	7,734	7,753	7,599

인도네시아	8,001	8,001	7,299	6,537	6,412	7,442	8,145	7,339	5,876
아랍에미리트 연합	15,505	15,505	12,711	8,135	6,197	7,857	10,932	7,536	5,562
베트남	2,980	2,980	3,947	4,034	4,450	5,025	5,748	5,528	5,525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3) 품목별 수출입 현황

2020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은 금, 컴퓨터(HDD) 및 부품, 자동차, 전자집적회로(IC), 자동차부품, 고무제 타이어 등이다. 이에서는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금, 반도체, 통신기기, 합성고무이며, 주요 수출감소 품목은 화물차, 정제유, 자동차, 자동차부품, 천연고무·발라타, 쌀 등이었다.

<표Ⅲ-20> 태국 상위 10대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수출액	228,829	226,763	225,776	210,864	213,590	235,978	249,757	245,272	229,198
7108	6,667	3,380	2,756	3,738	7,263	5,713	4,377	7,607	13,202
8471	13,690	12,037	12,006	11,413	10,465	11,773	12,735	11,871	11,691
8703	5,678	6,671	6,466	9,394	11,630	10,870	11,092	10,256	8,221
8542	6,683	7,116	7,438	7,611	7,667	8,252	8,265	7,589	7,101
8708	5,840	6,303	6,736	6,729	6,924	7,719	8,515	8,034	6,632
4011	3,287	3,410	3,482	3,403	3,558	4,391	4,901	5,585	5,252
8415	4,070	4,485	4,572	4,526	4,843	4,815	5,327	5,498	5,197
8704	10,463	10,665	10,265	8,160	6,465	7,304	7,842	7,514	4,955
8517	2,219	2,191	2,310	2,237	2,464	4,218	4,450	4,089	4,828
2710	11,386	11,383	9,712	6,810	4,801	6,081	8,182	6,537	4,639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태국은 주력산업인 자동차·전기전자 부문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하고, 이를 완성품으로 생산·수출하는 가공무역 구조로 원유 등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도가 높다. 태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및 역청유, 전자집적회로(IC), 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정제유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태국은 원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며,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완성품 생산을 위한 부품 소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금은 보석가공 산업의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2020년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전기에너지(26.6%), 음향저장장치(19.3%), 사무용

기기용품(7.6%), 전자집적회로(7.5%) 등이고, 주요 감소 품목은정제유(△42.5%), 금(△27.9%), 천연가스(△27.0%), 자동차부품(△25.6%), 원유 및 역청유(△17.5%), 정제동(△16.9%) 등이다.

<표 III-21> 태국 상위 10대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수출액	249,063	243,817	226,235	199,436	192,806	221,795	247,528	239,902	208,762
2709	36,275	35,495	33,229	19,452	15,242	20,060	28,398	22,213	17,673
8542	9,146	9,022	9,443	8,996	9,167	10,929	11,452	11,403	12,267
8517	4,089	4,667	5,292	5,878	6,078	7,092	7,355	6,940	6,715
7108	10,848	14,036	6,620	7,204	5,763	11,154	11,410	7,037	5,080
8708	8,456	7,860	5,324	5,294	5,887	6,277	6,911	6,783	5,050
2711	5,797	6,847	6,601	5,370	3,236	3,863	5,082	5,616	4,098
2710	3,485	3,662	5,594	2,983	3,576	4,394	5,418	6,213	3,429
8471	4,349	3,855	3,450	3,249	3,003	3,356	3,848	4,087	3,228
8523	1,894	1,898	1,962	1,927	1,962	2,316	2,750	2,653	3,167
7326	2,494	2,465	2,326	3,161	3,123	3,470	3,129	3,124	2,611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2. 한·중·일의 무역현황

1) 한국의 수출입 현황

(1) 연도별 수출입 현황

한국의 수출입 현황을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의 기간을 보면, 2012년 수출은 5,479억 달러, 수입은 5,196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283억 달러로 나타났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소폭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2015년에는 수입금액이 전년 대비 약 17% 줄어 들어 무역 수지가 90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6년에는 수출입 금액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은 6,049억 달러, 수입은 5,35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최근 2020년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5,125억 달러, 수입은 4,676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449억 달러로 나타났다.

<표 III-22>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년도	수출		수입		수지(천불)
	금액(천불)	증감률(%)	금액(천불)	증감률(%)	
2020년	512,498,038	-5.5	467,632,763	-7.1	44,865,275
2019년	542,232,610	-10.4	503,342,947	-6.0	38,889,663
2018년	604,859,657	5.4	535,202,428	11.9	69,657,229
2017년	573,694,421	15.8	478,478,296	17.8	95,216,125
2016년	495,425,940	-5.9	406,192,887	-6.9	89,233,053
2015년	526,756,503	-8.0	436,498,973	-16.9	90,257,530
2014년	572,664,607	2.3	525,514,506	1.9	47,150,101
2013년	559,632,434	2.1	515,585,515	-0.8	44,046,919
2012년	547,869,792	-1.3	519,584,473	-0.9	28,285,319

<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

(2) 품목별 수출입 현황

한국의 2020년의 품목별 10대 상품 수출입 현황을 HS 4단위로 보면, 전자집적회로(8542)가 828억 달러로 제1의 수출 품목이고 그 뒤를 이어 승용자동차(8703)은 356억 달러, 석유와역청유(2710)는 232억 달러, 전화기(8517)는 179억 달러, 선박(8901), 부분품과부속품(8708), 부분품과부속품(8473), 디스크 등 기억장치(8523), 반도체보울(8486), 부분품(8529)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한국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2020년)

순번	HS	품목명	2020년				
			수출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
		총계	512,498,038	-5.5	467,632,763	-7.1	44,865,275
1	8542	전자집적회로	82,884,355	4.8	40,277,147	12.8	42,607,208
2	8703	승용자동차	35,633,959	-11.9	12,061,190	8.5	23,572,769
3	2710	석유와역청유	23,212,082	-40.9	12,743,220	-25.9	10,468,862
4	8517	전화기	17,936,488	0.5	12,140,335	-5.5	5,796,153
5	8901	선박	16,522,708	-3.4	2,501,170	127.0	14,021,538
6	8708	부분품과부속품	15,764,054	-16.9	4,048,337	4.7	11,715,717
7	8473	부분품과부속품	13,279,938	16.6	5,196,733	-15.3	8,083,205
8	8523	디스크 등 기억장치	10,698,753	104.8	2,308,882	47.6	8,389,871
9	8486	반도체보울(boule)	8,412,257	7.2	15,482,530	71.3	-7,070,273
10	8529	부분품	7,921,554	-22.2	3,722,255	-25.2	4,199,299

<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

(3) 대 아세안 품목별 수출입 현황

한국의 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품목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설정한 품목은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10대 품목에 해당하며, HS코드 2단위로 설정하였다. 10대 품목은 광물성연료(27), 유기화합물(29), 플라스틱 제품(39), 편직물(60), 철강(72), 철강제품(73), 기계류(84), 전자기기(85), 자동차 및 부품(87), 정밀기기(90)이다.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대 태국, 대 필리핀, 대 말레이시아, 대 베트남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단위의 품목별 수출입현황은 아래<표 III-28>와 같다.

<표 III-24>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7	347	2,302	1,354	4,848	724	3,465	3,896	7,647	5,545	11,229	3,219	8,905
29	180	102	315	145	202	116	194	137	235	94	161	83
39	630	66	722	62	553	60	730	74	733	62	546	43
60	315	4	482	2	559	3	640	3	667	4	597	2
72	604	581	785	654	641	294	1,096	217	1,288	140	642	175
73	213	9	141	5	90	19	170	17	340	19	90	6
74	50	81	55	70	53	45	97	124	56	92	84	26
84	827	153	904	176	552	135	848	115	1,291	99	576	86
85	783	438	948	303	668	362	710	425	897	453	889	403
87	103	35	180	16	191	14	175	5	278	5	114	3
90	109	18	135	95	97	26	196	22	167	18	167	18

자료: UNcomtrade

<표 III-25> 한국의 대 태국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7	225	117	427	235	169	108	254	203	176	471	99	298
29	233	123	316	163	192	117	369	261	416	160	360	54
39	536	239	671	302	532	252	559	265	545	215	429	120
60	9	1	18	0.2	22	0.5	33	0.3	42	1	24	0.4
72	1,362	90	1,558	138	1,171	51	1,457	73	1,653	66	1,087	42
73	178	25	166	30	176	28	312	32	201	21	195	18
74	165	97	237	59	141	32	177	124	147	210	152	50
84	721	768	795	864	884	644	1,164	589	1,150	521	938	470

85	1,133	1,162	1,169	940	1,043	1,198	994	1,225	990	1,061	965	1,294
87	126	104	223	101	175	90	199	61	514	42	242	33
90	128	125	184	112	148	93	264	114	136	138	286	50

자료: UNcomtrade

<표 III-26>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7	1,127	2,520	1,678	3,273	766	2,333	987	5,257	1,583	4,274	166	4,292
29	149	158	205	239	140	177	194	276	187	321	148	259
39	402	208	510	237	399	225	463	267	384	207	341	142
60	13	0.009	12	0.07	16	0.01	30	0.09	25	0.2	23	0.2
72	601	170	639	324	418	100	618	146	770	156	610	150
73	85	27	128	30	227	56	168	71	187	33	98	35
74	291	173	249	128	189	67	379	122	189	97	204	49
84	672	653	803	790	691	584	782	711	691	610	495	580
85	1,948	2,705	1,483	2,836	1,480	2,027	1,387	1,824	1,480	1,798	1,422	2,138
87	120	16	156	14	387	9	363	7	387	9	304	7
90	130	500	412	364	408	225	747	201	408	350	955	183

자료: UNcomtrade

<표 III-27> 한국의 대 베트남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7	1,224	43	2,017	223	1,117	106	614	305	1,202	987	847	767
29	286	4	329	3	182	0.3	262	0.4	234	3	170	11
39	2,967	272	3,086	238	2,085	130	1,711	67	1,184	45	816	25
60	851	14	1,107	13	1,077	10	978	8	818	6	657	4
72	1,272	175	1,409	258	984	147	1,087	126	1,219	60	1,178	100
73	485	146	359	158	466	92	552	88	269	53	267	30
74	522	74	532	46	421	21	290	15	103	10	81	1
84	3,103	2,015	3,359	909	2,965	693	2,091	230	1,231	118	919	55
85	27,704	8,781	24,584	7,682	15,396	4,660	8,500	1,409	5,443	584	1,308	302
87	1,306	180	1,322	92	1,338	72	996	44	586	31	867	14
90	2,814	404	4,183	986	1,446	307	582	185	244	99	129	17

자료: UNcomtrade

2) 중국의 수출입 현황

(1) 연도별 수출입 현황

중국의 수출입 현황을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의 기간을 보면, 2012년 수출은 20,501억 달러, 수입은 18,173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2,328억 달러로 나타났다. 2014년까지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2015년과 2016년 연속 2년간에는 수출입금액이 줄어들었다. 2017년부터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최근 2020년의 수출은 25,922억 달러, 수입은 20,69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무역수지는 5,228억 달러로 나타났다.

<표 III-28> 중국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천불)	증감률(%)	금액(천불)	증감률(%)	
2020년	2,592,231,761	3.8	2,069,397,852	0.4	522,833,910
2019년	2,497,951,835	0.4	2,060,785,481	-2.7	437,166,354
2018년	2,488,544,077	9.2	2,117,142,583	18.3	371,401,494
2017년	2,279,162,136	6.8	1,789,999,733	17.5	489,162,402
2016년	2,134,872,317	-6.4	1,522,886,366	-4.9	611,985,951
2015년	2,280,437,122	-2.7	1,601,598,427	-18.4	678,838,694
2014년	2,343,222,126	6.0	1,963,105,197	1.1	380,116,929
2013년	2,210,771,856	7.8	1,941,465,999	6.8	269,305,857
2012년	2,050,109,239	7.9	1,817,344,026	4.3	232,765,213

<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

(2) 품목별 수출입 현황

중국의 2020년의 품목별 10대 상품 수출입 현황을 HS 4단위로 보면, 휴대 전화 네트워크(8517)가 2,232억 달러로 제1의 수출 품목이고 그 뒤를 이어 동 데이터 처리 기계 및 장치(8471)은 1,702억 달러, 전자집적회로(8542)는 1,117억 달러, 드레스 무늬를 포함한 다른 물건(6307)는 573억 달러, 서치라이트 및 스포트라이트(9405), 다이오드, 트랜지스터(8541), 세발자전거, 스쿠터, 페달 자동차(9503), 부분품과부속품(8708), 모니터 및 프로젝터(8528), 부품 및 부속품(8473)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중국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2020년)

순번	HS	품목명	2020년				
			수출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
		총계	2,592,231,761	3.8	2,069,397,852	0.4	522,833,909
1	8517	휴대 전화 네트워크	223,208,381	-0.4	43,550,609	2.3	179,657,772
2	8471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 및 장치	170,182,287	14.6	33,919,982	11.0	136,262,305
3	8542	전자집적회로	117,087,017	14.6	353,024,022	15.4	-235,937,005
4	6307	드레스 무늬를 포함한 다른 물건	57,282,907	741.3	1,476,716	461.3	55,806,191
5	9405	서치라이트 및 스포트라이트	37,604,250	13.3	423,884	-24.0	37,180,366
6	854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35,655,928	3.1	26,780,073	2.5	8,875,855
7	9503	세발자전거, 스쿠터, 페달 자동차	33,483,025	6.8	772,860	2.3	32,710,165
8	8708	부분품과부속품	32,931,440	-2.1	25,776,652	2.2	7,154,788
9	8528	모니터 및 프로젝터	31,899,668	2.2	871,932	10.7	31,027,736
10	8473	부품 및 부속품	31,537,005	-2.8	19,840,167	2.2	11,696,838

<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

(3) 대 아세안 수출입 현황

중국의 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품목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설정한 품목은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11대 품목에 해당하며, HS코드 2단위로 설정하였다. 11대 품목은 광물성연료(27), 유기화합물(29), 플라스틱 제품(39), 편직물(60), 철강(72), 철강제품(73), 동과 그 제품(HS74), 기계류(84), 전자기기(85), 자동차 및 부품(87), 정밀기기(90)이다.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대 태국, 대 필리핀, 대 말레이시아, 대 베트남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단위의 품목별 수출입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III-30> 중국 대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7	561	9,501	713	11,338	481	7,827	2,187	8,371	2,211	12,046	1,967	7,295
29	1,260	536	1,404	846	997	378	1,086	837	972	700	662	985
39	1,861	614	1,636	336	1,152	273	1,409	363	974	332	466	222
60	668	6	733	7	633	7	617	5	518	8	364	15
72	1,442	7,414	2,191	2,929	2,017	938	1,768	27	1,144	9	593	10
73	1,891	13	1,707	15	1,077	10	1,571	17	1,347	16	698	19
74	269	970	361	574	174	236	223	347	109	308	62	296
84	7,552	384	7,971	380	5,827	293	6,552	377	6,460	763	4,233	627
85	8,303	1,396	8,172	1,477	5,546	1,200	6,153	1,180	5,016	1,299	3,344	1,337
87	1,078	197	1,107	253	885	187	1,066	193	1,048	156	565	62
90	1,276	114	1,024	130	719	97	959	96	1,082	58	719	46

자료: UNcomtrade

<표 III-31> 중국 태국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7	326	679	232	1,256	225	939	178	1,388	130	1,864	194	1,295
29	1,163	1,231	1,254	2,384	898	1,204	958	2,420	874	2,624	732	1,572
39	2,766	3,605	2,031	3,767	1,479	3,000	1,303	3,854	1,018	3,268	539	2,664
60	222	10	226	22	191	30	171	26	166	25	154	28
72	2,229	46	2,496	18	2,390	18	2,074	27	2,024	22	991	47
73	2,042	101	1,251	104	1,167	119	1,192	139	982	106	483	97
74	555	821	625	332	287	212	371	154	284	183	164	34
84	8,451	11,747	7,223	8,754	6,174	7,101	6,264	7,066	6,773	10,580	4,193	9,782
85	11,029	9,193	9,590	9,250	8,585	8,607	6,378	7,327	5,971	6,146	3,627	7,591
87	1,392	2,051	1,489	1,118	1,290	740	1,030	193	1,082	138	429	59
90	1,132	2,160	1,143	2,031	930	2,498	1,142	1,130	1,838	751	1,099	511

자료: UNcomtrade

<표 III-32> 중국 대 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7	1,580	13,659	1,401	12,440	1,035	4,055	677	5,966	544	5,090	300	4,590
29	615	985	708	1,585	491	986	661	1,107	491	1,412	433	872
39	2,743	2,203	1,907	2,001	1,529	1,116	1,683	1,600	1,224	1,574	508	1,299
60	141	4	107	2	136	4	147	4	110	7	70	7
72	772	1,327	1,421	138	1,258	45	1,484	74	978	98	608	125
73	1,893	80	1,595	66	1,255	62	1,353	108	1,169	117	676	65
74	254	2,014	483	753	396	430	400	850	459	701	132	1,088
84	6,285	4,475	6,057	4,070	4,678	3,033	4,960	3,822	4,479	4,469	3,865	4,270
85	16,410	38,815	12,534	33,871	8,012	31,904	9,310	32,168	7,354	33,306	5,887	28,627
87	1,513	159	908	205	918	202	1,189	220	1,059	117	596	109
90	1,637	2,351	1,591	1,539	1,388	1,310	2,385	1,181	2,269	1,119	1,681	781

자료: UNcomtrade

<표 III-33> 중국 대 베트남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7	992	681	1,924	735	1,015	1,562	2,543	1,680	1,842	1,998	1,850	1,779
29	1,330	308	1,341	332	924	9	920	15	628	18	445	33
39	5,135	696	3,053	697	1,969	244	1,439	322	892	248	526	56
60	3,730	224	3,623	251	2,496	140	1,809	29	1,137	23	741	14
72	2,846	1,437	4,800	21	4,531	10	3,791	13	1,720	37	1,632	83
73	2,768	51	1,760	48	1,239	54	1,407	49	870	31	589	19
74	626	292	444	134	174	61	251	16	59	15	53	31
84	12,003	2,379	8,393	1,483	6,882	1,246	7,776	1,115	4,093	899	3,402	640
85	40,494	48,718	23,248	34,111	12,017	12,974	12,062	8,258	6,024	6,552	3,600	1,166
87	1,720	356	1,225	272	1,662	168	1,879	115	642	26	629	20
90	3,551	1,442	2,292	1,909	1,887	649	1,746	283	764	89	325	53

자료: UNcomtrade

3) 일본의 수출입 현황

(1) 연도별 수출입 현황

일본의 수출입 현황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출입규모가 모든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2015년에는 수출액은 7,5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지만 수입액은 크게 감소하였다.

<표 III-34> 일본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천불)	증감률(%)	금액(천불)	증감률(%)	
2020년	68,406,642,330	-11.1	67,736,937,131	-13.8	669,705,199
2019년	76,931,664,915	-5.6	78,599,509,951	-5.0	-1,667,845,036
2018년	81,478,752,674	4.1	82,703,304,395	9.7	-1,224,551,721
2017년	78,286,457,048	11.8	75,379,231,107	14.1	2,907,225,941
2016년	70,035,770,383	-7.4	66,041,973,885	-15.8	3,993,796,498
2015년	75,632,239,039	3.5	78,467,563,267	-8.6	-2,835,324,228
2014년	73,101,850,266	4.8	85,889,269,046	5.7	-12,787,418,780
2013년	69,774,192,950	9.5	81,242,545,171	14.9	-11,468,352,221
2012년	63,747,572,215	-2.7	70,688,631,840	3.8	-6,941,059,625

<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

그 후 2016년 수입액은 7,004억 달러, 2017년 7,829억 달러, 2018년 8.1479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였다가 코로나19 및 세계불황 등 요인으로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2020년의 수출은 6,841억 달러, 수입은 6,774억 달러로 기록하였다.

(2) 품목별 수출입 현황

일본의 2020년의 품목별 10대 상품 수출입 현황을 HS 4단위로 보면, 제1의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기타 자동차(8703)가 86억 달러로 제1의 수출 품목이고, 그 다음 기타(0000) 및 전자 전자집적회로(8542),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8708), 반도체(8486), 유람선(890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8541)는 1,1171억 달러, 드레스 무늬를 포함한 다른 물건(6307)는 573억 달러, 서치라이트 및 스포트라이트(9405), 다이오드, 트랜지스터(8541), 기계 기기(8479), 금,반제품 형태 또는 분말 형태(7108), 부품 및 부속품(84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5> 일본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2020년)

순번	HS	품목명	2020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총계	68,406,642,330	-11.1	67,736,937,131	-13.8	669,705,199
1	8703	자동차 및 기타 자동차	8,635,715,093	-19.2	1,084,202,748	-18.0	7,551,512,345
2	0000	기타	4,382,882,316	-10.7	1,161,673,966	-10.3	3,221,208,350
3	8542	전자 집적 회로	3,080,471,883	1.7	2,001,728,283	-0.8	1,078,743,600
4	8708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2,886,104,433	-19.0	670,010,551	-24.4	2,216,093,882
5	8486	반도체	2,516,656,979	2.0	512,545,246	26.7	2,004,111,733
6	8901	유람선	1,140,302,195	-23.5	16,958,280	-16.0	1,123,343,915
7	854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954,491,044	1.8	478,373,082	-11.4	476,117,962
8	8479	기계 기기	892,996,976	-6.5	222,795,982	-8.7	670,200,994
9	7108	금,반제품 형태 또는 분말 형태	887,933,733	27.1	28,726,795	112.5	859,206,938
10	8443	부품 및 부속품	857,788,924	-16.6	395,171,531	-11.4	462,617,393

<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

(3) 대 아세안 수출입 현황

일본의 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품목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설정한 품목은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10대 품목에 해당하며, HS코드 2단위로 설정하였다. 10대 품목은 광물성연료(27), 유기화합물(29), 플라스틱 제품(39), 편직물(60), 철강(72), 철강제품(73), 기계류(84), 전자기기(85), 자동차 및 부품(87), 정밀기기(90)이다.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대 태국, 대 필리핀, 대 말레이시아, 대 베트남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단위의 품목별 수출입현황은 아래<표 III-42>와 같다.

<표 III-36> 일본 대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7	34	3,089	59	6,492	35	5,776	80	12,499	87	17,323	89	13,174
29	234	223	318	270	256	202	375	186	342	194	368	131
39	439	451	620	517	581	432	607	473	661	475	528	438
60	31	4	51	4	34	3	29	3	28	3	14	3
72	984	9	1,667	19	1,264	10	1,585	43	1,945	21	1,453	20
73	385	89	544	102	454	95	514	133	769	134	611	127
74	190	28	332	69	215	46	386	95	443	50	380	41
84	2,236	732	4,379	704	2,923	621	4,219	739	5,928	890	4,980	679
85	968	1,477	1,469	1,647	1,247	1,296	1,513	1,475	1,974	1,510	1,932	1,541
87	1,153	474	3,096	562	1,674	499	2,388	504	4,443	509	2,980	377
90	294	103	443	121	388	104	520	112	551	137	298	94

자료: UNcomtrade

<표 III-37> 일본 대 태국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7	112	39	165	161	117	51	111	107	125	403	136	272
29	360	112	462	177	365	170	446	175	583	209	794	104
39	1,095	1,301	1,333	1,767	1,119	1,174	1,196	1,461	1,388	1,319	1,305	862
60	17	5	28	9	22	8	26	7	28	6	19	4
72	2,660	43	4,364	60	3,245	55	4,281	53	5,214	75	4,459	67
73	593	285	858	381	731	333	885	281	1,247	294	908	279
74	924	329	943	444	660	253	676	262	680	184	725	193
84	5,226	3,434	6,714	3,691	6,207	3,059	7,986	3,645	12,478	3,578	7,736	3,278
85	4,601	5,405	5,700	5,457	4,586	3,669	4,746	3,696	6,418	3,698	6,589	3,922
87	2,710	1,977	3,421	1,451	3,158	1,123	3,127	1,193	6,286	1,620	4,395	1,054
90	1,402	1,179	1,568	1,154	1,455	908	1,577	768	2,210	694	1,369	751

자료: UNcomtrade

<표 III-38> 일본 대 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7	553	4,358	555	6,267	189	6,115	247	16,578	182	19,126	110	9,965
29	130	184	158	290	120	265	152	287	139	393	180	295
39	660	587	748	667	584	529	591	621	622	602	639	522
60	1	1	1	1	1	1	2	1	1	1	2	0.5
72	745	140	870	232	700	53	830	25	900	15	911	14
73	195	40	328	54	292	43	713	56	819	55	554	46
74	612	124	490	154	340	95	435	146	611	154	550	157
84	1,512	641	1,972	807	1,964	655	2,116	739	2,789	954	2,626	979
85	3,398	4,330	3,076	4,630	2,796	4,202	3,163	4,650	4,336	4,802	4,579	5,174
87	1,313	81	1,944	90	1,811	88	2,131	82	2,819	86	2,438	66
90	538	785	509	794	420	665	536	619	782	616	1,209	474

자료: UNcomtrade

<표 III-39> 일본 대 베트남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7	114	205	35	390	25	261	157	1,789	27	3,976	75	511
29	232	49	203	53	172	58	187	59	102	69	122	62
39	1,132	869	1,067	785	776	576	693	481	658	322	591	195
60	121	2	138	1	117	1	94	1	98	1	59	0.3
72	2,117	129	1,976	137	1,460	57	1,575	90	1,564	77	1,205	31
73	194	348	210	341	188	213	224	161	247	119	201	70
74	280	35	364	30	158	17	177	19	149	24	142	13
84	2,567	1,372	2,771	1,280	2,362	1,127	2,478	998	2,235	904	1,842	634
85	4,543	5,682	4,089	5,031	3,111	3,456	2,422	2,514	2,288	2,254	1,371	1,836
87	704	508	729	613	863	492	587	500	293	250	349	278
90	860	391	732	402	501	325	419	284	466	305	295	232

자료: UNcomtrade

IV. 아세안 국가에 대한 한·중·일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1. 연구의 모형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주요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시장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의 대상 상품별(광물성 연료(HS27), 유기 화합물(HS29),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 제품(HS73), 동과 그 제품(HS74),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자료와 데이터는 국제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 UNcomtrade의 무역 통계량을 활용하며, 데이터의 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단위로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대 아세안 각 5개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market share)을 구하고, 비교대상 국가들의 수출품목 구조가 어느 정도 비슷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출경합도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ESI)를 산출한다. 그리고 한국의 대 아세안 각국의 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보다 더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차원에서 불변시장 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CMS)모형을 활용한다.

또한 무역 통계량 분석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국제경쟁력 지수로 많이 활용되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 :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대칭적 현시비교우위(SRCA)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시장에서 각 국간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는 지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 TSI)를 산출하여 한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한중일 비교우위와 무역특화정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수출경합도와 불변시장 점유율 분석

1) 시장 점유율 분석

여기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대 아세안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market share)

을 살펴보기 위해 2020년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의 대 아세안 시장 주요 수출상품을 토대로 중국, 일본의 수출 금액을 UNcomtrade를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세안 시장에서의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경쟁력의 현황 및 경쟁력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장 점유율은 특정(아세안) 시장의 전체 수입에서 특정 국가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구하는 방법은 다음 식 (1)과 같다. 식 (1)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한국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예로 들었다. 나머지 4개국 태국(T), 말레이시아(M), 필리핀(Ph), 인도네시아(I)는 (2)~(5)와 같다.

$$S_{KV}^P = \frac{IM_{KV}^P}{IM_V^P} \times 100 \text{ ----- (1)}$$

S_{KV}^P : V(베트남)시장에서 K(한국) 품목(P)의 시장 점유율

IM_{KV}^P : V(베트남)시장에서 K(한국)으로부터 품목(P)의 수입액

IM_V^P : V(베트남)시장에서 품목(P)의 총수입액

$$S_{KT}^P = \frac{IM_{KT}^P}{IM_T^P} \times 100 \text{ ----- (2) 태국(T)에 대한 한국상품의 시장 점유율}$$

$$S_{KM}^P = \frac{IM_{KM}^P}{IM_M^P} \times 100 \text{ ----- (3) 말레이시아(M)에 대한 한국상품의 시장 점유율}$$

$$S_{KI}^P = \frac{IM_{KI}^P}{IM_I^P} \times 100 \text{ ----- (4) 인도네시아(I)에 대한 한국상품의 시장 점유율}$$

같은 방식으로 수식을 변형하여 각각 중국(C), 일본(J)의 아세안 각 나라에 적용할 수 있다. 그 수식의 예는 (5), (6)과 같다.

$$S_{JC}^P = \frac{IM_{JC}^P}{IM_C^P} \times 100 \text{ ----- (5)}$$

$$S_{CJ}^P = \frac{IM_{CJ}^P}{IM_J^P} \times 100 \text{ ----- (6)}$$

우선, 한·중·일 3개국의 대 베트남 시장 점유율을 품목별로 보면, 광물성 연료(27)는 한국과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화합물(29)은 중국이 약 30%내외로 시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은 10%내외이고 일본은 7%내외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제품(39)는 한국은 시장 점유율은 22%내외로 시장 점유율이 나타났으며, 중국은 한국에 비해 높은 33%내외로 시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점점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편직물(60)은 일본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010년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는 반면, 중국은 2020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62%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철강(72)은 한국은 10년 간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시장 점유율은 약 6%내외이고 중국은 2018년까지 시장점유율은 연속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다가 2020년 5% 하락하였다. 철강제품(73)은 한국은 2014년에는 시장 점유율은 25%에서 2020년의 17%로 약 8% 하락하였으며, 중국은 2020년 기준 대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54%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동과 그 제품(74)은 일본은 2020년까지 시장 점유율은 2010년과 비슷하게 유지해왔으며, 한국도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약 5%내외 증가세로 나타났다. 기계류(84)는 한국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하락세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까지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증가세로 나타났다. 전자기기(85)는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가 2020년의 시장 점유율은 약 7% 하락하였다. 중국은 10년 동안의 시장 점유율은 평균 약 3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점점 하락세로 나타났다. 자동차 및 부품(87)은 한국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세로 나타났으며, 중국도 2014년 이후 하락세로 보이고 있다. 정밀기기(90)는 한국은 점점 증가세로 나타났지만, 중국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2018년까지 하락세로 보이며, 2020년에는 미미한 증가세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 베트남 시장에서는 중국이 품목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한·중·일 대 베트남 시장 점유율 분석

구분	한국				중국				일본			
	2010	2014	2018	2020	2010	2014	2018	2020	2010	2014	2018	2020
27	10	6	14	9	21	21	12	6	1	1	0	1
29	10	10	9	8	20	29	30	33	7	8	5	7
39	16	21	23	21	11	15	22	31	14	10	9	9
60	26	24	19	15	39	45	54	62	3	2	2	2
72	18	12	12	13	22	44	39	25	18	19	18	24
73	15	25	19	17	29	32	43	54	20	15	16	11
74	6	18	21	20	6	16	18	26	11	13	14	10
84	8	12	14	13	32	36	37	45	19	16	13	12
85	16	23	35	28	39	40	32	37	14	8	9	8
87	22	18	12	14	16	29	13	16	17	16	14	11
90	6	17	46	32	20	13	16	20	24	14	10	12

두번째는, 한·중·일 3개국의 대 태국 시장 점유율을 품목별로 보면, 광물성연료(27)는 한·중·일 3개국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화합물(29)은 한·중·일은 2018년까지의 시장 점유율은 전부 다 증가세로 나타났다가 2020년에는 하락세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는 중국이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제품(39)는 한국은 10년 간 시장 점유율이 약 8%로 유지하였으며, 중국은 2018년도에 52%로 시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도 2018년도에 41%로 높은 시장 점유율이 나타났다. 편직물(60)은 한국과 일본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2018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77%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2020년에는 하락세로 나타났다. 철강(72)은 한국은 2018년까지 증가세로 나타났지만 2020년의 시장 점유율은 15%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8년까지 41%로 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5%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일본은 2010년부터 43%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2018년에는 76%로 증가하였다. 철강제품(73)은 한국은 2012년부터 시장 점유율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이 상대적인 높은 시장 점유율이 차지하였다. 2018년은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70%,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53%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 중국과 일본 대 태국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약 30%로 감소하였다. 동과 그 제품(74)은 한국은 2020년까지 시장 점유율은 2012년과 비슷하게 유지해왔으

며, 중국은 2018년의 33%로부터 2020년 18%로 하락세로 나타났다. 일본은 2018년의 47%로부터 2020년 25%로 하락세로 나타났다. 기계류(84)는 중국은 2018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점점 증가세로 보이다가 2020년 36%로 하락세로 나타났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20%로 하락세로 나타났다. 전자기기(85)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가 2020년의 시장 점유율은 약 30% 하락하였다. 일본은 2020년의 시장 점유율은 2018년에 비해 약16%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자동차 및 부품(87)은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14%로 하락세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2018년에는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인 70%에 2020년 30%로 하락세로 나타났다. 정밀기기(90)는 중국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2018년까지 증가세로 보이며, 2020년에는 하락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은 기계류(84), 전자기기(85), 자동차 및 부품(87), 정밀기기(90)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미미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 태국 시장에서는 일본이 품목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한 · 중 · 일 대 태국 시장 점유율 분석

구분	한국				중국				일본			
	2010	2014	2018	2020	2010	2014	2018	2020	2010	2014	2018	2020
27	1	1	2	1	1	0	1	1	1	0	1	0
29	6	8	13	6	13	18	49	27	17	9	19	9
39	8	8	16	7	12	19	52	30	30	22	41	19
60	4	6	6	2	36	37	77	39	5	6	13	4
72	11	13	26	15	9	18	41	25	43	39	76	31
73	8	6	5	4	17	28	70	37	34	28	53	22
74	11	5	11	4	5	12	33	18	23	22	47	25
84	4	4	5	3	22	25	57	36	30	27	44	20
85	5	4	8	4	22	30	66	36	24	18	30	14
87	3	2	5	1	4	10	29	14	60	42	70	30
90	2	3	4	2	11	17	39	20	35	29	52	24

셋째, 한 · 중 · 일 3개국의 대 말레이시아 시장 점유율을 품목별로 보면, 광물성 연료(27)는 한 · 중 · 일 3개국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는 중국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이 차지하고 있다. 유기화합물(29)은 한국과 일본은 시장 점유율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10년간의 시장 점유율은 전부 다 증가세로 나타났다가. 플라스틱

제품(39)는 한국은 시장 점유율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10년간의 시장 점유율은 전부 다 증가세로 나타났다. 일본은 10년간의 시장 점유율은 점점 하락세로 나타났다. 편직물(60)은 한국과 일본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2014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28%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그 후 2020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하락세로 나타났다. 철강(72)은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14%로 하락세로 나타났다. 일본은 10년간 약 20%의 시장 점유율이 유지하고 있다. 철강제품(73)은 한국과 일본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10년간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세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였으며, 2020년 41% 나타났다. 동 과 그 제품(74)은 한국과 중국은 시장 점유율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변동이 없다. 일본은 19% 증가세로 나타났다. 전자기기(85)는 한국은 2010년 9%로부터 2020년의 5%로 하락세로 나타났으며, 일본도 마찬가지로 2020년의 시장 점유율은 9% 하락세로 나타났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상승세로 나타났다. 자동차 및 부품(87)은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10년간 연속 증가세로 나타났는 반면, 일본은 10년간 하락세로 나타났다. 정밀기기(90)는 일본은 2010년 이후 하락세로 보이고 중국은 2014년까지 증가세로 보이다가 2020년의 시장 점유율은 18%로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 말레이시아 시장에서는 중국이 품목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한 · 중 · 일 대 말레이시아 점유율 분석

구분	한국				중국				일본			
	2010	2014	2018	2020	2010	2014	2018	2020	2010	2014	2018	2020
27	4	6	5	6	1	2	7	9	1	1	2	2
29	6	8	7	9	13	17	18	21	7	5	5	7
39	7	6	6	5	10	15	18	21	18	12	10	11
60	0	2	5	5	29	34	51	50	1	1	1	1
72	12	14	10	14	13	28	23	14	21	17	16	20
73	5	5	4	4	22	27	41	41	28	27	15	13
74	6	10	10	6	5	12	15	12	22	18	15	19
84	3	4	4	4	23	26	32	37	14	11	10	10
85	9	5	4	5	13	24	23	25	13	9	7	9
87	2	3	1	2	5	11	13	21	41	30	28	23
90	4	6	4	2	12	23	18	18	23	9	11	12

넷째, 한·중·일 3개국의 대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을 품목별로 보면, 광물성 연료(27)는 일본은 시장 점유율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도 미미한 수준으로 변동이 없다. 한국은 2014년부터 연속 하락세로 나타났다. 유기화합물(29)은 한국과 일본은 10년 간 모두 하락세로 나타났지만, 중국은 증가세로 나타났다. 2018년까지 각각 16%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한국은 6%로, 중국은 10%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제품(39)은 한국은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으며,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10년간 감소세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2020년 22%로 지속적인 증가세로 나타났다. 편직물(60)은 일본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2010년의 26%로부터 2020년에 40%로 증가세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2010년에 34%로부터 2020년에 23%로 하락하였다. 철강(72)은 한국은 거의 큰 변동이 없으며,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10년간 계속 하락세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2014년의 22%로 나타난 후에 2020년에 19%를 하락세로 나타났다. 철강제품(73)은 일본은 2010년에 26%로부터 2020년에 18%를 하락세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였다. 동 과 그 제품(74)은 중국은 시장 점유율이 점점 증가세로 보이며, 일본은 하락세로 나타났다. 기계류(84), 전자기기(85), 자동차 및 부품(87), 정밀기기(90)도 만차가지로 중국은 점점 증가세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하락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은 철강제품(73), 동 과 그 제품(74), 기계류(84), 전자기기(85), 자동차 및 부품(87), 정밀기기(90)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미미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중국이 품목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한·중·일 대 인도네시아 점유율 분석

구분	한국				중국				일본			
	2010	2014	2018	2020	2010	2014	2018	2020	2010	2014	2018	2020
27	8	9	4	3	3	1	2	4	0	0	0	0
29	4	3	5	4	13	16	22	28	8	6	5	6
39	11	10	8	9	10	13	19	22	13	9	8	7
60	34	33	25	23	26	27	38	40	1	2	3	2
72	9	14	8	10	11	22	21	19	25	21	18	16
73	4	5	4	8	24	29	39	36	26	18	20	18

74	8	7	4	5	5	13	26	28	39	32	25	19
84	3	4	4	4	23	28	36	41	26	20	18	12
85	7	5	5	5	31	40	47	49	12	10	8	5
87	2	3	2	2	6	8	13	21	30	29	36	25
90	2	3	4	4	12	14	21	22	18	20	14	12

2) 수출경합도 지수

국별 수출경합도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ESI)⁵⁷⁾는 비교대상 국가들의 수출 품목 구조가 어느 정도 비슷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지수값이 크면 클수록 비교하는 나라들의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보며, 특정 시장에서 국가간의 수출상품 구조가 얼마나 비슷한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때 ESI의 값이 1에 근접할수록 두 국가는 비교 시장에서 서로 비슷한 제품수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양국가의 수출 품목 구조가 완전히 일치할 경우 ESI의 값은 1, 전혀 일치하지 않으면 0 이 된다는 것이다.

$$ESI_{KJ} = \sum_i \min\left(\frac{X_{ki}}{X_K}, \frac{X_{ji}}{X_J}\right) \text{-----}(1)$$

X_K, X_J 는 한국(K)와 일본(J)의 대 아세안 국가의 총 수출액,

X_{ki}, X_{ji} 는 한국(K)와 일본(J)의 대 아세안 국가의 i 품목의 수출액

여기서 수식을 변형하면 C는 중국으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의 수식이다.

$$ESI_{KC} = \sum_i \min\left(\frac{X_{ki}}{X_K}, \frac{X_{ci}}{X_C}\right) \text{-----}(2)$$

X_K, X_C 는 한국(K)와 중국(C)의 대 아세안 국가에 총 수출액,

X_{ki}, X_{ci} 는 한국(K)와 중국(C)의 대 아세안 국가에 i 품목의 수출액

여기에서 특정시장은 인도네시아 시장을 말한다.

그러나 ESI지수는 일정한 시장에서 비교 대상 나라간 수출국의 수출 품목 구조가 비슷한지, 다시말해, 두 나라간의 수출구조가 경쟁적이 심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57) IMF는 국별 경제 보고서(country paper)에서 일정국가간 수출 경합 상황을 설명하는 지표로 ESI지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ESI는 특정 시장에서 두 나라간의 수출 경합 정도를 단순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품목을 분류하는 방법에 의해 지수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수출액수의 상대적인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규모가 차이나는 두 나라간의 경합관계가 과대평가 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⁵⁸⁾.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가장 큰 지수값이 1이 되도록 산출지수에 임의 상수를 곱하여 다시 산출한 후 수출 경합도를 비교하였다⁵⁹⁾.

먼저, 아세안 국가 중 태국시장에 대한 한·중 경합도와 한·일 경합도를 살펴보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의 한·중 경합도가 상승한 품목은 플라스틱 제품(HS 39), 철강 제품(HS73), 동과 그 제품(HS74), 전자기기(HS85)이다. 그리고 한·중 경합도가 하락한 품목은 광물성 연료(HS27), 유기 화합물(HS29), 편직물(HS60), 철강(HS72), 기계류(HS84),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가장 경합도가 높은 제품은 전자기기(HS85)는 0.9983, 기계류(HS84)는 0.6357, 플라스틱 제품(HS39)이 0.33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5> 한·중간 대 태국 품목별 수출경합도 지수 추이

HS 코드	품목	한국과 중국간 경합도						차이 (b)-(a)
		2020(b)	2018	2016	2014	2012	2010(a)	
27	광물성 연료	0.0389	0.0326	0.0365	0.0314	0.0252	0.0594	-0.0204
29	유기화합물	0.1390	0.1763	0.1458	0.1525	0.1693	0.2239	-0.0848
39	플라스틱 제품	0.3307	0.2854	0.2403	0.2295	0.1971	0.1650	0.1656
60	편직물	0.0079	0.0130	0.0309	0.0178	0.0309	0.0225	-0.0146
72	철강	0.2665	0.3509	0.3882	0.3654	0.3918	0.3031	-0.0366
73	철강제품	0.1569	0.1182	0.1895	0.1398	0.1478	0.1478	0.0090
74	구리	0.0663	0.0879	0.0466	0.0653	0.0550	0.0501	0.0162
84	기계류	0.6357	0.5665	1.0029	0.7030	0.8458	0.8771	-0.2414
85	전자기기	1.0000	0.8329	0.9261	0.8297	0.7283	0.9019	0.0963
87	자동차 / 부품	0.1114	0.1587	0.1856	0.1391	0.2095	0.1312	-0.0198
90	정밀기계	0.1132	0.1313	0.1511	0.1173	0.1004	0.2672	-0.1539

자료: UNcomtrade에서 추출하여 저자 계산 ■는 2010년 대비 2020년 경합도 상승

58) Finger, J.M and Kreinin, M. E. (1979). "A Measure of Export Similarity and Its Possible Uses". Economic Journal, 89. 905-912.

59) 김태현, "전계논문", p.604.

한편,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의 한·일 경합도가 상승한 품목은 광물성 연료(HS27),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동과 그 제품(HS74), 전자기기(HS85)이다. 그리고 한·일 경합도가 하락한 품목은 유기 화합물(HS29), 철강(HS72), 철강 제품(HS73), 기계류(HS84),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이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가장 경합도가 높은 제품은 전자기기(HS85)는 0.9983, 기계류(HS84)는 0.6357, 철강(HS72)제품은 0.6294 순으로 나타났다. 태국시장에서는 한·중 경합도와 한·일 경합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전자기기(HS85) 품목으로 극심한 경쟁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표 IV-6> 한·일간 대 태국 품목별 수출경합도 지수 추이

HS 코드	품목	한국과 일본간 경합도						차이 (b)-(a)
		2020(b)	2018	2016	2014	2012	2010(a)	
27	광물성 연료	0.0264	0.0308	0.0258	0.0214	0.0173	0.0240	0.0024
29	유기화합물	0.0853	0.0865	0.0804	0.0859	0.0806	0.1402	-0.0550
39	플라스틱 제품	0.2591	0.2494	0.2467	0.2305	0.1918	0.2305	0.0286
60	편직물	0.0040	0.0053	0.0049	0.0050	0.0039	0.0034	0.0006
72	철강	0.6294	0.8166	0.7154	0.8247	0.7205	0.7876	-0.1583
73	철강제품	0.1402	0.1182	0.1611	0.1705	0.1478	0.1604	-0.0201
74	구리	0.1451	0.1690	0.1317	0.1303	0.0940	0.1281	0.0169
84	기계류	0.6357	0.5665	0.8238	0.9257	0.8458	0.8771	-0.2414
85	전자기기	1.0000	0.8329	0.9723	0.7903	0.7283	0.9019	0.0963
87	자동차/ 부품	0.1114	0.1587	0.1630	0.1583	0.3782	0.2263	-0.1150
90	정밀기계	0.1132	0.1313	0.1375	0.2100	0.1004	0.2418	-0.1285

자료: UNcomtrade에서 추출하여 저자 계산 ■는 2010년 대비 2020년 경합도 상승

둘째,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 시장에 대한 한·중 경합도와 한·일 경합도를 살펴 보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의 한·중 경합도가 상승한 품목은 플라스틱 제품(HS39), 동과 그 제품(HS74), 전자기기(HS85), 정밀기기(HS90)이다. 그리고 한·중 경합도가 하락한 품목은 광물성 연료(HS27), 유기 화합물(HS29), 편직물(HS60), 철강(HS72), 기계류(HS84), 자동차 및 부품(HS8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가장 경합도가 높은 제품은 전자기기(HS85)는 0.9998, 기계류(HS84)는 0.1796,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전자기기(HS85) 품목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경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7> 한·중간 대 베트남 품목별 수출경합도 지수 추이

HS 코드	품목	한국과 중국간 경합도						
		2020(b)	2018	2016	2014	2012	2010(a)	차이 (b)-(a)
27	광물성 연료	0.0245	0.0644	0.0467	0.0773	0.1513	0.2250	-0.2005
29	유기화합물	0.0166	0.0190	0.0157	0.0329	0.0413	0.0494	-0.0328
39	플라스틱 제품	0.1268	0.1021	0.0906	0.0634	0.0733	0.0639	0.0628
60	편직물	0.0493	0.0640	0.0928	0.0798	0.0933	0.0901	-0.0408
72	철강	0.0703	0.0814	0.0847	0.1368	0.1413	0.1985	-0.1283
73	철강제품	0.0281	0.0207	0.0402	0.0620	0.0475	0.0716	-0.0436
74	구리	0.0155	0.0148	0.0080	0.0110	0.0048	0.0065	0.0090
84	기계류	0.1796	0.1941	0.2554	0.2631	0.2169	0.2674	-0.0878
85	전자기기	1.0000	0.7775	0.5527	0.5318	0.4948	0.3808	0.6190
87	자동차/ 부품	0.0425	0.0410	0.0764	0.0828	0.0528	0.0766	-0.0341
90	정밀기계	0.0877	0.0767	0.0868	0.0733	0.0429	0.0376	0.0501

자료: UNcomtrade에서 추출하여 저자 계산 ■는 2010년 대비 2020년 경합도 상승

한편,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의 한·일 경합도가 상승한 품목은 동과 그 제품(HS74), 전자기기(HS85), 정밀기기(HS90)이다. 그리고 한·일 경합도가 하락한 품목은 광물성 연료(HS27), 유기 화합물(HS29),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 제품(HS73), 기계류(HS84), 자동차 및 부품(HS87)이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가장 경합도가 높은 제품은 전자기기(HS85) 품목은 1.000, 기계류(HS84)는 0.2410, 플라스틱 제품(HS39)은 0.2304 순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시장에서도 태국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한·중 경합도와 한·일 경합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전자기기(HS85) 품목으로 극심한 경쟁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8> 한·일간 대 베트남 품목별 수출경합도 지수 추이

HS 코드	품목	한국과 일본간 경합도						
		2020(b)	2018	2016	2014	2012	2010(a)	차이 (b)-(a)
27	광물성 연료	0.0251	0.0080	0.0071	0.0501	0.0094	0.0347	-0.0096
29	유기화합물	0.0222	0.0255	0.0211	0.0442	0.0358	0.0562	-0.0340
39	플라스틱 제품	0.2304	0.2393	0.2253	0.2210	0.2309	0.2726	-0.0422

HS 코드	품목	한국과 일본간 경합도						
		2020(b)	2018	2016	2014	2012	2010(a)	차이 (b)-(a)
60	편직물	0.0267	0.0317	0.0341	0.0300	0.0345	0.0274	-0.0007
72	철강	0.0988	0.1093	0.1137	0.1835	0.2882	0.4601	-0.3613
73	철강제품	0.0377	0.0278	0.0539	0.0715	0.0637	0.0928	-0.0551
74	구리	0.0405	0.0412	0.0458	0.0490	0.0243	0.0317	0.0088
84	기계류	0.2410	0.2604	0.3426	0.3530	0.2911	0.3588	-0.1178
85	전자기기	1.0000	0.9378	0.9029	0.7719	0.8031	0.5109	0.4898
87	자동차/ 부품	0.1014	0.1025	0.1545	0.1682	0.1030	0.1609	-0.0595
90	정밀기계	0.1895	0.1680	0.1455	0.0983	0.0576	0.0504	0.1391

자료: UNcomtrade에서 추출하여 저자 계산 ■는 2010년 대비 2020년 경합도 상승

셋째, 아세안 국가 중 말레이시아 시장에 대한 한·중 경합도와 한·일 경합도를 살펴보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의 한·중 경합도가 상승한 품목은 광물성 연료(HS27), 플라스틱 제품(HS39)이다. 그리고 한·중 경합도가 하락한 품목은 유기 화합물(HS29),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 제품(HS73), 동과 그 제품(HS74),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가장 경합도가 높은 제품은 전자기기(HS85)제품은 0.9250, 기계류(HS84)는 0.3191, 플라스틱 제품(HS39)은 0.1908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전자기기(HS85) 품목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경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9> 한·중간 대 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출경합도 지수 추이

HS 코드	품목	한국과 중국간 경합도						
		2020(b)	2018	2016	2014	2012	2010(a)	차이 (b)-(a)
27	광물성 연료	0.1207	0.1317	0.1185	0.0630	0.0642	0.0543	0.0664
29	유기화합물	0.0470	0.0666	0.0562	0.0615	0.0579	0.0784	-0.0314
39	플라스틱 제품	0.1908	0.1792	0.1749	0.1565	0.1445	0.0920	0.0988
60	편직물	0.0063	0.0058	0.0092	0.0137	0.0130	0.0127	-0.0065

HS 코드	품목	한국과 중국간 경합도						
		2020(b)	2018	2016	2014	2012	2010(a)	차이 (b)-(a)
72	철강	0.0590	0.1336	0.1439	0.1380	0.1154	0.1101	-0.0511
73	철강제품	0.0403	0.0611	0.1302	0.0953	0.1042	0.0692	-0.0289
74	구리	0.0194	0.0454	0.0454	0.0372	0.0542	0.0239	-0.0045
84	기계류	0.3191	0.4450	0.4594	0.4444	0.3857	0.3492	-0.0301
85	전자기기	0.9250	0.8689	0.8487	0.7880	0.8260	1.0000	-0.0772
87	자동차/ 부품	0.0571	0.0854	0.0891	0.1106	0.1250	0.1078	-0.0507
90	정밀기계	0.0617	0.0755	0.1589	0.2218	0.2275	0.3045	-0.2428

자료: UNcomtrade에서 추출하여 저자 계산 (■부분은 2012년 대비 2018년 수출경합도 상승)

한편,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의 한·일 경합도가 상승한 품목은 광물성 연료(HS27), 유기 화합물(HS29), 플라스틱 제품(HS39), 철강 제품(HS73), 동과 그 제품(HS74)이다. 그리고 한·일 경합도가 하락한 품목은 편직물(HS60), 철강(HS72),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이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가장 경합도가 높은 제품은 전자기기(HS85)제품은 0.9250, 기계류(HS84)는 0.3191, 철강(HS72)제품은 0.255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0> 한·일간 대 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출경합도 지수 추이

HS 코드	품목	한국과 일본간 경합도						
		2020(b)	2018	2016	2014	2012	2010(a)	차이 (b)-(a)
27	광물성 연료	0.1892	0.1715	0.0671	0.0754	0.0444	0.0269	0.1623
29	유기화합물	0.0444	0.0488	0.0425	0.0462	0.0339	0.0440	0.0004
39	플라스틱 제품	0.1908	0.2312	0.2072	0.1802	0.1514	0.1560	0.0348
60	편직물	0.0003	0.0002	0.0003	0.0005	0.0003	0.0005	-0.0002
72	철강	0.2550	0.2689	0.2391	0.2530	0.2192	0.2226	0.0324
73	철강제품	0.0403	0.0611	0.1037	0.0953	0.1042	0.0692	-0.0289
74	구리	0.1381	0.1515	0.1207	0.1327	0.1057	0.1343	0.0039
84	기계류	0.3191	0.4450	0.4594	0.4444	0.3857	0.3492	-0.0301

HS 코드	품목	한국과 일본간 경합도						
		2020(b)	2018	2016	2014	2012	2010(a)	차이 (b)-(a)
85	전자기기	0.9250	0.8689	0.8487	0.7880	0.8260	1.0000	-0.0772
87	자동차 /부품	0.0571	0.0912	0.0891	0.2064	0.2161	0.2143	-0.1572
90	정밀기계	0.0617	0.0755	0.1490	0.1633	0.1904	0.2955	-0.2338

자료: UNcomtrade에서 추출하여 저자 계산 ■는 2010년 대비 2020년 경합도 상승

넷째,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한·중 경합도와 한·일 경합도를 살펴보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의 한·중 경합도가 상승한 품목은 유기 화합물(HS29), 플라스틱 제품(HS39), 철강(HS72), 철강 제품(HS73), 동과 그 제품(HS74),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이다. 그리고 한·중 경합도가 하락한 품목은 광물성 연료(HS27), 편직물(HS60), 정밀기기(HS90)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가장 경합도가 높은 제품은 기계류(HS84)는 0.9991, 전자기기(HS85)제품은 0.9456, 플라스틱 제품(HS39)은 0.3463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계류(HS84)와 전자기기(HS85) 품목은 아주 작은 차이로 경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V-11> 한·중간 대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경합도 지수 추이

HS 코드	품목	한국과 중국간 경합도						
		2020(b)	2018	2016	2014	2012	2010(a)	차이 (b)-(a)
27	광물성 연료	0.1045	0.1258	0.1142	0.4271	0.4921	0.6837	-0.5792
29	유기화합물	0.2177	0.2476	0.2327	0.1293	0.1287	0.1384	0.0793
39	플라스틱 제품	0.3463	0.2886	0.2736	0.2753	0.2167	0.1619	0.1844
60	편직물	0.1242	0.1294	0.1504	0.1205	0.1152	0.1266	-0.0024
72	철강	0.2683	0.3866	0.4792	0.3454	0.2546	0.2060	0.0623
73	철강제품	0.2571	0.1219	0.1039	0.1135	0.1860	0.0773	0.1799
74	구리	0.0500	0.0477	0.0414	0.0436	0.0242	0.0214	0.0287
84	기계류	1.0000	0.7808	0.6368	0.5665	0.7057	0.4939	0.5052
85	전자기기	0.9456	0.8190	0.7717	0.4742	0.4903	0.7625	0.1831
87	자동차/ 부품	0.1247	0.1557	0.2102	0.1169	0.1522	0.0981	0.0266
90	정밀기계	0.1321	0.1164	0.1121	0.1312	0.0915	0.1435	-0.0114

자료: UNcomtrade에서 추출하여 저자 계산 ■는 2010년 대비 2020년 경합도 상승

한편,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의 한·일 경합도가 상승한 품목은 유기 화합물

(HS29),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 제품(HS73),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이다. 그리고 한·일 경합도가 하락한 품목은 광물성 연료(HS27), 동과 그 제품(HS74), 정밀기기(HS90)이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가장 경합도가 높은 제품은 전기기계류(HS84)는 0.9991, 전자기기(HS85)제품은 0.8029, 철강(HS72)은 0.7293, 플라스틱 제품(HS39)은 0.36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2> 한·일간 대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경합도 지수 추이

HS 코드	품목	한국과 일본간 경합도						차이 (b)-(a)
		2020(b)	2018	2016	2014	2012	2010(a)	
27	광물성 연료	0.0283	0.0284	0.0234	0.0412	0.0329	0.0427	-0.0144
29	유기화합물	0.1942	0.1537	0.1723	0.1293	0.1287	0.1384	0.0557
39	플라스틱 제품	0.3643	0.2994	0.3914	0.3145	0.2488	0.2530	0.1113
60	편직물	0.0258	0.0245	0.0226	0.0153	0.0106	0.0069	0.0190
72	철강	0.7293	0.6782	0.7402	0.7327	0.7044	0.5507	0.1786
73	철강제품	0.2571	0.1219	0.1039	0.1135	0.1860	0.0773	0.1799
74	구리	0.0598	0.0477	0.0611	0.0650	0.0304	0.0718	-0.0120
84	기계류	1.0000	0.7808	0.6368	0.5665	0.7057	0.4939	0.5052
85	전자기기	0.8029	0.7096	0.7717	0.4742	0.4903	0.7625	0.0404
87	자동차/ 부품	0.1247	0.1557	0.2208	0.1169	0.1522	0.0981	0.0266
90	정밀기계	0.1321	0.1164	0.1121	0.1312	0.0915	0.1429	-0.0108

자료: UNcomtrade에서 추출하여 저자 계산 ■는 2010년 대비 2020년 경합도 상승

3) 불변시장 점유율

여기에서는 한국의 대 아세안 각국의 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보다 더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차원에서 불변시장 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CMS)모델을 사용하여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간의 경쟁력 분석을 시도한다. 불변시장 점유율 분석은 수출변동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Tyszynski(1951)에 의해 처음으로 국제무역분야 연구에 도입되었다. CMS 모델은 특정 국가의 시장 점유율 변화를 다양한 요소로 분해하고 각각의 요소가 수출성장 변화에 기여한 정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모델은 이론적으로 세계시장에서 특정 국가의 시장 점유율이 시간이 지나도 변화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주어진 기간 세계시장에서 특정 국가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4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 점유율 효과(market share effect), 상품구성 효과(commodity composition effect),

시장분배 효과(market distribution effect), 경쟁력 효과(competitiveness effect) 등이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 아세안 각국의 수출 증감액

= 한국의 비교년도 대 아세안국가 수출액 - 한국의 기준년도 대 아세안국가 수출액

$$\begin{aligned}
 &= \sum_i (EX_{it_1} - EX_{it_0}) \\
 &= \sum_i (IM_{it_1}\mu_{it_1} - IM_{it_0}\mu_{it_0}) \\
 &= \sum_i [IM_{it_1}(\mu_{it_1} - \mu_{it_0}) + \mu_{it_0}(IM_{it_1} - IM_{it_0})] \\
 &= \sum_i IM_{it_1}(\mu_{it_1} - \mu_{it_0}) + \sum_i \mu_{it_0}(IM_{t_1}\omega_{it_1} - IM_{t_0}\omega_{it_0}) \\
 \\
 &= \sum_i IM_{it_1}(\mu_{it_1} - \mu_{it_0}) + \sum_i \mu_{it_0}[(IM_{t_1}(\omega_{it_1} - \omega_{it_0}) + \omega_{it_0}(IM_{t_1} - IM_{t_0})] \\
 &= \sum_i IM_{it_1}(\mu_{it_1} - \mu_{it_0}) + \sum_i \mu_{it_0}IM_{t_1}(\omega_{it_1} - \omega_{it_0}) + \sum_i \mu_{it_0}\omega_{it_0}(IM_{t_1} - IM_{t_0})
 \end{aligned}$$

EX_i : 한국의 i제품 대 아세안국가 수출액

IM_i : 아세안국가의 i제품 수입액

IM : 아세안국가의 총수입액

μ_i : 한국의 i제품 아세안국가 시장 점유율

ω_i : 아세안국가의 총 수입 중 i제품의 비중

t_1 : 비교년도(2020년)

t_0 : 기준년도(2010년)

<표 IV-13> 불변시장 점유율(CMS) 모델의 해석

요인	경쟁력 요인 (Competitive effect)	상품공급구조변동 요인 (Secon-order effect)	수입규모변동 요인 (Scale effect)
수식	$\sum_i IM_{it_1}(\mu_{it_1} - \mu_{it_0})$	$\sum_i \mu_{it_0}IM_{t_1}(\omega_{it_1} - \omega_{it_0})$	$\sum_i \mu_{it_0}\omega_{it_0}(IM_{t_1} - IM_{t_0})$
개념	수출국 경쟁력(점유율)의 변동이 수출증감에 미친 효과	세계 수입수요의 품목별 비중 변화가 수출국 전체 수출규모 증감에 미친 효과	세계 수입수요 변화가 수출국 수출규모 증감에 미친 효과

의미	효과가 (+)이면 경쟁력 강화, (-)이면 경쟁력 약화	효과가 (+)이면 상품구성이 비 교우위, (-)이면 비교열위	효과가 (+)이면 긍정적이며, (-)이면 부정적임
----	-----------------------------------	--------------------------------------	--------------------------------

자료: 심재희, “대인도 수출산업의 경쟁력과 수출변동요인 분석”, 인문사회21, 제10권 4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8. pp.215.

CMS분석은 이해하기가 쉬워 수출변동 요인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추가적 분석의 기본 방향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다만 수출 상품 구성 (clustering) 방법 및 수출시장 선정⁶⁰⁾(standard selection) 방식 등 사용하는 데이터와 계산 방식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 일본, 대만의 품목별 경쟁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0 ~ 2020년의 기간에 대해 품목별 대 아세안 국가 수출액 증감분을 불변시장 점유율(CMS) 요인분해를 하였다. 두 기간 동안 경쟁력 요인 값이 ‘+’인 경우 경쟁력 개선, ‘-’를 경쟁력 약화로 판별하였다.

한국의 대 베트남시장에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를 보면, 광물성 연료(HS27)는 대 베트남 수출 증가분 3억 7,700만 달러 중 베트남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27.05억 달러에 달한 반면 경쟁력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 - 7,700만 달러)과 베트남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상품공급 요인, 14.58억 달러)은 플러스(+)를 기록하여 대베트남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분석 대상 중 전자기기(HS85), 정밀기기(HS90), 기계류(HS84), 플라스틱 제품(HS39)품목을 보면, 전자기기(HS85)는 대 베트남 수출 증가분 263억 9,600만 달러 중 베트남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318.53억 달러에 달한 반면 경쟁력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 112.37억 달러)과 베트남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상품공급 요인, 422.28억 달러)은 플러스(+)를 기록하여 대베트남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60) Fagerberg-Sollie(1987)과 Irwin(1995) 등의 연구에서는 수출시장을 세계 수출시장 전체로 보았으나 CMS분석의 목적이 경쟁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 경쟁국 수입시장의 합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Ahmadi-Esfahani 2001).

<표 IV-14> 한국의 베트남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단위: 백만달러)

품목 (HS)	수출증감액*	경쟁력 (a)	상품 공급(b)	수입 규모(c)	전체(a)+ (b)+(c)
27	377	-77	1,458	2,705	4,086
29	116	-91	633	785	1,327
39	2,151	794	5,221	5,354	11,369
60	194	-571	2,977	2,798	5,204
72	94	-439	1,499	3,622	4,682
73	219	105	1,182	1,383	2,670
74	441	408	321	406	1,135
84	2,184	1,197	2,351	3,406	6,954
85	26,396	11,237	42,228	31,853	85,318
87	439	-431	2,043	2,434	4,046
90	2,685	2,159	1,335	1,102	4,596

정밀기기(HS90)대 베트남 수출 증가분 26억 8,500만 달러 중 베트남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11.02억 달러에 달한 반면 경쟁력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 21.59억 달러)과 베트남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상품공급 요인, 13.35억 달러)은 플러스(+)를 기록하여 대베트남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나머지 기계류(HS84), 플라스틱 제품(HS39)품목에서도 경쟁력(a), 상품공급(b), 수입 규모(c) 등 모든 요인이 (+) 영향을 주어 수출 증가로 나타났다.

<표 IV-15> 한국의 태국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단위: 백만달러)

품목 (HS)	수출증감액 *	경쟁력 (a)	상품 공급(b)	수입 규모(c)	전체(a)+ (b)+(c)
27	128	41	-29	34	46
29	-128	6	-46	34	-6
39	108	-38	138	89	189
60	-15	-7	-1	2	-6
72	275	425	-208	138	355
73	-17	-259	55	66	-138
74	12	-255	36	59	-160
84	-217	-257	60	128	-69
85	168	-571	605	310	344
87	-116	-184	65	44	-75
90	-157	-11	31	17	37

한국의 대 태국시장에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를 보면, 광물성 연료(HS27)는 대 태국 수출 증가분 1억 2,800만 달러 중 태국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3,400만 달러에 달한 반면 경쟁력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 4,100만 달러)과 태국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상품공급 요인, -2,900만 달러)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요인이 커서 태국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품목은 광물성 연료(HS27), 플라스틱 제품(HS39), 철강(HS72), 전자기기(HS85), 정밀기기(HS90) 등이며, 하락한 상품은 유기 화합물(HS29),편직물(HS60), 철강 제품(HS73), 동과 그 제품(HS74),기계류(HS84), 자동차 및 부품(HS87)이다. 특히, 동과 그 제품(HS74),기계류(HS84), 자동차 및 부품(HS87) 등 3가지 품목은 경쟁력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이 (-)를 기록해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전자기기(HS85)품목은 경쟁력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이 (-)였으나, 상품공급요인(+)이 상쇄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한국의 말레이시아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단위: 백만달러)

품목 (HS)	수출증감액*	경쟁력 (a)	상품 공급(b)	수입 규모(c)	전체(a)+ (b)+(c)
27	962	668	254	88	1,010
29	0.5	84	-19	32	97
39	61	-145	216	57	128
60	-10	5	-299	0.1	-293.9
72	-10	89	-57	100	132
73	-13	-29	-18	21	-26
74	86	6	-50	29	-15
84	177	186	-98	82	170
85	526	-2,343	620	692	-1,031
87	-184	-1	-33	21	-13
90	-825	-71	24	26	-21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에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를 보면, 광물성 연료(HS27)는 대 말레이시아 수출 증가분 9억 6,200만 달러 중 말레이시아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8,800만 달러이며, 경쟁력 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 6.68억 달러)과 말레이시아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상품공급 요인, 2.54억 달러)은 플러스(+)를 기록하여 말레이시아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품목은 광물성 연료(HS27), 유기 화합물(HS29), 플라스틱 제품(HS39), 철강(HS72), 기계류(HS84)이며, 하락한 상품은 편직물(HS60), 철강 제품(HS73), 동과 그 제품(HS7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이다. 특히, 전자기기(HS85)품목은 경쟁력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이 (-)23.43억 달러로 너무 커서 상품공급요인과 수입규모(c)가 (+)임에도 불구하고 상쇄하지 못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한국의 인도네시아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단위: 백만달러)

품목 (HS)	수출증감액*	경쟁력 (a)	상품 공급(b)	수입 규모(c)	전체(a)+ (b)+(c)
27	-2,872	-782	-944	92	-1,634
29	19	-0.005	-12	9	-3.005
39	84	-120	260	22	162
60	-282	-154	158	14	18
72	-38	45	46	25	116
73	123	126	-27	6	105
74	-34	-26	-7	4	-29
84	251	200	60	28	288
85	-106	-504	261	50	-193
87	-11	21	-22	4	3
90	-58	60	25	2	87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에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를 보면, 광물성 연료(HS27)는 대 인도네시아 수출 감소분 28억 7,200만 달러 중 인도네시아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9,200만 달러이며, 경쟁력 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 -7.82억 달러)과 인도네시아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상품 공급 요인, -9.44억 달러)은 플러스(+)를 기록하여 인도네시아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경쟁력이 개선된 품목은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 제품(HS73),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 기계류(HS84)이며, 하락한 상품은 광물성 연료(HS27), 유기 화합물(HS29), 동과 그 제품(HS74), 전자기기(HS85)이다.

<표 IV-18> 중국의 베트남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단위: 백만달러)

품목 (HS)	수출증감액*	경쟁력 (a)	상품 공급(b)	수입 규모(c)	전체(a)+ (b)+(c)
27	-858	-1,920	3,070	5,694	6,844
29	885	496	1,271	1,577	3,344
39	4,609	3,180	3,616	3,708	10,504
60	2,989	1,171	4,511	4,239	9,921
72	1,214	306	1,865	4,508	6,679
73	2,179	1,146	2,335	2,731	6,212
74	573	605	288	364	1,257
84	8,601	2,892	9,852	14,274	27,018
85	36,894	-2,258	103,397	77,994	179,133
87	1,091	-21	1,518	1,809	3,306
90	3,226	41	4,194	3,462	7,697

중국의 대 베트남시장에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를 보면, 광물성 연료(HS27)는 대 베트남 수출 감소분 8억 5,800만 달러 중 베트남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56.94억 달러에 달한 반면 경쟁력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 - 19.2억 달러)과 베트남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상품공급 요인, 30.7억 달러)은 플러스(+)를 기록하여 대베트남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전자기기(HS85)는 대 베트남 수출 증가분 368억 9,400만 달러 중 베트남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142.74억 달러에 달한 반면 경쟁력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 - 22.58억 달러)과 베트남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상품공급 요인, 1,033.97억 달러)은 플러스(+)를 기록하여 대베트남 수출 증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광물성 연료(HS27), 유기 화합물(HS29),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 제품(HS73), 동과 그 제품(HS74),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 모든 품목에서 경쟁력이 개선됨을 볼 수 있다.

<표 IV-19> 중국의 태국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단위: 백만달러)

품목 (HS)	수출증감액 *	경쟁력 (a)	상품 공급(b)	수입 규모(c)	전체(a)+ (b)+(c)
27	132	-1	-22	26	3
29	431	581	-99	73	555
39	2,227	1,5489	221	143	15,853
60	68	11	-9	19	21
72	1,238	1,431	-177	118	1,372
73	1,559	1,193	117	140	1,450
74	391	470	18	29	517
84	4,258	3,582	374	8,001	11,957
85	7,402	5,973	2,563	1,315	9,851
87	963	915	85	58	1,058
90	33	515	151	81	747

중국의 대 태국시장에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를 보면, 전자기기(HS85), 기계류(HS84)품목을 보면, 각각 대 태국 수출 증가분 74억 200만 달러, 42억 5,800만 달러 중 태국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각각 13.15억 달러, 80.01억 달러에 달한 반면 경쟁력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 각각 59.73억 달러, 42.58억 달러)과 태국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상품공급 요인, 각각 25.63억 달러, 3.74억달러)은 플러스(+)를 기록하여 태국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대 태국시장에서 광물성 연료(HS27), 유기 화합물(HS29),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 제품(HS73), 동과 그 제품(HS74),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 등 모든 품목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중국의 말레이시아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단위: 백만달러)

품목 (HS)	수출증감액 *	경쟁력 (a)	상품 공급(b)	수입 규모(c)	전체(a)+ (b)+(c)
27	1,280	1,810	65	23	1,898
29	182	245	-42	70	273
39	2,235	851	312	81	1,244
60	71	19	-18	7	8
72	164	51	-612	109	-452
73	1,217	484	-82	94	496
74	122	174	-43	25	156
84	2,420	2,432	-896	750	2,286
85	10,522	6,564	939	1,049	8,552
87	917	722	-71	45	696
90	- 45	326	84	91	501

중국의 대 말레이시아에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를 보면, 전자기기(HS85)는 대 말레이시아 수출 증가분 105억 2,200만 달러 중 말레이시아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10.49억 달러이며, 경쟁력 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 65.64억 달러)과 말레이시아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상품공급 요인, 9.39억 달러)은 플러스(+)를 기록하여 말레이시아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기계류(HS84)는 수출 증가분 24억 2,000만 달러 중 말레이시아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7.5억 달러이며, 경쟁력 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 24.32억 달러)과 말레이시아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상품공급 요인, -8.96억 달러)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다른 요인이 상쇄하여 말레이시아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철강(HS72)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중국의 인도네시아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단위: 백만달러)

품목 (HS)	수출증감액 *	경쟁력 (a)	상품 공급(b)	수입 규모(c)	전체(a)+ (b)+(c)
27	-1,406	131	-335	33	-171
29	598	796	-39	29	786
39	1,395	850	248	21	1,119
60	303	195	122	11	328
72	849	571	55	30	656
73	1,193	313	-170	37	180
74	207	240	-4,935	2,674	-2,021
84	3,319	3,881	434	203	4,518
85	4,959	3,447	1,105	212	4,764
87	513	654	-87	16	583
90	557	299	150	9	458

중국의 대 인도네시아에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를 보면, 전자기기(HS85)는 대 인도네시아 수출 증가분 49억 5,900만 달러 중 인도네시아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2.12억 달러이며, 경쟁력 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 34.47억 달러)과 인도네시아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상품공급 요인, 11.05억 달러)은 플러스(+)를 기록하여 인도네시아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다음으로 기계류(HS84)는 수출 증가분 33억 1,900만 달러 중 인도네시아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2.03억 달러이며, 경쟁력 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 38.81억 달러)과 인도네시아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상품공급 요인, 4.34억 달러)은 플러스(+)를 기록하여 인도네시아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광물성 연료(HS27), 동과 그 제품(HS74)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일본의 베트남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단위: 백만달러)

품목 (HS)	수출증감액 *	경쟁력 (a)	상품 공급(b)	수입 규모(c)	전체(a)+ (b)+(c)
27	39	-10	145	274	409
29	110	-23	455	564	996
39	541	-914	4,670	4,789	8,545
60	62	-37	340	319	622
72	912	610	1,525	3,686	5,821
73	-7	-406	1,591	1,862	3,047
74	138	-38	569	719	1,250
84	725	-1,435	5,741	8,318	12,624
85	3,173	-6,273	37,069	27,962	58,758
87	355	-282	1,547	1,843	3,108
90	565	-1,019	5,033	4,155	8,169

일본의 대 베트남시장에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를 보면, 전자기기(HS85)는 대 베트남 수출 증가분 31억 7,300만 달러 중 베트남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279.62억 달러에 달한 반면 경쟁력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 - 62.73억 달러)과 베트남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상품공급 요인, 370.69억 달러)은 플러스(+)를 기록하여 대베트남 수출 증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대 베트남 시장에서 분석 대상 광물성 연료(HS27), 유기 화합물(HS29),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 제품(HS73), 동과 그 제품(HS74),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 등 모든 품목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3> 일본의 태국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단위: 백만달러)

품목 (HS)	수출증감액 *	경쟁력 (a)	상품 공급(b)	수입 규모(c)	전체(a)+ (b)+(c)
27	-24	-13	-17	21	-9
29	-434	-326	-130	96	-360
39	-210	-956	554	357	-45
60	-2	-1,373	-1	2	-1,372
72	-1,799	-1,097	-829	552	-1,374
73	-315	-731	235	281	-215
74	198	87	73	121	281
84	-2,510	-2,813	510	1,093	-1,210
85	-1,988	-4,607	2,836	1,454	-317
87	-1,684	-2,909	1,165	794	-950
90	34	-556	484	261	189

일본의 대 태국시장에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를 보면, 동과 그 제품(HS74), 정밀기기(HS90)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을 보면, 기계류(HS84)품목으로 대 태국 수출 감소분 25억 1,000만 달러 중 태국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10.93억 달러에 달한 반면 경쟁력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 -28.13억 달러)과 태국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상품공급 요인, 각각 5.1억 달러)은 플러스(+)를 기록하였지만 경쟁력요인의 (-)폭이 커서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은 대 태국시장에서 광물성 연료(HS27), 유기 화합물(HS29),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 제품(HS73),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등 모든 품목에서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일본의 말레이시아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단위: 백만달러)

품목 (HS)	수출증감액*	경쟁력 (a)	상품 공급(b)	수입 규모(c)	전체(a)+ (b)+(c)
27	443	228	40	14	282
29	-51	-18	-22	37	-3
39	21	-551	534	140	123
60	-1	-0.1	-0.6	0.2	-0.5
72	-166	-27	-98	173	48
73	-359	-370	-104	119	-355
74	63	-61	-181	105	-137
84	-1,114	-721	-539	451	-809
85	-1,181	-2,128	891	996	-241
87	-1,125	-810	-569	360	-1019
90	-671	-564	153	165	-246

일본의 대 말레이시아에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를 보면, 광물성 연료(HS27)는 대 말레이시아 수출 증가분 4억 4,300만 달러 중 말레이시아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1,400만 달러이며, 경쟁력 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 2.28억 달러)과 말레이시아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상품공급 요인, 4,000만 달러)은 플러스(+)를 기록하여 말레이시아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 품목은 거의 10억 달러이상 수출 감소분이 나타났다. 이중 전자기기(HS85)품목을 보면, 수출 감소분 11억 8,100만 달러 중 말레이시아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9.96억 달러이며, 경쟁력 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 -21.28억 달러)과 말레이시아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상품공급 요인, 8.91억 달러)은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나, 경쟁력변화에 따른 감소분이 워낙 큰 폭으로 떨어져 말레이시아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광물성 연료(HS27), 플라스틱 제품(HS39), 철강(HS72)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경쟁력이 하락하였다.

<표 IV-25> 일본의 인도네시아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단위: 백만달러)

품목 (HS)	수출증감액*	경쟁력 (a)	상품 공급(b)	수입 규모(c)	전체(a)+ (b)+(c)
27	-55	14	-28	3	-11
29	-134	-117	-25	18	-124
39	-89	-426	321	28	-77
60	17	16	4	0.3	20.3
72	-468	-5761	125	69	-5567
73	-226	-212	-181	39	-354
74	-189	-208	-36	19	-225
84	-2,744	-2,928	479	224	-2225
85	-965	-1,352	442	85	-825
87	-1,827	-212	-405	75	-542
90	-4	-169	226	14	71

일본의 대 인도네시아에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를 보면,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 품목에서 크게 수출 감소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 기계류(HS84)는 대 인도네시아 수출 감소분 27억 4,400만 달러 중 인도네시아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8,500만 달러이며, 경쟁력 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 -29.28억 달러)과 인도네시아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상품공급 요인, 4.79억 달러)은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나 경쟁력 부분에서 워낙 큰 폭으로 감소하여 인도네시아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다음으로 자동차 및 부품(HS87)은 수출 감소분 18억 2,700만 달러 중 인도네시아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7,500만 달러이며, 경쟁력 변화로 인한 변동(경쟁력 요인, -2.12억 달러)과 인도네시아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상품공급 요인, -4.05억 달러)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인도네시아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정밀기기(HS90)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현시비교우위 (RCA) 분석과 무역특화 지수 (TSI) 분석

1) 현시비교우위(RCA) 분석

현시비교우위지수(RCA :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는 무역 통계량 분석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국제경쟁력 지수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⁶¹⁾(Balassa, B.,1977). 이 지수는 세계 전체 수출시장에서 특정 상품(서비스 포함)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 국가의 수출에서 같은 제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로 특정 제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⁶²⁾(Balassa, B.,1977).

$$RCA = \frac{X_{ij} / X_i}{X_{wj} / X_w} \text{-----} (1)$$

단, 여기서 X_{ij} 은 i 국의 j 품목의 수출액, X_i 은 I 국의 총수출액, X_{wj} 은 전세계의 j 품목의 전체 수출액, X_w 는 세계 전체의 수출금액을 각각 말한다.

위의 식이 표현하는 것은 세계 전체 시장에서의 한나라의 특정 품목의 수출 경쟁력을 지수화한 것으로 RCA가 1보다 크면 i 국의 j 상품의 시장 점유율이 그 국가의 전체 상품의 세계 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i 국의 j 상품에 대한 비교우위가 세계 전체의 평균 수출경쟁력보다 높다는 것을 말한다⁶³⁾.

61) Balassa, B., 1977,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evisited: An Analysis of Relative Export Shares of the Industrial Countries, 1953-1971",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45: 327-344.

62) Balassa, B., 1977,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evisited: An Analysis of Relative Export Shares of the Industrial Countries, 1953-1971",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45: 327-344.

63) 신미화·이현훈, 「한·중·일 의류기기산업의 비교우위 및 무역패턴 분석」, 무역학회지, 36권 2호, 2011.04, pp.25-56.

<표 IV-26> 한중일 대 세계의 품목별 RCA지수 분석표

	품목	연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한국	27	0.9316	0.6563	0.5975	0.5912	0.6121	0.4567
	29	1.3149	1.8299	1.6832	1.9043	1.8135	1.5275
	39	1.7241	1.7053	1.6493	1.6977	1.6855	1.6164
	60	2.0429	2.6421	3.2940	3.7304	4.3868	4.4936
	72	2.0683	1.8642	1.9875	1.8923	1.9648	1.8327
	73	0.8888	1.0472	1.3632	1.2908	1.3365	1.0073
	74	1.2879	0.9537	0.9970	0.9742	0.8961	0.9087
	84	1.0143	1.0718	0.9870	0.9584	0.9365	0.9325
	85	1.8016	2.1058	1.8637	1.8979	1.7967	1.8090
	87	1.3346	1.2600	1.4867	1.7081	1.7618	1.5828
90	1.0667	1.4273	1.6485	0.7947	2.2351	2.5644	
중국	27	0.2331	0.1546	0.1379	0.0852	0.0981	0.1105
	29	0.9642	1.0471	0.9352	0.7717	0.9464	0.8439
	39	1.0423	0.9491	0.8784	0.7201	1.0607	0.6921
	60	3.1502	3.7315	3.3126	2.6048	4.0761	3.1131
	72	0.6927	0.8570	1.0883	0.7173	1.1487	0.7206
	73	1.5768	1.5872	1.5036	1.4010	1.7382	1.5165
	74	0.3260	0.3277	0.3701	0.3810	0.3661	0.2936
	84	1.3019	1.4391	1.3762	1.3979	1.7019	1.6412
	85	1.5856	1.8380	1.8132	1.6370	2.3034	1.8764
	87	0.3720	0.3751	0.3371	0.3141	0.4316	0.3362
90	0.8443	0.8880	0.9505	0.3934	1.1759	1.0442	
일본	27	0.2237	0.1497	0.1565	0.1475	0.0981	0.1108
	29	1.0197	1.1192	1.1498	1.5195	1.2503	1.2154
	39	1.1168	1.0458	1.0726	1.1187	1.1620	1.1967
	60	0.3576	0.4165	0.4365	0.4733	0.5689	0.5070
	72	1.9098	1.8476	2.0064	2.1892	2.0964	1.9839
	73	0.7985	0.8426	0.8899	1.1045	1.1393	0.9749
	74	1.9958	1.3618	1.3390	1.4368	1.2445	1.1348
	84	1.4541	1.6729	1.6143	1.6715	1.7305	1.6285
	85	0.9251	1.0227	1.0464	1.1862	1.3030	1.2999
	87	2.4146	2.6000	2.5847	2.7557	2.8099	2.6332
90	1.5917	1.7347	1.6425	0.7419	1.8605	1.6268	

자료: UNcomtrade 무역 통계 데이터를 통해 저자가 계산.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대 세계 시장에서 품목별 수출 상품의 경쟁력은 중국, 일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 RCA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표를 보면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분석 대상 11개 품목 중에서 철강제품(HS73)을 제외한 광물성연료(HS27), 유기화합물(HS29),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HS72), 동과 그 제품(HS74),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

(HS87), 정밀기기(HS90)에서 모두 1보다 큰 수를 나타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대 세계 시장에서 품목별 RCA지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과 일본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1보다 큰 수치를 나타낸 품목은,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제품(HS73),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이다. 그리고 1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낸 품목은 광물성연료(HS27), 유기화합물(HS29), 철강(HS72), 동과 그 제품(HS74),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RCA지수가 한국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유기화합물(HS29), 플라스틱 제품(HS39), 철강(HS72), 동과 그 제품(HS74), 기계류(HS84),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품목에서 1보다 큰 수치를 나타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품목은 1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의 대 아세안 국가별 RCA지수 분석을 살펴보겠다. 한국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해 모든 품목에 RCA지수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한국 대 아시아(5개국)의 품목별 RCA지수 분석표

	품목	연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태국	27	50.8806	46.9433	70.8436	82.3121	136.7412	138.4534
	29	29.8393	33.5178	40.6459	26.2389	23.4453	19.5585
	39	26.5627	21.7344	22.6024	22.6021	21.8158	23.4024
	60	104.8414	71.2078	65.5764	47.0089	40.6481	64.2654
	72	6.5412	6.6297	6.9238	6.5304	6.4334	8.3793
	73	20.1018	26.4055	27.4746	16.1318	25.9975	16.5392
	74	13.2359	8.6339	11.3404	10.0998	13.0016	12.0971
	84	42.4769	40.7771	28.6360	21.5098	21.4888	23.2274
	85	63.6265	65.9290	55.9563	55.2353	50.3879	48.0977
	87	193.4224	114.6878	155.7611	146.2739	57.0918	92.4639
90	70.4629	63.0749	81.4496	53.9884	115.4780	55.4454	
베트남	27	11.3881	9.5885	8.7736	22.4716	10.0014	5.9563
	29	29.5130	31.0178	35.0561	24.4236	20.7721	15.3647
	39	5.8395	4.5591	4.7265	4.8762	5.0126	4.5465
	60	1.3473	1.1355	1.1201	1.0533	1.0401	0.8713

	72	8.5221	7.0751	6.7559	5.7768	4.3522	2.8602
	73	8.9706	11.7718	8.4922	6.0158	9.6777	4.4664
	74	5.0795	3.7170	3.1185	4.0649	9.3032	8.3896
	84	12.0090	9.3149	6.9993	7.9041	10.0156	8.7725
	85	3.1639	3.0254	3.1088	4.2630	4.5740	13.1200
	87	22.7605	18.6506	16.6944	19.3005	24.9889	9.5529
	90	3.9129	2.6821	6.8159	16.1638	32.2653	45.3891
말레이시아	27	10.2793	11.6925	13.7194	21.7989	15.0756	83.8731
	29	47.1850	50.4347	48.9514	51.2625	51.8024	48.4266
	39	35.8382	27.9983	26.5116	28.0987	30.6764	29.9474
	60	72.3684	105.7460	80.5786	54.1913	67.7778	67.7742
	72	14.9919	15.8382	17.0626	15.8361	13.6805	15.1892
	73	42.6498	33.6238	18.6748	30.8165	27.7220	33.3756
	74	7.5700	4.7901	5.6552	4.8441	10.0168	9.1598
	84	46.0924	34.1979	27.7236	32.9224	35.4308	44.7619
	85	37.3987	41.6308	34.6094	40.7088	33.4021	33.2119
	87	205.3938	131.4395	153.8790	82.4692	75.1325	74.9137
	90	70.4579	72.2437	25.6648	19.6398	38.3045	16.8859
인도네시아	27	23.3004	10.5577	11.0792	4.1525	3.5966	3.4241
	29	27.1645	23.9836	25.9347	38.7273	34.2999	35.2653
	39	15.9567	14.4119	14.5694	13.4034	13.4331	14.8318
	60	2.1092	1.9273	1.7667	1.8878	2.1169	2.0958
	72	10.4155	9.3910	8.4845	6.7122	6.8315	11.4585
	73	11.8604	22.1535	35.9960	22.8926	12.7124	28.8605
	74	31.0430	26.4455	20.3256	14.2126	28.5444	17.7528
	84	26.1401	25.5959	30.7907	22.8499	15.8505	30.5613
	85	64.9640	58.0081	58.5943	59.8376	46.0666	42.1533
	87	167.0069	101.1113	95.5584	128.8246	87.3171	158.0101
	90	58.4254	61.5515	83.0623	56.1684	77.9468	76.4931

자료: UNcomtrade 무역 통계 데이터를 통해 저자가 계산.

한국 대 아시아 5개국의 품목별 RCA지수 분석표를 보면, 한국 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11개 품목에 대한 모든 1보다 큰 수치를 나타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한국 대 태국의 품목별에는 편직물(HS60), 자동차 및 부품(HS87), 전자기기(HS85), 광물성연료(HS27), 기계류(HS84)가 다른 품목보다 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대 베트남의 품목별에는 유기화합물(HS29), 자동차 및 부품(HS87)이 다른 품목보다 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 말레이시아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HS87), 유기화합물(HS29), 기계류(HS84), 철강제품(HS73)이 다른 품목보다 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HS87), 전자기기(HS85), 정밀기기(HS90)

가 경쟁력이 더 있다는 것이고 대 필리핀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가 다른 품목보다 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28> 중국 대 아시아(5개국)의 품목별 RCA지수 분석표

	품목	연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태국	27	8.8075	20.3563	12.2764	16.8832	29.6875	17.0123
	29	4.3743	4.8254	4.8225	4.0992	5.8221	5.3209
	39	3.1132	3.9948	4.3286	4.1164	7.3519	7.9626
	60	6.5372	8.1196	7.7378	6.3599	9.5626	6.9479
	72	1.3389	1.9025	1.8581	1.7385	3.0713	3.6156
	73	3.1085	5.3044	4.5669	4.5790	6.9192	10.0280
	74	0.9936	1.1248	2.0741	1.8856	2.7561	3.6273
	84	4.6531	6.0259	5.7173	5.8309	6.6311	9.1471
	85	5.7509	7.0133	6.6161	7.4238	10.7124	13.2695
	87	4.8940	5.1046	4.7868	5.2013	6.6465	11.0878
베트남	27	3.5179	2.3677	2.2279	0.7822	1.0453	0.6603
	29	4.6537	4.3559	3.8430	2.8163	4.0425	3.2379
	39	2.0399	2.5650	2.6652	2.4603	4.1859	3.0219
	60	0.4740	0.4898	0.4862	0.3978	0.6956	0.5356
	72	1.2753	0.9550	0.8034	0.6279	1.8029	0.8115
	73	2.7896	3.6395	3.5269	2.5592	3.8963	3.0432
	74	1.0714	1.5303	2.8071	1.8406	6.6265	4.1371
	84	3.9849	5.0054	4.2048	3.1004	5.4746	4.1697
	85	1.9051	2.7924	3.8749	2.5910	5.2979	4.9436
	87	4.8166	5.9911	3.0465	1.8817	5.5861	2.7929
말레이시아	27	1.8353	3.2996	2.3438	4.5782	7.0286	11.2002
	29	8.3656	8.3746	7.7553	6.1115	10.2836	9.1563
	39	3.1737	4.1675	3.6830	3.2780	6.0558	8.6040
	60	10.4142	16.7959	9.5552	7.6322	14.2292	15.5290
	72	3.9065	3.2728	3.1052	2.5001	6.2985	5.9934
	73	3.3902	4.0750	3.7334	4.1494	5.7597	7.2940
	74	2.1937	1.4254	1.3201	1.7953	1.6887	4.5816
	84	6.3253	7.0393	6.6359	7.5760	9.9350	10.1005
	85	3.9077	5.2564	6.2346	5.2323	8.6192	8.3197
	87	4.5531	8.1980	5.9182	4.6329	6.7275	8.1231
인도네시아	27	3.6068	4.7239	3.8507	1.0661	1.4452	1.3560
	29	2.8508	3.0782	2.9120	2.7976	4.3355	4.7544
	39	3.2653	3.5397	3.7285	2.9435	6.3615	7.4484
	60	1.5363	1.7897	1.5686	1.3667	2.5332	2.3793
	72	1.4608	1.5470	1.4767	1.5777	4.4974	4.8809
	73	2.3687	2.7754	3.3174	2.6863	4.1741	5.6089
	74	1.4474	1.3916	2.2879	2.4200	5.9450	7.8083

	84	3.6750	3.8972	4.0637	4.3118	5.7549	7.3199
	85	5.3912	5.8746	6.8704	5.9519	10.5573	11.6262
	87	4.4579	4.8992	4.6815	3.8877	5.6834	6.7954
	90	3.9643	5.0411	6.4632	5.6919	6.3434	7.2506

자료: UNcomtrade 무역 통계 데이터를 통해 저자가 계산.

중국 대 아시아 5개국의 품목별 RCA지수 분석표를 보면, 중국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해 거의 모든 품목에 RCA지수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분석 대상 11개 품목 중에서 동과 그 제품(HS74)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1보다 큰 수치로 나타나며, 중국 대 태국의 품목별에는 광물성연료(HS27), 정밀기기(HS90), 편직물(HS60)이 경쟁력이 더 크다고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국 대 베트남의 품목별에는 편직물(HS60)을 제외한 다른 10개 품목이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기화합물(HS29) 및 자동차 및 부품(HS87)이 다른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대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RCA지수를 보면, 모든 1보다 큰 수치로 나타났으며, 대 말레이시아에서는 편직물(HS60), 유기화합물(HS29), 기계류(HS84)가 경쟁력이 더 크며, 대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이 다른 품목보다 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대 필리핀의 품목별 RCA지수를 보면, 광물성연료(HS27),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제품(HS73)을 제외한 다른 품목별 다 1보다 큰 수치로 나타났다. 그리고 1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낸 품목은 광물성연료(HS27),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제품(HS73)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29> 일본 대 아시아(5개국)의 품목별 RCA지수 분석표

	품목	연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태국	27	24.6677	27.7705	26.7262	46.8876	30.8179	24.4120
	29	14.9344	13.9901	14.5871	17.3355	11.5363	7.0643
	39	8.4249	6.7073	6.9861	6.9631	5.9076	5.6903
	60	9.6947	7.2285	8.8027	7.6410	7.8682	9.1319
	72	3.0934	2.3463	2.5226	2.5713	2.1756	2.2116
	73	5.4238	4.1049	4.3163	4.8600	3.5722	3.4317
	74	3.6545	3.1009	3.2617	3.8969	3.9116	3.1685
	84	8.4050	7.5361	6.6704	5.4683	3.6596	4.9194
	85	8.0429	6.5658	7.1480	7.2288	5.6376	5.0595
87	16.3143	15.4024	14.9973	15.0284	7.4493	8.4727	

	90	9.6332	9.0113	8.2326	8.4418	5.9366	7.3435
베트남	27	29.3281	126.2172	104.6215	21.9261	71.8863	16.2574
	29	28.2418	30.7400	25.3739	27.3329	32.9075	17.0188
	39	9.9126	8.0845	8.2567	7.9296	6.2168	4.6484
	60	1.6556	1.4345	1.3627	1.3883	1.1227	1.0881
	72	4.7271	5.0004	4.5952	4.6126	3.6182	3.0263
	73	20.1420	16.2098	13.7519	12.6573	8.9994	5.7277
	74	14.6685	7.7409	11.1872	9.8522	8.8882	5.9783
	84	20.8078	17.6256	14.3719	11.6305	10.1935	7.6401
	85	9.9062	8.8346	8.6380	9.3497	7.8908	8.9951
	87	76.4336	69.8086	44.9635	52.8157	79.6113	39.4854
	90	19.0958	18.6219	19.5781	20.9606	14.0345	12.5814
말레이 시아	27	5.0343	8.0687	14.5746	21.7184	21.0058	30.6603
	29	41.9343	40.1297	39.0923	52.4597	47.8208	31.6658
	39	14.1400	11.7068	11.7783	14.5079	13.0679	11.8377
	60	226.0877	268.7762	184.5970	133.4371	160.6930	86.6248
	72	11.1614	11.5296	10.2807	13.6487	12.4895	11.0157
	73	16.6865	10.5159	9.4960	6.2050	5.3870	5.7254
	74	5.5717	5.8437	5.5668	6.2302	4.3128	4.2555
	84	29.3639	25.1259	18.5390	21.2315	16.2243	14.7497
	85	11.0090	11.9158	10.3082	11.1599	8.2681	7.4102
	87	34.0365	26.5512	22.9917	22.6886	16.4564	15.5421
	90	25.3785	27.1776	25.0851	25.5661	16.6226	8.4583
인도네 시아	27	56.9142	55.5093	60.5217	50.7612	36.6057	30.0034
	29	16.2282	14.5169	13.9606	15.9671	16.2625	12.3110
	39	14.8288	10.2962	9.0240	10.6114	10.2628	11.3592
	60	3.7433	2.8880	3.9038	5.1992	6.5198	9.8624
	72	5.8982	4.3837	4.3431	5.3716	4.8286	5.4825
	73	5.8920	4.6258	4.6644	6.4678	4.7934	4.1214
	74	12.5215	6.2813	6.7096	5.2839	4.9691	4.8895
	84	13.8636	8.2466	9.5034	8.0057	6.3770	6.1730
	85	26.9855	18.1861	17.6365	17.5370	15.1720	13.9370
	87	27.0576	12.1483	18.9729	15.2226	8.7243	10.0935
	90	32.4368	22.7439	20.7134	19.8023	19.7202	27.2173

자료: UNcomtrade 무역 통계 데이터를 통해 저자가 계산.

일본의 경우에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해 모든 품목에 RCA지수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중국에 비해 각국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일본 대 태국의 품목별에는 광물성연료(HS27), 자동차 및 부품(HS87)이 다른 품목보다 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대 베트남의 품목별에는 자동차 및 부품(HS87), 광물성연료(HS27), 유기화합물(HS29) 등이 다른 품목보다 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 말레이시아의 경우, 편직물(HS60), 유기화합물(HS29)이 다른 품목보다 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대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물성연료(HS27), 정밀기기(HS90)가 경쟁력이 더 있다는 것이고 대 필리핀의 경우, 광물성연료(HS27),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가 다른 품목보다 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대칭적 현시비교우위(SRCA) 분석

현시비교우위(RCA)지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일반적으로 비교 열위로 판단하고, 1보다 크면 비교우위로 판단하는데 무한대의 값을 갖는 경우도 있게 된다. 따라서 Symmetric RCA는 기존의 비대칭성 RCA지수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타났으며, 식은 다음과 같다⁶⁴⁾.

$$SRCA = \frac{(RCA - 1)}{(RCA + 1)} \text{ ----- (2)}$$

식(2)의 대칭적 비교우위 지수(SRCA)는 -1에서 1사이의 지수값을 가지게 되며, RCA의 값이 무한대(∞)인 경우 SRCA의 값은 1, RCA의 값이 0인 경우 SRCA의 값은 -1이고, RCA의 값이 1인 경우 SRCA의 값은 0을 갖게 된다.

한중일 대 세계의 품목별 SRCA지수 분석표를 보면, 한국은 광물성연료(HS27)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1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철강제품(HS73)도 1보다 낮은 (-)를 기록하여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과 그 제품(HS74), 기계류(HS84)는 최근들어 경쟁력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은 광물성연료(HS27), 유기화합물(HS29), 동과 그 제품(HS74), 자동차 및 부품(HS87)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1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보면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제품(HS73),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도 1보다 큰 (+)를 기록하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4) Keld Laursen,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the alternatives as measures of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Eurasian Business Review volume 5, pp.99 - 115., 2015.

일본은 광물성연료(HS27), 편직물(HS60)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1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을 보면, 철강제품(HS73), 전자기기(HS85)도 1보다 낮은 (-)를 기록하여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기화합물(HS29), 플라스틱 제품(HS39), 철강(HS72), 동과 그 제품(HS74), 기계류(HS84),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는 최근 들어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IV-30> 한중일 대 세계의 품목별 SRCA지수 분석표

	품목	연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한국	27	-0.0354	-0.2075	-0.2519	-0.2569	-0.2406	-0.3730
	29	0.1360	0.2933	0.2546	0.3114	0.2891	0.2087
	39	0.2658	0.2607	0.2451	0.2586	0.2553	0.2356
	60	0.3427	0.4509	0.5342	0.5772	0.6287	0.6359
	72	0.3482	0.3017	0.3305	0.3085	0.3254	0.2940
	73	-0.0589	0.0230	0.1537	0.1269	0.1440	0.0036
	74	0.1258	-0.0237	-0.0015	-0.0131	-0.0548	-0.0478
	84	0.0071	0.0347	-0.0065	-0.0212	-0.0328	-0.0349
	85	0.2861	0.3560	0.3016	0.3098	0.2849	0.2880
	87	0.1433	0.1150	0.1957	0.2615	0.2758	0.2257
90	0.0323	0.1760	0.2449	-0.1144	0.3818	0.4389	
중국	27	-0.6219	-0.7322	-0.7575	-0.8430	-0.8214	-0.8009
	29	-0.0182	0.0230	-0.0335	-0.1289	-0.0275	-0.0847
	39	0.0207	-0.0261	-0.0647	-0.1627	0.0294	-0.1819
	60	0.5181	0.5773	0.5362	0.4452	0.6060	0.5137
	72	-0.1815	-0.0770	0.0423	-0.1646	0.0692	-0.1624
	73	0.2239	0.2269	0.2012	0.1670	0.2696	0.2052
	74	-0.5083	-0.5064	-0.4598	-0.4482	-0.4640	-0.5461
	84	0.1311	0.1800	0.1583	0.1660	0.2598	0.2428
	85	0.2265	0.2953	0.2891	0.2416	0.3946	0.3047
	87	-0.4577	-0.4545	-0.4958	-0.5220	-0.3971	-0.4968
90	-0.0844	-0.0593	-0.0254	-0.4354	0.0808	0.0216	
일본	27	-0.6344	-0.7396	-0.7294	-0.7430	-0.8213	-0.8005
	29	0.0098	0.0563	0.0697	0.2062	0.1112	0.0972
	39	0.0552	0.0224	0.0350	0.0560	0.0749	0.0895
	60	-0.4732	-0.4119	-0.3923	-0.3575	-0.2748	-0.3271
	72	0.3127	0.2977	0.3347	0.3729	0.3541	0.3297
	73	-0.1120	-0.0854	-0.0583	0.0496	0.0651	-0.0127
	74	0.3324	0.1532	0.1449	0.1792	0.1089	0.0631
	84	0.1850	0.2517	0.2350	0.2514	0.2675	0.2391
	85	-0.0389	0.0112	0.0227	0.0852	0.1316	0.1304
	87	0.4143	0.4444	0.4421	0.4675	0.4750	0.4495
90	0.2283	0.2687	0.2431	-0.1482	0.3008	0.2386	

자료: UNcomtrade 무역 통계 데이터를 통해 저자가 계산.

한국 대 아세아 5개국의 품목별 SRCA지수 분석표를 보면, 한국 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11개 품목을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1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31> 한국 대 아시아(5개국)의 품목별 SRCA지수 분석표

	품목	연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태국	27	0.9614	0.9583	0.9722	0.9760	0.9855	0.9857
	29	0.9351	0.9421	0.9520	0.9266	0.9182	0.9027
	39	0.9274	0.9120	0.9153	0.9153	0.9123	0.9180
	60	0.9811	0.9723	0.9700	0.9583	0.9520	0.9694
	72	0.7348	0.7379	0.7476	0.7344	0.7309	0.7868
	73	0.9052	0.9270	0.9298	0.8833	0.9259	0.8860
	74	0.8595	0.7924	0.8379	0.8198	0.8572	0.8473
	84	0.9540	0.9521	0.9325	0.9111	0.9111	0.9174
	85	0.9691	0.9701	0.9649	0.9644	0.9611	0.9593
	87	0.9897	0.9827	0.9872	0.9864	0.9656	0.9786
90	0.9720	0.9688	0.9757	0.9636	0.9828	0.9646	
베트남	27	0.8386	0.8111	0.7954	0.9148	0.8182	0.7125
	29	0.9345	0.9375	0.9445	0.9213	0.9081	0.8778
	39	0.7076	0.6402	0.6507	0.6596	0.6674	0.6394
	60	0.1480	0.0634	0.0566	0.0259	0.0197	-0.0688
	72	0.7900	0.7523	0.7421	0.7049	0.6263	0.4819
	73	0.7994	0.8434	0.7893	0.7149	0.8127	0.6341
	74	0.6710	0.5760	0.5144	0.6051	0.8059	0.7870
	84	0.8463	0.8061	0.7500	0.7754	0.8184	0.7953
	85	0.5197	0.5032	0.5132	0.6200	0.6412	0.8584
	87	0.9158	0.8982	0.8870	0.9015	0.9230	0.8105
90	0.5929	0.4568	0.7441	0.8835	0.9399	0.9569	
말레이 시아	27	0.8227	0.8424	0.8641	0.9123	0.8756	0.9764
	29	0.9585	0.9611	0.9600	0.9617	0.9621	0.9595
	39	0.9457	0.9310	0.9273	0.9313	0.9369	0.9354
	60	0.9727	0.9813	0.9755	0.9638	0.9709	0.9709
	72	0.8749	0.8812	0.8893	0.8812	0.8638	0.8765
	73	0.9542	0.9422	0.8983	0.9371	0.9304	0.9418
	74	0.7666	0.6546	0.6995	0.6578	0.8185	0.8031
	84	0.9575	0.9432	0.9304	0.9410	0.9451	0.9563
	85	0.9479	0.9531	0.9438	0.9520	0.9419	0.9415
	87	0.9903	0.9849	0.9871	0.9760	0.9737	0.9737
90	0.9720	0.9727	0.9250	0.9031	0.9491	0.8882	
인도네 시아	27	0.9177	0.8270	0.8344	0.6118	0.5649	0.5479
	29	0.9290	0.9199	0.9257	0.9497	0.9433	0.9449
	39	0.8821	0.8702	0.8715	0.8611	0.8614	0.8737
	60	0.3568	0.3168	0.2771	0.3074	0.3583	0.3540
	72	0.8248	0.8075	0.7891	0.7407	0.7446	0.8395
	73	0.8445	0.9136	0.9459	0.9163	0.8541	0.9330
	74	0.9376	0.9271	0.9062	0.8685	0.9323	0.8933
	84	0.9263	0.9248	0.9371	0.9161	0.8813	0.9366
	85	0.9697	0.9661	0.9664	0.9671	0.9575	0.9537
	87	0.9881	0.9804	0.9793	0.9846	0.9774	0.9874
90	0.9663	0.9680	0.9762	0.9650	0.9747	0.9742	

자료: UNcomtrade 무역 통계 데이터를 통해 저자가 계산.

중국 대 아세아 5개국의 품목별 SRCA지수 분석표를 보면, 중국 대 태국의 11개 품목을 보면, 2020년 기준, 등과 그 제품(HS74)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1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 베트남의 경우, 편직물(HS60)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1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대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의 11개 품목을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1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대 필리핀의 경우, 2020년 기준을 보면, 광물성연료(HS27),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제품(HS73)은 1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32> 중국 대 아시아(5개국)의 품목별 SRCA지수 분석표

	품목	연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태국	27	0.7961	0.9064	0.8494	0.8882	0.9348	0.8890
	29	0.6279	0.6567	0.6565	0.6078	0.7068	0.6836
	39	0.5138	0.5996	0.6247	0.6091	0.7605	0.7769
	60	0.7347	0.7807	0.7711	0.7283	0.8107	0.7484
	72	0.1449	0.3109	0.3002	0.2697	0.5088	0.5667
	73	0.5132	0.6828	0.6407	0.6415	0.7475	0.8186
	74	-0.0032	0.0588	0.3494	0.3069	0.4675	0.5678
	84	0.6462	0.7153	0.7023	0.7072	0.7379	0.8029
	85	0.7037	0.7504	0.7374	0.7626	0.8292	0.8598
	87	0.6607	0.6724	0.6544	0.6775	0.7384	0.8345
	90	0.7271	0.7271	0.7634	0.7215	0.6370	0.7088
베트남	27	0.5573	0.4061	0.3804	-0.1222	0.0221	-0.2046
	29	0.6462	0.6266	0.5870	0.4759	0.6034	0.5281
	39	0.3421	0.4390	0.4543	0.4220	0.6143	0.5027
	60	-0.3569	-0.3424	-0.3458	-0.4308	-0.1796	-0.3024
	72	0.1210	-0.0230	-0.1090	-0.2286	0.2865	-0.1041
	73	0.4722	0.5689	0.5582	0.4381	0.5915	0.5053
	74	0.0345	0.2096	0.4747	0.2959	0.7378	0.6107
	84	0.5988	0.6670	0.6157	0.5122	0.6911	0.6131
	85	0.3116	0.4726	0.5897	0.4431	0.6824	0.6635
	87	0.6562	0.7139	0.5057	0.3060	0.6963	0.4727
90	0.4210	0.5056	0.5014	0.4548	0.6882	0.7600	
말레이시아	27	0.2946	0.5348	0.4019	0.6415	0.7509	0.8361
	29	0.7865	0.7867	0.7716	0.7188	0.8228	0.8031
	39	0.5208	0.6130	0.5729	0.5325	0.7165	0.7918
	60	0.8248	0.8876	0.8105	0.7683	0.8687	0.8790
	72	0.5924	0.5319	0.5128	0.4286	0.7260	0.7140

	73	0.5444	0.6059	0.5775	0.6116	0.7041	0.7589
	74	0.3738	0.1754	0.1380	0.2845	0.2561	0.6417
	84	0.7270	0.7512	0.7381	0.7668	0.8171	0.8198
	85	0.5925	0.6803	0.7236	0.6791	0.7921	0.7854
	87	0.6398	0.7826	0.7109	0.6449	0.7412	0.7808
	90	0.6314	0.6333	0.6289	0.5054	0.5672	0.5922
인도네시아	27	0.5659	0.6506	0.5877	0.0320	0.1821	0.1511
	29	0.4806	0.5096	0.4888	0.4733	0.6252	0.6524
	39	0.5311	0.5594	0.5770	0.4928	0.7283	0.7633
	60	0.2114	0.2831	0.2214	0.1549	0.4339	0.4082
	72	0.1873	0.2148	0.1925	0.2241	0.6362	0.6599
	73	0.4063	0.4702	0.5368	0.4574	0.6135	0.6974
	74	0.1828	0.1637	0.3917	0.4152	0.7120	0.7729
	84	0.5722	0.5916	0.6050	0.6235	0.7039	0.7596
	85	0.6871	0.7091	0.7459	0.7123	0.8269	0.8416
	87	0.6336	0.6610	0.6480	0.5908	0.7008	0.7434
90	0.5971	0.6689	0.7320	0.7011	0.7276	0.7576	

자료: UNcomtrade 무역 통계 데이터를 통해 저자가 계산.

일본 대 아세아 5개국의 품목별 SRCA지수 분석표를 보면, 한국 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11개 품목을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1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33> 일본 대 아시아(5개국)의 품목별 SRCA지수 분석표

	품목	연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태국	27	0.9221	0.9305	0.9279	0.9582	0.9371	0.9213
	29	0.8745	0.8666	0.8717	0.8909	0.8405	0.7520
	39	0.7878	0.7405	0.7496	0.7488	0.7105	0.7011
	60	0.8130	0.7569	0.7960	0.7685	0.7745	0.8026
	72	0.5114	0.4023	0.4322	0.4400	0.3702	0.3773
	73	0.6887	0.6082	0.6238	0.6587	0.5626	0.5487
	74	0.5703	0.5123	0.5307	0.5916	0.5928	0.5202
	84	0.7873	0.7657	0.7393	0.6908	0.5708	0.6621
	85	0.7788	0.7357	0.7545	0.7570	0.6987	0.6699
	87	0.8845	0.8781	0.8750	0.8752	0.7633	0.7889
	90	0.8119	0.8002	0.7834	0.7882	0.7117	0.7603
베트남	27	0.9341	0.9843	0.9811	0.9128	0.9726	0.8841
	29	0.9316	0.9370	0.9242	0.9294	0.9410	0.8890
	39	0.8167	0.7798	0.7839	0.7760	0.7229	0.6459
	60	0.2469	0.1785	0.1535	0.1626	0.0578	0.0422
	72	0.6508	0.6667	0.6426	0.6437	0.5669	0.5033
	73	0.9054	0.8838	0.8644	0.8536	0.8000	0.7027
	74	0.8724	0.7712	0.8359	0.8157	0.7977	0.7134
	84	0.9083	0.8926	0.8699	0.8417	0.8213	0.7685

	85	0.8166	0.7966	0.7925	0.8068	0.7750	0.7999
	87	0.9742	0.9718	0.9565	0.9628	0.9752	0.9506
	90	0.9005	0.8981	0.9028	0.9089	0.8670	0.8527
말레이 시아	27	0.6686	0.7795	0.8716	0.9120	0.9091	0.9368
	29	0.9534	0.9514	0.9501	0.9626	0.9590	0.9388
	39	0.8679	0.8426	0.8435	0.8710	0.8578	0.8442
	60	0.9912	0.9926	0.9892	0.9851	0.9876	0.9772
	72	0.8355	0.8404	0.8227	0.8635	0.8517	0.8336
	73	0.8869	0.8263	0.8095	0.7224	0.6869	0.7026
	74	0.6957	0.7078	0.6954	0.7234	0.6236	0.6194
	84	0.9341	0.9234	0.8976	0.9100	0.8839	0.8730
	85	0.8335	0.8452	0.8231	0.8355	0.7842	0.7622
	87	0.9429	0.9274	0.9166	0.9156	0.8854	0.8791
	90	0.9242	0.9290	0.9233	0.9247	0.8865	0.7885
	인도네 시아	27	0.9655	0.9646	0.9675	0.9614	0.9468
29		0.8839	0.8711	0.8663	0.8821	0.8841	0.8497
39		0.8736	0.8229	0.8005	0.8278	0.8224	0.8382
60		0.5784	0.4856	0.5922	0.6774	0.7340	0.8159
72		0.7101	0.6285	0.6257	0.6861	0.6569	0.6915
73		0.7098	0.6445	0.6469	0.7322	0.6548	0.6095
74		0.8521	0.7253	0.7406	0.6817	0.6649	0.6604
84		0.8654	0.7837	0.8096	0.7779	0.7289	0.7212
85		0.9285	0.8958	0.8927	0.8921	0.8763	0.8661
87		0.9287	0.8479	0.8999	0.8767	0.7943	0.8197
	90	0.9402	0.9158	0.9079	0.9039	0.9035	0.9291

자료: UNcomtrade 무역 통계 데이터를 통해 저자가 계산.

3) 무역특화 지수(TSI) 분석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 TSI)는 특정한 시장에서 각 국간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는 지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일정한 상품의 총 수출액과 총 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어느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말하자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순 수출액의 개념을 토대로 비교우위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써 일정한 지역의 특정 산업 순 수출이 특정 산업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특정한 산업이나 품목이 수출 특화인지, 아니면 수입 특화에 해당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순수출 비율지수 또는 국제경쟁력 지수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⁶⁵⁾.

i 산업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5)김지현, 「한국과 중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 및 보완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pp.41-42.

$$TSI_i = \frac{(X_i - M_i)}{(X_i + M_i)}, -1 \leq TSI_i \leq 1 \quad (3)$$

여기서, X_i 와 M_i 는 각각 i 산업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는 같은 산업내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동액일 때, 즉 $X_i = M_i$ 일 때 0이 된다. 한편, 동일 산업에서 수출은 있지만 수입이 없는 경우, $M_i = 0$ 일 때 무역특화지수는 1이 되며, 그리고 수출이 없는데 수입만 있는 경우 무역특화지수는 -1이 된다. 무역특화지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데, 완전 수입특화는 -1의 값이며, 완전 수출특화는 +1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무역특화지수 값이 점점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에 가깝고 그 특정 산업의 제품이 무역흑자를 실현하게 되어 양 국가 간 국제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에 무역특화지수 값이 음수를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세계 시장에서의 국제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이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34>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비교우위 분류기준

품목군	표현 색상	기준	설명
제1품목군		$0.5 \leq TSI \leq 1.0$	경쟁력 매우 강함(절대우위)
제2품목군		$0.0 < TSI < 0.5$	경쟁력 강함(비교우위)
제3품목군		$TSI = 0.0$	경쟁력 중립적(균형)
제4품목군		$-0.5 < TSI < 0.0$	경쟁력 약함(비교열위)
제5품목군		$-1.0 \leq TSI \leq -0.5$	경쟁력 매우 약함(절대열위)

자료 : 심재희, “주요국 자동차산업의 인도시장 수출성과 분석을 통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방안 모색”. 산업경제연구, 25(1), 2012, P.784

한 · 중 · 일 대 전세계의 품목별 TSI 분석표를 보면, 한국은 유기화합물(HS29),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제품(HS73),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가 무역특화지수 값이 점점 1에 가까울수록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광물성연료(HS27), 동과 그 제

품(HS74)은 다른 9개 품목에 비해 상대적인 국제경쟁력이 약하다.

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유기화합물(HS29),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제품(HS73),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이 역특화지수 값이 점점 1에 가까울수록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광물성연료(HS27), 철강(HS72), 동과 그 제품(HS74)이 상대적인 국제경쟁력이 약하다.

일본은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광물성연료(HS27), 유기화합물(HS29)이 -1에 가까울수록 세계 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제품(HS73), 동과 그 제품(HS74),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가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강하다.

<표 IV-35> 한중일 대 전세계의 품목별 TSI 분석표

	품목	연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한국	27	-0.5462	-0.5077	-0.4967	-0.5388	-0.5281	-0.5801
	29	0.1194	0.2813	0.2415	0.2603	0.2373	0.1614
	39	0.4664	0.4944	0.4663	0.4963	0.4455	0.4169
	60	0.8992	0.9191	0.9215	0.9311	0.9434	0.9447
	72	0.2794	0.2012	0.1311	0.0436	0.0316	-0.0669
	73	0.1273	0.2379	0.2611	0.1741	0.2301	0.0686
	74	-0.0241	-0.0830	-0.1606	-0.1763	-0.1837	-0.1570
	84	0.0840	0.1267	0.1169	0.1275	0.1191	0.0447
	85	0.2584	0.3705	0.2823	0.2962	0.2808	0.2745
	87	0.4969	0.5685	0.6087	0.6927	0.7646	0.7434
90	0.0172	0.1079	0.2254	0.3362	0.3380	0.4301	
중국	27	-0.7856	-0.7635	-0.7358	-0.8216	-0.8017	-0.7526
	29	0.1113	-0.0597	-0.0202	-0.1976	-0.1451	-0.2109
	39	0.1515	0.0340	0.0105	-0.1534	-0.0193	-0.2948
	60	0.8818	0.8345	0.7885	0.6924	0.7139	0.5740
	72	-0.0485	0.3541	0.4376	0.2737	0.4088	0.0664
	73	0.7646	0.7180	0.6884	0.6530	0.7153	0.6210
	74	-0.7744	-0.7455	-0.7032	-0.7359	-0.7729	-0.8116
	84	0.3927	0.3600	0.3991	0.3539	0.3756	0.2856
	85	0.1282	0.1205	0.1452	0.0691	0.1989	0.1059
	87	0.0153	-0.0409	-0.0863	-0.2378	-0.0475	-0.1263
90	-0.1052	-0.1787	-0.1573	-0.1859	-0.1784	-0.2662	
일본	27	-0.8651	-0.8580	-0.8441	-0.8861	-0.9150	-0.8770
	29	-0.0291	0.0189	0.0502	0.2130	0.1220	0.1528
	39	0.2614	0.2142	0.2538	0.2404	0.2898	0.3952
	60	0.6320	0.6668	0.6849	0.5984	0.6919	0.7146

	72	0.6002	0.5672	0.6237	0.5932	0.6214	0.6410
	73	0.1404	0.1515	0.1831	0.2949	0.3729	0.3692
	74	0.6287	0.4650	0.5005	0.4708	0.5567	0.5565
	84	0.2896	0.3400	0.3517	0.3413	0.4244	0.4568
	85	0.0294	0.0392	0.0442	0.0232	0.1302	0.2065
	87	0.7220	0.7247	0.7431	0.7371	0.7697	0.8197
	90	0.1819	0.1985	0.1947	0.2384	0.2633	0.2755

한국 대 태국의 품목별 TSI 분석표를 보면, 광물성연료(HS27), 유기화합물(HS29),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제품(HS73), 동과 그 제품(HS74), 자동차 및 부품(HS87)에서 편직물(HS60), 철강(HS72)은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대 태국의 품목별 TSI 분석표를 보면,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제품(HS73)이 전자기기(HS85)보다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 대 태국의 품목별 TSI 분석표를 보면, 광물성연료(HS27), 유기화합물(HS29),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제품(HS73), 동과 그 제품(HS74), 기계류(HS84),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가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IV-36> 한중일 대 태국의 품목별 TSI 분석표

	품목	연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한국	27	0.3176	0.2906	0.2187	0.1108	-0.4556	-0.5030
	29	0.3091	0.3181	0.2427	0.1725	0.4458	0.7374
	39	0.3830	0.3787	0.3570	0.3576	0.4340	0.5619
	60	0.8175	0.9731	0.9587	0.9806	0.9732	0.9698
	72	0.8767	0.8370	0.9167	0.9048	0.9229	0.9260
	73	0.7512	0.6926	0.7217	0.8136	0.8147	0.8307
	74	0.2583	0.6002	0.6321	0.1762	-0.1760	0.5027
	84	-0.0312	-0.0416	0.1574	0.3283	0.3767	0.3323
	85	-0.0129	0.1087	-0.0688	-0.1041	-0.0344	-0.1459
	87	0.0964	0.3771	0.3193	0.5328	0.8485	0.7580
90	0.0142	0.2460	0.2274	0.3953	-0.0051	0.7002	
중국	27	-0.3514	-0.6882	-0.6136	-0.7721	-0.8696	-0.7394
	29	-0.0284	-0.3105	-0.1455	-0.4329	-0.5001	-0.3647
	39	-0.1318	-0.2995	-0.3395	-0.4948	-0.5250	-0.6632
	60	0.9144	0.8248	0.7280	0.7405	0.7412	0.6926
	72	0.9597	0.9857	0.9853	0.9748	0.9788	0.9098
	73	0.9055	0.8458	0.8151	0.7916	0.8044	0.6650
	74	-0.1933	0.3058	0.1499	0.4119	0.2156	0.6534

	84	-0.1632	-0.0958	-0.0698	-0.0602	-0.2194	-0.4000
	85	0.0908	0.0181	-0.0013	-0.0693	-0.0144	-0.3534
	87	-0.1916	0.1424	0.2712	0.6843	0.7742	0.7578
	90	-0.3122	-0.2799	-0.4574	0.0053	0.4198	0.3651
일본	27	0.4816	0.0118	0.3964	0.0177	-0.5257	-0.3343
	29	0.5262	0.4473	0.3651	0.4358	0.4731	0.7683
	39	-0.0858	-0.1400	-0.0239	-0.0994	0.0253	0.2044
	60	0.5741	0.5176	0.4784	0.5989	0.6431	0.6603
	72	0.9679	0.9729	0.9668	0.9756	0.9715	0.9704
	73	0.3503	0.3854	0.3741	0.5175	0.6187	0.5304
	74	0.4742	0.3596	0.4463	0.4411	0.5732	0.5793
	84	0.2068	0.2905	0.3397	0.3732	0.5543	0.4048
	85	-0.0803	0.0217	0.1111	0.1244	0.2689	0.2538
	87	0.1565	0.4045	0.4752	0.4478	0.5902	0.6131
90	0.0866	0.1519	0.2312	0.3447	0.5219	0.2913	

자료: UNcomtrade 무역 통계 데이터를 통해 저자가 계산.

한국 대 베트남의 품목별 TSI 분석표를 보면, 11개 품목은 모든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대 태국의 품목별 TSI 분석표를 보면, 전자기기(HS85)가 다른 품목들보다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대 태국의 품목별 TSI 분석표를 보면, 광물성연료(HS27), 철강제품(HS73), 전자기기(HS85),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37> 한중일 대 베트남의 품목별 TSI 분석표

	품목	연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한국	27	0.9323	0.8006	0.8260	0.3370	0.0979	0.0496
	29	0.9704	0.9826	0.9965	0.9969	0.9782	0.8802
	39	0.8321	0.8569	0.8830	0.9249	0.9268	0.9398
	60	0.9666	0.9771	0.9813	0.9840	0.9859	0.9871
	72	0.7585	0.6907	0.7401	0.7929	0.9064	0.8429
	73	0.5367	0.3884	0.6707	0.7242	0.6732	0.7955
	74	0.7511	0.8398	0.9064	0.8993	0.8210	0.9654
	84	0.2125	0.5741	0.6213	0.8021	0.8252	0.8876
	85	0.5186	0.5238	0.5353	0.7156	0.8062	0.6249
	87	0.7575	0.8699	0.8980	0.9154	0.8984	0.9690
90	0.7491	0.6185	0.6500	0.5168	0.4228	0.7644	
중국	27	0.1856	0.4470	-0.2120	0.2045	-0.0406	0.0194
	29	0.6243	0.6031	0.9800	0.9681	0.9450	0.8624
	39	0.7614	0.6283	0.7793	0.6344	0.5656	0.8087
	60	0.8866	0.8704	0.8938	0.9680	0.9606	0.9632
	72	0.3291	0.9911	0.9958	0.9932	0.9580	0.9028

	73	0.9639	0.9467	0.9166	0.9325	0.9306	0.9363
	74	0.3638	0.5360	0.4820	0.8805	0.6016	0.2605
	84	0.6692	0.6997	0.6935	0.7493	0.6397	0.6835
	85	-0.0922	-0.1894	-0.0383	0.1872	-0.0420	0.5107
	87	0.6572	0.6361	0.8164	0.8850	0.9216	0.9390
	90	0.4223	0.0912	0.4884	0.7213	0.7909	0.7199
일본	27	-0.2847	-0.8354	-0.8283	-0.8386	-0.9866	-0.7432
	29	0.6495	0.5842	0.4985	0.5168	0.1960	0.3272
	39	0.1316	0.1521	0.1479	0.1808	0.3429	0.5043
	60	0.9669	0.9808	0.9800	0.9834	0.9871	0.9883
	72	0.8849	0.8699	0.9247	0.8914	0.9062	0.9499
	73	-0.2842	-0.2385	-0.0614	0.1638	0.3499	0.4855
	74	0.7797	0.8467	0.8034	0.8048	0.7187	0.8284
	84	0.3035	0.3679	0.3541	0.4258	0.4241	0.4877
	85	-0.1114	-0.1034	-0.0526	-0.0185	0.0075	-0.1452
	87	0.1614	0.0864	0.2745	0.0806	0.0797	0.1128
	90	0.3746	0.2916	0.2137	0.1929	0.2084	0.1209

자료: UNcomtrade 무역 통계 데이터를 통해 저자가 계산.

한국 대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TSI 분석표를 보면, 11개 품목 중에서는 광물성연료(HS27), 유기화합물(HS29), 전자기기(HS85), 정밀기기(HS90)가 (-)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HS72), 동과 그 제품(HS74), 기계류(HS84), 자동차 및 부품(HS87)이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는 편직물(HS60)은 국제경쟁력이 가장 강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편직물(HS60), 철강제품(HS73)이 가장 강한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다음, 자동차 및 부품(HS87), 기계류(HS84), 플라스틱 제품(HS39)이며, 국제경쟁력이 약한 품목은 광물성연료(HS27), 유기화합물(HS29), 철강(HS72), 동과 그 제품(HS74), 전자기기(HS85)이다.

일본 대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TSI 분석표를 보면, 한국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며, 광물성연료(HS27), 유기화합물(HS29), 전자기기(HS85), 정밀기기(HS90)가 국제경쟁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38> 한중일 대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TSI 분석표

	품목	연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한국	27	-0.3818	-0.3220	-0.5056	-0.6838	-0.4594	-0.9257
	29	-0.0303	-0.0751	-0.1160	-0.1742	-0.2641	-0.2730
	39	0.3188	0.3658	0.2787	0.2691	0.2997	0.4127
	60	0.9986	0.9889	0.9984	0.9994	0.9837	0.9801
	72	0.5587	0.3276	0.6134	0.6177	0.6637	0.6050
	73	0.5106	0.6155	0.6060	0.4065	0.7008	0.4787
	74	0.2539	0.5307	0.5780	0.5135	0.3222	0.6143
	84	0.0142	0.0807	0.1579	0.0475	0.0624	-0.0785
	85	-0.1626	-0.2201	-0.1547	-0.1360	-0.0969	-0.2011
	87	0.7651	0.8670	0.8868	0.9610	0.9568	0.9526
90	-0.5876	-0.3955	0.2936	0.5759	0.0762	0.6790	
중국	27	-0.7926	-0.7975	-0.5932	-0.7961	-0.8068	-0.8773
	29	-0.2314	-0.3823	-0.3352	-0.2524	-0.4843	-0.3369
	39	0.1091	-0.0241	0.1561	0.0253	-0.1249	-0.4377
	60	0.9459	0.9546	0.9464	0.9521	0.8780	0.8266
	72	-0.2642	0.8231	0.9303	0.9055	0.8179	0.6583
	73	0.9193	0.9208	0.9061	0.8528	0.8187	0.8239
	74	-0.7759	-0.2184	-0.0411	-0.3596	-0.2088	-0.7835
	84	0.1682	0.1961	0.2134	0.1296	0.0011	-0.0498
	85	-0.4057	-0.4598	-0.5986	-0.5511	-0.6383	-0.6588
	87	0.8099	0.6315	0.6390	0.6872	0.8013	0.6908
90	-0.1792	0.0164	0.0290	0.3376	0.3394	0.3656	
일본	27	-0.7749	-0.8373	-0.9401	-0.9706	-0.9811	-0.9782
	29	-0.1728	-0.2948	-0.3783	-0.3086	-0.4761	-0.2415
	39	0.0580	0.0569	0.0491	-0.0248	0.0157	0.1007
	60	0.1038	0.1125	0.2334	0.4914	0.4189	0.6181
	72	0.6830	0.5785	0.8583	0.9425	0.9673	0.9701
	73	0.6596	0.7188	0.7424	0.8542	0.8750	0.8472
	74	0.6625	0.5213	0.5637	0.4987	0.5976	0.5558
	84	0.4045	0.4193	0.4999	0.4821	0.4902	0.4568
	85	-0.1205	-0.2016	-0.2008	-0.1903	-0.0509	-0.0610
	87	0.8833	0.9116	0.9073	0.9258	0.9405	0.9469
90	-0.1864	-0.2185	-0.2260	-0.0720	0.1190	0.4368	

자료: UNcomtrade 무역 통계 데이터를 통해 저자가 계산.

한국 대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TSI 분석표를 보면, 11개 품목 중에서는 광물성연료(HS27), 동과 그 제품(HS74)이 (-)로 나타나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머지 9개 품목은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는 편직물(HS60), 철강제품(HS73)은 국제경쟁력이 가장 강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도 한국과 비슷하게 11개 품목 중에서는 광물성연료(HS27), 동과 그 제품(HS74) 그리고 철강(HS72)이 (-)로 나타나며, 나머지 8개 품목은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는 편직물(HS60), 철강제품(HS73), 기계류(HS84)가 가장 강한 경쟁력이 있다고 결과를 나타냈다.

일본 대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TSI 분석표를 보면, 광물성연료(HS27), 플라스틱 제품(HS39), 전자기기(HS85)가 국제경쟁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경쟁력이 강한 품목은 철강(HS72), 편직물(HS60)이다.

<표 IV-39> 한중일 대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TSI 분석표

	품목	연도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한국	27	-0.7379	-0.5633	-0.6545	-0.3250	-0.3389	-0.4690
	29	0.2762	0.3694	0.2682	0.1702	0.4287	0.3185
	39	0.8111	0.8426	0.8035	0.8148	0.8451	0.8527
	60	0.9751	0.9898	0.9909	0.9922	0.9874	0.9929
	72	0.0196	0.0913	0.3719	0.6693	0.8040	0.5716
	73	0.9162	0.9359	0.6513	0.8184	0.8958	0.8681
	74	-0.2418	-0.1180	0.0764	-0.1195	-0.2462	0.5278
	84	0.6885	0.6747	0.6059	0.7605	0.8579	0.7401
	85	0.2830	0.5159	0.2979	0.2510	0.3285	0.3765
	87	0.4938	0.8331	0.8610	0.9487	0.9628	0.9467
	90	0.7137	0.1740	0.5720	0.7969	0.8106	0.8024
중국	27	-0.8884	-0.8816	-0.8843	-0.5858	-0.6898	-0.5752
	29	0.4031	0.2480	0.4505	0.1293	0.1629	-0.1962
	39	0.5036	0.6594	0.6173	0.5904	0.4919	0.3549
	60	0.9824	0.9820	0.9779	0.9846	0.9698	0.9196
	72	-0.6744	-0.1442	0.3651	0.9700	0.9842	0.9672
	73	0.9866	0.9823	0.9821	0.9780	0.9767	0.9477
	74	-0.5661	-0.2283	-0.1492	-0.2166	-0.4778	-0.6561
	84	0.9032	0.9089	0.9042	0.8912	0.7888	0.7420
	85	0.7122	0.6939	0.6442	0.6781	0.5887	0.4287
	87	0.6912	0.6282	0.6510	0.6931	0.7411	0.8029
	90	0.8362	0.7742	0.7624	0.8182	0.8974	0.8804
일본	27	-0.9781	-0.9821	-0.9881	-0.9874	-0.9900	-0.9866
	29	0.0230	0.0825	0.1184	0.3355	0.2756	0.4740
	39	-0.0130	0.0898	0.1469	0.1242	0.1641	0.0937
	60	0.7963	0.8687	0.8152	0.8166	0.7890	0.7013
	72	0.9827	0.9770	0.9842	0.9473	0.9787	0.9722
	73	0.6261	0.6843	0.6537	0.5894	0.7026	0.6548
	74	0.7441	0.6543	0.6471	0.6057	0.7981	0.8052

	84	0.5066	0.7231	0.6497	0.7019	0.7390	0.7600
	85	-0.2083	-0.0573	-0.0195	0.0128	0.1332	0.1127
	87	0.4178	0.6930	0.5412	0.6515	0.7944	0.7756
	90	0.4813	0.5709	0.5783	0.6462	0.6010	0.5191

자료: UNcomtrade 무역 통계 데이터를 통해 저자가 계산.

4. 대 아세안 국제경쟁력 종합 분석

1) 한국의 시장 점유율 및 수출경합도 종합 분석

한국의 대 아세안 국가별 시장 점유율 및 수출경합도를 종합 분석한 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장 점유율은 아세안 4개국에서 중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베트남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2010년 대비 2020년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품목은 유기 화합물(HS29), 철강(HS72), 철강 제품(HS73), 기계류(HS84),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 품목이며, 2020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 품목은 편직물(HS60)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시장에서는 2010년 대비 2020년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품목은 광물성 연료(HS27), 유기 화합물(HS29), 편직물(HS60), 철강(HS72), 동과 그 제품(HS74), 기계류(HS84) 품목이며, 나머지 품목은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다.

베트남 시장에서는 2010년 대비 2020년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품목은 플라스틱 제품(HS39), 철강 제품(HS73), 동과 그 제품(HS74),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정밀기기(HS90) 품목이며, 2020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 품목은 플라스틱 제품(HS39), 동과 그 제품(HS74), 전자기기(HS85), 정밀기기(HS90)로 나타났으며, 정밀기기(HS90)품목은 한중일 중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태국 시장에서는 2010년 대비 2020년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품목은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HS72)품목이며, 나머지 품목은 모두 시장점유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시장 점유율 분석에서 태국시장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40> 한국의 시장 점유율 증가 추이 평가

구분	HS 27	HS 29	HS 39	HS 60	HS 72	HS 73	HS 74	HS 84	HS 85	HS 87	HS 90
인도네시아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	▼	▼	▼
베트남	▼	▼	▲ ■	▼	▼	▲	▲ ■	▲	▲ ■	▼	▲ ■ ●
태국	▼	▼	▲	▲	▲	▼	▼	▼	▼	▼	▼

주: 2010년 대비 2020년 증가 ▲, 2010년 대비 2020년 감소 ▼, 2020년 현재 시장점유율 20이상 ■, 한중일 중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 ●

그리고 한국의 대 아세안 시장 4개국에서의 한·중 및 한·일 간 경합 상황을 품목별로 종합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전반적으로 경합도가 상승한 품목과 하락한 품목의 수는 거의 비슷하며,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기계류(HS84)와 전자기기(HS85)제품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합도가 매우 높으며, 그 외 인도네시아에서는 플라스틱 제품(HS39)의 경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플라스틱 제품(HS39),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에서 한중, 한일 경합도가 0.3이상, 철강(HS72)품목에서는 한일 경합도가 0.3이상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보면 광물성 연료(HS27), 플라스틱 제품(HS39)품목에서는 한중, 한일 경합도 모두 상승하였으며, 유기 화합물(HS29), 철강(HS72)품목은 한일 경합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모든 품목에서는 한중, 한일 경합도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품목은 한중, 한일 경합도가 모두 하락하였지만 경합도가 0.3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중국과 일본의 수출상품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시장에서 보면 동과 그 제품(HS74), 전자기기(HS85), 정밀기기(HS90) 품목에서는 한중, 한일 경합도 모두 상승하였으며, 플라스틱 제품(HS39)품목은 한중 경합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모든 품목에서는 한중, 한일

경합도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자기기(HS85)품목은 한중, 한일 경합도가 0.3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중국과 일본의 수출상품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국 시장에서 보면 플라스틱 제품(HS39), 동과 그 제품(HS74), 전자기기(HS85), 품목에서는 한중, 한일 경합도 모두 상승하였으며, 광물성 연료(HS27)품목은 한중 경합도가 상승하였으며, 철강 제품(HS73)에서는 한일 경합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품목에서는 한중, 한일 경합도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HS39)은 한중경합도 0.3 이상, 철강(HS72)은 한일 경합도 0.3 이상,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에서는 한중, 한일 경합도 모두가 0.3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중국과 일본의 수출상품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1> 품목별 한·중 및 한·일간 경합 상황 평가

구분	HS27		HS29		HS39		HS60		HS72		HS73	
	한중	한일	한중	한일	한중	한일	한중	한일	한중	한일	한중	한일
인도네시아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	▼	▲	▼	▼
베트남	▼	▼	▼	▼	▲	▼	▼	▼	▼	▼	▼	▼
태국	▼	▲	▼	▼	▲	▲	▼	▲	▼	▼	▲	▼
구분	HS74		HS84		HS85		HS87		HS90		주: 경합도 (2020년 기준)가 0.3 이상인 품목은 ★, 2010년 대비 2020년 경합도 상승은 ▲, 하락은 ▼로 표시함.	
	한중	한일	한중	한일	한중	한일	한중	한일	한중	한일		
인도네시아	▲	▼	▲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	▼	▼		
베트남	▲	▲	▼	▼	▲	▲	▼	▼	▲	▲		
태국	▲	▲	▼	▼	▲	▲	▼	▼	▼	▼		

2) 한국의 SRCA 지수와 TSI지수 종합 분석

한국의 대 아세안국가 4개국에 대한 SRCA의 종합 분석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국은 4개국 모든 국가의 상품에 0.5이상으로 나타나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유기 화합물(HS29), 철강(HS72), 철강 제품(HS73), 기계류(HS84), 정밀기기(HS90)는 2020년 기준으로 2010년 대비 경쟁력은 하락 하였지만, 편직물(HS60)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SRCA 지수가 0.5이상으로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광물성 연료(HS27), 유기 화합물(HS29), 철강(HS72), 동과 그 제품(HS74)은 2020년 기준으로 2010년 대비 경쟁력은 하락하였고,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 제품(HS73),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은 경쟁력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상승한 품목과 하락한 품목 모두 SRCA 지수가 0.5이상으로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 시장에서 동과 그 제품(HS74), 전자기기(HS85), 정밀기기(HS90)는 2020년 기준으로 2010년 대비 경쟁력은 하락하였고, 나머지 광물성 연료(HS27), 유기 화합물(HS29),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 제품(HS73), 기계류(HS84), 자동차 및 부품(HS87)은 경쟁력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편직물(HS60)을 제외한 상승한 품목과 하락한 품목 모두 SRCA 지수가 0.5이상으로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태국 시장에서 광물성 연료(HS27), 철강(HS72)은 2020년 기준으로 2010년 대비 경쟁력은 하락하였고, 나머지 유기 화합물(HS29),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 철강 제품(HS73), 동과 그 제품(HS74),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은 경쟁력이 상승하였다. 그리고 모든 품목에서 SRCA 지수가 0.5이상으로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광물성 연료(HS27),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정밀기기(HS90)에서 $-1.0 \leq TSI \leq -0.5$ 사이로 경쟁력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품목에서는 무역특화지수가 모두 양수(+)로 나타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한국의 SRCA 비교우위 종합 평가

	HS 27	HS 29	HS 39	HS 60	HS 72	HS 73	HS 74	HS 84	HS 85	HS 87	HS 90
인도네시아	■ ▲	■ ▼	■ ▲	▲	■ ▼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	■ ▼	■ ▲	■ ▼	■ ▲	■ ▲	■ ▲	■ ▲
베트남	■ ▲	■ ▲	■ ▲	▲	■ ▲	■ ▲	■ ▼	■ ▲	■ ▼	■ ▲	■ ▼
태국	■ ▼	■ ▲	■ ▲	■ ▲	■ ▼	■ ▲	■ ▲	■ ▲	■ ▲	■ ▲	■ ▲

주: ■는 비교우위 (2020년 기준으로 0.5보다 큰 경우), ▲는 비교우위 품목중 2010년 대비 2020년 상승, ▼는 비교우위 품목중 2010년 대비 하락

<표 IV-43> 한국의 TSI 무역 특화 종합 평가

	HS 27	HS 29	HS 39	HS 60	HS 72	HS 73	HS 74	HS 84	HS 85	HS 87	HS 90
인도네시아	■	■	■	■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	■	■	■
베트남	■	■	■	■	■	■	■	■	■	■	■
태국	■	■	■	■	■	■	■	■	■	■	■

주: ■은 0.5≤TSI≤1.0 경쟁력 매우 강함(절대우위), ■는 0.0<TSI<0.5 경쟁력 강함(비교우위), ■는 -0.5<TSI<0.0 경쟁력 약함(비교열위), ■는 -1.0≤TSI≤-0.5 경쟁력 매우 약함(절대열위) 임.

V. 결론 및 시사점

현 정부는 아세안과 인도 등 신 남방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켜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 세계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외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핵심 개념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남방정책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신남방 국가들의 새로운 협력 수요 등을 반영하여 신남방정책 플러스로 정책을 한 단계 고도화하였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한국에 있어서는 이미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의 제 2의 교역 파트너이자 세번째 해외투자 대상으로서, 아세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관계를 다져왔습니다. 또한 아세안 경제적 잠재력 높아 경제 공동체로서 아세안은 인구 세계 3위, 경상 GDP 6위, 상품 수출 4위 그리고 상품 수입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구조에서도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미래에도 계속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고, 개도권 지역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높아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이다. 개별 국가로서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은 1억 이상의 인구를 기반으로 세계의 주요 경제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아세안은 이질적 경제구조를 가진 개발도상국인 동남아 10개국이 설립한 국가연합체이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5개국이 1967년에 대내적으로 주요국 간의 갈등 조정, 대외적으로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따라 아세안을 창설했고, 이후 나머지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가입하여 1990년대 후반에 현재의 10개국 체제가 완성되었다. 아세안이 하나의 국제 단위가 되었지만 회원국의 경제규모나 발전단계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아세안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의 GDP는 브루나이의 80배에 이르고, 심지어 라오스에 비해서도 60배 가까이 크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6억 명으로 가장 작은 브루나이의 43만 명에 비해 500배 가까이 많다. 또한 아세안의 평균 1인당 소득은 5,000달러 수준으로 중진국 수준이지만, 싱가포르는 6만 달러 이상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아직 1인당 소득이 3,000달러 수준으로 저소득국에 속한다. 실제 싱가포르의 1인당 소득

은 소득이 가장 낮은 미얀마에 비해 거의 50배 가까이 많다.

이처럼 아세안은 수출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1990년대의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타결과 글로벌화의 심화, 또 아세안 주요국을 휩쓸었던 외환위기,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해 온 아세안에 대해 강대국은 전략적으로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1960년대부터 직접투자를 통해 아세안 지역을 경제활동의 안마당으로 활용한 일본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도 아세안과 제휴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아세안시장에서 한국 수출은 중국과 일본 두 나라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이후 아세안 10개국의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은 일찍이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인적교류 등 폭넓은 경제영역에서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중국보다 한발 앞선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경제의 지속 성장세가 전망되고, 미·중 위주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아세안시장 진출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 시장에서의 한국 수출 상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수출 상품, 일본 수출 상품과의 국제 경쟁력을 분석하여 정책 대안으로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11대 품목인 광물성연료(HS27), 유기화합물(HS29), 플라스틱 제품(HS39), 편직물(HS60), 철강(HS72), 철강제품(HS73), 동과 그 제품(HS74),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자동차 및 부품(HS87), 정밀기기(HS90)를 대상으로 HS 코드 2단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제시된 11대 품목의 대 세계와 대 아세안 국가별(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RCA지수와 SRCA지수 및 TSI지수를 분석하여 그 변화 추이를 비교하여 국제 경쟁력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해 보고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수출상품이 아세안 시장에서 수출경합도와 불변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의 대 아세안 국가별 시장 점유율 및 수출경합도를 보면 시장 점유율은 아세안 4개국에서 중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베트남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의 대 아세안 시장 4개국에서의 한·중 및 한·일 간 경합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경합도가 상승한 품목과 하락한 품목의 수는 거의 비슷하며,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기계류(HS84)와 전자기기(HS85)제품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합도가 매우 높으며, 그 외 인도네시아에서는 플라스틱 제품(HS39)의 경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대 아세안 국가 4개국에 대한 SRCA의 종합 분석을 하면, 한국은 4개국 모든 국가의 상품에 0.5이상으로 나타나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광물성 연료(HS27),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정밀기기(HS90)에서 $-1.0 \leq TSI \leq -0.5$ 사이로 경쟁력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품목에서는 무역특화지수가 모두 양수(+)로 나타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세안시장은 한국의 주요 상품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액은 전체 아세안에 대한 수출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너무 편중되어 있으며, 기계류(HS84), 전자기기(HS85), 정밀기기(HS90) 등의 주요 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다소 진출이 더딘 태국 등의 지역과 새로운 수출상품을 통해 마케팅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중국 및 일본과 경쟁이 심화된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비교우위 품목이지만 중국, 일본과 경쟁이 대체로 낮은 품목군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세안은 국가별, 한 국가 내에서도 구매계층별, 지역별로 소비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보다는 개별 시장으로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시장을 단순히 우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소비 시장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술협력, 비즈니스 교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문헌〉

고광수·장유식·김태환, “인도네시아시장에서 한국 수출상품의 국제 경쟁력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20, pp.267-286.

고광수·송진구,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조치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제14권 제6호, 2018, pp.549-568.

강내영, 「주요 신흥 Big 4 시장에서의 한·일 및 한·중 수출 경합도 분석 - 중국, 인도, 인니, 베트남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SSN 2093-3118, Trade Focus, 17호, 2018.05.

국가기술표준원·KSA한국표준협회, 「아세안 10개국의 TBT특성 분석 - UNCTAD비관세장벽 DB를 중심으로-」, TBT Policy Study 014, 2018-11호, 2018.12.

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주요국 기술무역장벽(TBT) 대응체계 분석 및 시사점 - 미국, EU, 중국, 일본, 독일-」 “중국 보호무역조치 확대 동향과 한국산업의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 TBT Policy Report 002, 2017-2호, 2017, 11.

김영찬·육승환, 「미국·일본시장에서의 수출 경합관계」, 조사연구자료 96-1호, 한국은행 조사제1부 국제수지과, 1996.01

김영환,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분석”,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3, pp.281 - 298.

김주한, 「한·중·일 철강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KIEP 산업 경제, 산업포커스, 산업연구원, 2013.10.

김지용, 「국산 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미국시장 수출 집중도 및 경쟁력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7권 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 pp.351-365.

대외정책연구원·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시대' 개막: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과제」, 제18-1호, 2018.1.23.

이호건,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

회, 통상정보연구, 15(4), 2013, pp.97 - 122.

조인택, “한국의 산업구조 분석과 발전 유형에 관한 연구 : 신산업분류 적용, 제조업과 서비스업국제경쟁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1(4), 2015, pp.485 - 503.

손승표, “FTA를 활용한 서비스무역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18(2), 2016, pp.151 - 167.

김태헌, “한국 자동차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구- RCA, CAC, ESI 지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2009. 12., pp.583-611.

권기수, “ 브라질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 분석”, 포르투갈 브라질 연구, 제16권 1호,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2019.2., pp.111-146.

여택동, “한국의 베트남 시장진출전략과 유망수출품목 선정”, 통상정보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9.6. pp.95-121.

백은영 · 이은화, “ 한·일 김 수출경쟁력 분석에 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제30권 3호, 한국도서학회, 2018.10. pp.139-159.

정지현, 김부용,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대외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5-01, 2015.12.

한승권 · 최장우,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중국 수출경쟁력 분석 ”, 통상정보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8., pp.111-130.

김지현, 「한국과 중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 및 보완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pp.41-42.

김태윤 · 이재호,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 대외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0-13, 2010.12.30.

김태윤·손기태·정재완·이재호·백유진,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10-20, 2010.12.30.

나희량,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 연구: 비관세조치 및 특정무역현안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44권 3호, 한국무역학회, 2019.06, pp.43-72.

대외정책연구원 · 주ASEAN대한민국대표부,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시대’ 개막: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과제」, KIEP 아세안 브리핑, 제18-01호, 2018.01.23.

박현성·최동용·이상규, 「동아시아 시장에서의 한중일 철강경쟁구도 변화와 시사점」, 포스코경영연구소, 2010.09.28.

신미화·이현훈, 「한·중·일 의료기기산업의 비교우위 및 무역패턴 분석」, 무역학회지, 36권 2호, 2011.04, pp.25-56.

심재희, 「주요국 자동차산업의 인도시장 수출성과 분석을 통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방안 모색」,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pp.777-800.

심혜정·조의윤, 「아세안 무역환경 진단과 우리 수출전략」,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9. 6

육승환·최준, 「세계 주요시장에서 한·중·일 철강수출 경합 현황」, 지역경제조사연구 포항, 2014.3

윤소영, 「최근 우리나라 보건산업 대중국 수출입특화품목 동향」, 보건산업브리프, Vol. 1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01. 27.

윤소영, 「최근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보건산업브리프, Vol. 13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06. 23.

조태희·김광민·이병주, 「충북지역 수출 결정요인과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2012-08 한국은행 충북본부 pp.352-354.

최준, 「포항지역 철강수출 둔화요인 점검」, 지역경제조사연구, 한국은행 포항본부, 2014.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말레이시아」, 2016.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태국」, 2016.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법연구센터,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 베트남」, 2016.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법연구센터,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 인도네시아」, 2018. 12.

한승권·최장우,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對중국 수출경쟁력 분석」, 통상정보학회지, 제20권 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8.03, pp.111-130.

한-아세안센터, 「2018 ASEAN & KOREA IN FIGURES」, 2018.5.

KOTRA, 「2018 ASEAN 지역 마케팅 지표 조사 결과 보고서」, Global Market

Report 18-038, 2018.11.

KOTRA, 「2021 국별 진출전략 - 말레이시아」, KOTRA자료 21-066, 2021.

KOTRA, 「2019 국별 진출전략 - 인도네시아」, KOTRA자료 19-028, 2019.

KOTRA, 「2019 국별 진출전략 -태국」, KOTRA자료 19-025, 2019.

KOTRA, 「2021 국별 진출전략-베트남」, KOTRA자료 21-069, 2021.

KOTRA, 「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 III -동남아대양주·서남아·중동·CIS」, KOTRA자료 18-079, 2018.12.

KOTRA, 「미국 소비재시장 -한중일 수출경합 분석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6-00, 2016.02.

KOTRA,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사례집」, KOTRA자료 19-011, 2019.3.

KOTRA,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중국(베이징/상하이) 홍콩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 KOTRA자료 18-081/082, 2019.04.

<외국 문헌>

A. H. Q. M. Merckies and T. van der Meer,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 EMPEC, Vol. 13, pp. 65-80, 1988.02.

Balassa, B., 1977,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evisited: An Analysis of Relative Export Shares of the Industrial Countries, 1953-1971”,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45: 327-344.

Balassa, B., 1986, “Comparative Advantage in Manufactured Goods: A Reappraisal”,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8 (2) May, pp. 315-319.

Christopher Johnson, William Deese, Cathy Jabara, “Medical Devices and Equipment: Competitive Conditions Affecting U.S. Trade in Japan and Other Principal Foreign Markets”, USITC Publication 3909,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07.04.

Chung Mo Koo, Hyun-Hoon Lee, Euijeong Park, “Are Exports of China, Japan and Korea Diverted in the Major Regional Trading Blocks?”, The Asia Pacific Economic Forum (APEF) V Conference, Chuncheon, Korea, 5-6 July 2006.

Fredoun Z. Ahmadi-Esfahani, “Constant market shares analysis: uses, limitations and prospects”, *The Australi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Vol. 50, pp. 510–526, 2006.

Pammolli, F., M. Riccaboni, C. Oglialoro, L. Magazzini, G. Baio, and N. Salemo, “Medical Devices Competitiveness and Impact on Public Health” , 2005.05.

Tinbergen, J. (1962), *Shaping the World Economy– Suggestions for an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The Twentieth Century Fund.

Inka Havrila & Pemasiri Gunawardana, “Analysing Comparative Advantage and Competitiveness: An Application to Australia’s Textile and Clothing Industries”, *Australian Economic Papers*, 42(1):103–117, 2003.

Ferto, I. and Hubbard, L.J.,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Competitiveness in Hungarian Agri–Food Sectors.” *World Economy*, 26, 247–259. 2003.

J. David Richardson, “Constant–market–shares analysis of export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 issue 2, 227–239. 1971.

Balassa, B., “Trade Liber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33, 99–123., 1965.

Keld Laursen,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the alternatives as measures of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Eurasian Business Review* volume 5, pp.99 - 115., 2015.

Nur Chasanah, Jangkung Handoyo Mulyo, Dwidjono Hadi Darwanto, “Competitiveness and Export Similarity of Indonesian Horticulture in The Asean–Asean+3”, <https://doi.org/10.22146/jae.25583>.

Abdoulkarim Esmaili,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Dates”, 209–217, Jul 2014.,

<https://doi.org/10.1080/08974438.2014.909280>

Javeria Maryam, Umer Jeelanie Banday, Ashok Mittal, “Trade intensity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 analysis of Intra–BRICS trade”, *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ing Markets*, Vol. 13 No. 5, pp. 1182–1195, 29 November 2018.

A. H. Q. M. Merkies & T. van der Meer,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 *Empirical Economics*, volume 13, 65 - 80, 1988.

Jorge Chami Batista, “Competition between Brazil and other exporting countries in the US import market: a new extension of constant-market-shares analysis”, *Applied Economics*, 2477-2487, 11 Apr 2011.

IMF(World Economic Outlook)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Central Bank of Malaysia(BNM), Ministry of Finance

www.wto.org

www.kita.net

comtrade.un.org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Export Products from Korean, China and Japan in the ASEAN Market

Kwang-Soo, Ko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RCA index, SRCA index, and TSI index were analyzed by ASEAN countries (Thailand, Indonesia, Vietnam, and Malaysia) of major export items from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ir changes were compared. We analyzed how ESI and CMS of Korea, China, and Japan export products appear in the ASEAN marke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mong the four ASEAN countries, China had the highest market share and Export Similarity Index (ESI) of Korea to ASEAN countries and Korea seems to be doing well in the Vietnamese market.

Second, in Korea-China and Korea-Japan competition in the four countries in Korea's ASEAN market, the overall number of items with increased contention and decreased items was almost the same.

Although there are slight differences by country, the level of competition for machinery (HS84) and electronic equipment (HS85) products is very high in almost all countries and the degree of competition for plastic products (HS39) was high in Indonesia,

Third, SRCA's comprehensive analysis of Korea's four ASEAN countries showed that it was 0.5 or higher in all items of the four countries, indicating very high competitiveness and, looking at TSI, it was found that the competitiveness was very weak between $-1.0 \leq TSI \leq -0.5$ in the Indonesian market for mineral fuel (HS27) and for the Malaysian market for precision equipment (HS90). And for the remaining items, all of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es were positive (+), indicating that they were competitive.

Combining the analysis results, the ASEAN market is Korea's main export market but Korea's exports to Vietnam are too concentrated, accounting for nearly half of all exports to ASEAN. Major items such as machinery (HS84), electronic equipment (HS85), and precision equipment (HS90) account for a very high proportion of exports.

Accordingly, Korea needs to cultivate its marketing capabilities through new export products and regions such as Thailand, which have been slow to advance.

In addition, Korean products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ASEAN import market, but effort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are required for items that have intensified competition with China and Japan.

For items with comparative advantage, but with relatively low competition from China and Japan, it seems that Korean companies should continue their efforts to secure market competitiveness.

And since ASEAN consumption patterns vary by country and by purchasing class and region within a countr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nd approach ASEAN as an individual market rather than as a single market.

In the mid- to long-term, the ASEAN market should not be viewed merely as a consumption market to expand Korea's exports, but technology cooperation and expansion of business exchanges should be continuously maintained.